朝鮮日報

夕刊 五日(火)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社說

新春景氣展望

一

三十億의 膨大豫算에 伴하는 軍需인플레의 再擴大期待와 政府의 年末金融을 爲한 諸工作에 依한 昨秋以來의 金融硬化傾向의 緩和, 또는 인플레下의 農漁村傾向과 農產品價格騰貴에 伴하는 農村購買力의 增加豫想과 將來의 豫算膨脹에 依한 物價先高를 豫想한 假需要의 增加等等으로 해서 昨年年末에는 商品市場의 沸騰을 보게되고 이에 刺戟된 株式市場의 爆騰等으로 越年하얏는데 이는 諸重要商品의 春高市勢를 當然히 豫想케할뿐아니라 一步進하야 이 物價騰貴는 所謂 好景氣의 先驅的現象으로서 通貨膨脹은 今後 一層 加速度的으로 昂進될것으로 豫測하고 新年度의 經濟情勢는 顯著한 好景氣의 局面을 展開할것이라고 觀測하는이가 만케된것은 注目할 事實인바 그러면 이러한 物價騰貴 通貨膨脹의 加速度的 昂進은 果然 必至이며 따라서 이를 契機로 景氣는 上昇傾向을 밟을것이 確實한가 一考해볼 問題인가한다.

二

十二年度의 膨大豫算이 軍需인플레의 再擴大로 國家消費가 飛躍的으로 增大될것만은 旣定事實인以上 通貨의 某程度膨脹은 必至일것인데 이것이 生產增加 取引增加 利潤增加 이에依한 價格上昇等의 一聯의 現象을 誘導할것이란 豫想에서 景氣局面의 轉換을 推斷함은 當然하다고도 하겟스나 이것이 營利經濟內部에서오는 自然的變動 即景氣循環으로서 決定되던 自由主義經濟時代의 現象과 同一視할수업는 制約的인 幾多條件이 外部에서 作用하고 잇다는것을 忘却할수가업스니 첫재는 인플레內容이 從前의것과 判異하며 둘재로는 膨大豫算과함께 隨伴的으로 惹起되는 幾多의 問題는 國家權力에 依한 統制强化를 實際的으로 要求하고잇스므로 豫算의 膨脹과 同時에 國家經濟의 準戰時體制에로의 改編이 不可避的으로 施行될것을 考慮한다면 公式論的 景氣動向의 測定은 거의 不可能하다할것이다。

三

卽 大戰後의 恐慌克服을 爲하야 爲替低落과 赤字財政을 構成內容으로 健全財政下에 產業界의 安定, 資本家利益擁護를目的한從來의 인플레와는 달라서 軍需인플레가 中心內容인것만큼 반듯이 景氣回復에 寄與하는바잇슬는지 疑問이며 景氣上昇에는 對外的으로 輸出貿易의增進, 對內的으로는 商品의 國內消費增加의 兩大要因이 基本現象인바 諸外國의 日本商品에對한 防遏措處는 去益尤甚하고 一方으로 軍需工業中心의 國內生產力不足과 原料供給의 不足은 材料輸入의 增大에依한 貿易의 惡化를 招致할 憂慮가 업다고도 할수업고 또는中國의 幣制改革의 成功, 統一工作進捗에 依한 抗日政策의 强化等은 또한 對中貿易에 一抹의 暗影을 投하고 잇다고도 할수잇스며 안으로는 一方으로 農村購買力增進이 豫想되기는하나 重工業中心으로 景氣가 跛行될 傾向에 增稅에依한 消費財에의 購買力減殺을 考慮하지 안흘수 업슬으로 이도한 漠然한 樂觀을 不許하는바이구 이에加하야 赤字財政과 公債消化難、豫想되는增稅와 國家財政前途의 不安感等 幾多의 悲觀될만한 材料도 不少하다。

四

이러한 事情으로해서 膨大豫算에 對應할 赤字公債消化策이 考慮되는 가운데 金融統制强化策이 考慮되고 畢竟 國家消費擴大를 圓滑히 하는 產業統制强化가 要望되여 兩面으로 統制强化가 豫想되고 잇는데 쉽게말하면 今後의 經濟情勢는 軍需인플레와 이와 相剋되는 統制의 程度如何로 決定된다고 할수잇슬것이다。그런데 今後의 인플레가 財政破綻에서 生한 인플레의 急激한 發展이 아니오 軍需인플레의 昂進으로 漸進的으로 發展될것과 爲替의 自由放任을 不許하며, 또는 生產力不足을 根據로한 인플레가 아닌 資本逃避를 制約하여 資本家利益關係上 過剩生產의 潛在, 價格統制로 容易히 惡性인플레化할 憂慮는 업다하더라도 統制가 從前의 原則的 一般的이어든것에 服하야 限界的 資本統制에로 變移하는데 이것이 金融統制로부터 產業統制에까지 나아가고 그렇게 物價統制, 利潤統制에까지 밋친다면 景氣의 投機昂進은 期待할수가업슬것이다。그러나 金融、產業의 全面的統制는 單只 將來에의 準備的考慮程度에 지나지안허서 經濟의 實際에 [illegible] 化되기까지는 實施되지안흘것이므로 統制强化에 압서 인플레昂進이 先行할 可能性이 充分하다。[illegible] 物價騰貴가 一 [illegible] 生活을 脅威할 程度가 되면 價格統制를 抑制할것이라고 言明하고 잇스나, 物價도 이것이 世界的物價高騰勢의 延長이라고도 볼수잇고 또 抑制의 必要까지에는 相當한 餘裕가 잇다 할것이니 物價도 今後 騰勢를 繼續할것으로 보아야할것이다。如斯한 諸般情勢를 考慮한다면 統制는 抑壓도되며 保護도되어 各種產業은 統制下에 發展하나 마 [illegible] 軍需인플레의 漸進的發展과 함께 景氣는 某程度로 昂揚되리라고 볼수잇슬가한다。

外交陣을强化하고
自主的外交實現
一九三五、六年危機突破햇스나
國際的不安은一層增大

【東京電話同盟】一九三五、六年의危機는 겨우 突破하엿스나 國際的不安은 一層增大하고잇스므로 政府는 險惡한 國際情勢에 對處하고자 外交陣의强化를企圖함과同時에 衛平히 積極的自主外交의實現에 邁進하고 對歐、對蘇、對米、對中等 各外交方針의萬全을期하기로되엿다 卽

一、對歐政策

日獨防共協定成立에依하야獨逸과提携하야 獨逸의盟邦인 歐洲諸國과 直接關係를 가지게되엿스므로 日本도 歐洲政局의變化動搖에依하야 直接主要한 影響을 밧게되여 歐洲政局의 推移를 傍觀할수업다하야 歐洲에 잇서서는從來와가티 追隨外交에끄치지안코 列國과가티 歐洲外交의第一線에서서 이에干與할必要가잇스므로 歐洲外交陣의 强化를圖하기로하야 東鄕歐亞局長을駐獨大使에 杉村駐伊大使를 駐佛大使에 堀田駐西公使를 伊太利大使에 各各派遣하는外에 桑島東亞局長을和蘭公使에 天羽情報部長을瑞西公使에 栗原調査部長을루-마니아公使에 栗山條約局長을 瑞典公使에 西司駐蘇參事官을 芬蘭公使에 派遣하야 歐洲外交의 第一線에서 獨伊를비롯하야 各國과의 聯繫陣을 確立할方針이다

二、大陸政策

大陸政策은 日本民族의 生存權과가장 緊要한關係에 잇스므로 外交政策의 死活的重要問題이다 따라서現下의 東亞及國際情勢로보아 日本政府는 平和的手段에 依하야 大陸政策의遂行方針이다 卽 對蘇關係에잇서서는 懸案을 解決하고 日本大陸政策의 眞意를 諒解시키며 兩國國交의破局的惡化를 豫防하며 對中政策에 잇서서는 南京政權과 第一主義로부터 民衆과의 提携第一主義에 轉向하야 從來 不安定한 一部爲政者 軍閥과의握手政策을 버리고 國民과 國民의 結合에依한 恒久的提携를企圖할려이다 따라서 從前의 爲政者에對하야 善政主義를 勸奬하며 日本側도 이에 協力하는同時에 經濟提携工作을 中政策의 根本原則으로서 民衆의 福利增進에 協力하며 排日을 根絶하고 日中間의 不動不可分關係를 確立할려이다

三、太平洋政策

米國은 루스벨트大統領再選에 依하야 中立政策의 維持方針을 益益明確히하고 太平洋問題에 積極的으로 發言할 意思를 가지지안핫스므로 日米關係는 極히 圓滿하며 또日米關係에 外交手段에 依하야 解決不可能한 問題도 업다 또 英國의 對中關係도 經濟的範圍를 버서나지아니할으로 太平洋의 平和保障은 現存四個國條約以外에 何等새로운平和機構가 必要치안코 또軍縮條約은 昨年末로써 一切消滅에 歸하고 太平洋防備制限도 失效케되야 各國은 全然軍備의 自由를 回復하엿슴으로 此에 對하야 日本은 自主的軍備를 充實히함은 不得已하나 列國과의 사이에 軍備競爭을 挑發할 意思는 업스므로 列國이 日本의 公正한 主張을 容認한다면 國民負擔의 輕減을 圖할 目的으로 軍擴防止에 對하야 關係各國과 協議를 遂할用意가잇다

宮中新年宴會

【東京電話同盟】陛下께압서 群臣과함께 新春을 祝壽하압시는 宮中新年宴會는 五日正午 豐明殿에서 天皇陛下出御、內外臣僚八百名을 召命하사 盛大히 開催하시엇다 秩父宮、高松宮、三笠宮各殿下 御在京各皇族殿下를 비롯하사 廣田首相以下 各國務大臣、平沼樞府議長以下 各顧問官前官禮遇親任官以下 勅任待遇以上의 文武顯官、各國大公使等이 大禮服正裝으로 午前十一時頃부터 相前後하야 參內하엿다 天皇陛下께압서는 御正裝에 大勳位菊花章頸飾御佩用 御參內의皇族에게 御對面 皇族과가치 鳳凰間에 臨御 各國大公使 廣田首相以下 前官禮遇以上의 顯官에 賜謁 豐明殿에出御 玉座에 着御하압시사 諸員最敬禮裡에 玉音朗朗히 優渥한勅語를 賜하압시엿다 感激한 廣田首相은 群臣을代表하야 白國大使맛손비에르男은 外國使臣을代表하고 恭遙이 奉答하야 다음 萬歲樂、延喜樂의古雅한樂音에따라 御開宴 陛下께압서는 御親히玉盞을거우리시사 群臣과 歡을 함께하압시면서 御宴을 終了하압시고 一時頃에 入御 一同光榮에 感激하면서 宮城을 退下하엿다 또 皇后陛下께압서는 正午各宮妃殿下를 招하압시고 御內宴을 베푸실터이라고 承聞되다

朝鮮人과滿洲 ③

李勳求

그러면 이와가튼 理由로 滿洲에 간 朝鮮人이 果然 그들의 夢想하던 樂天地를 어더섯는가? 興京에 住在하던 米人宣敎師某氏는 다음과가티 말한일이잇섯다 滿洲에드러오는 朝鮮移住民의 苦難은 甚至於目睹하는사람도 筆舌로 形容할수가업는것이다 겨울날零下四十度의 酷寒中에서 白衣를 입은것밧게는 移住群은 或十餘名或二十名 或五十名式 作隊하여서 山간벽지를 가져넘어오다 數名의朝鮮人이 맨발로 江邊의 깨여진 氷짝우에서 바지를거더올니고 二尺이나되는 江물을 건너가는것을 目擊하엿다 신을신는것을 바지를 다 捲하고 衣服을 입은 女子들은 이 嚴寒中에도 身體의 大部分을 露出하고도 幼兒를 등에업고간다 이 幼兒는 발에 버선을 신기지못하엿기 때문에 새빨개 어러서 나중에는 발등이 빠지게된다 故鄕을 떠나온 移民은 老幼男女를 勿論하고 大槪이 模樣인데 그들은 樹林과 岩石밋 瘠薄한 土地도 더부러 惡戰苦鬪하여서 一條의 生命을 維持하여보려고 이新世界를 차저온것이다 그들은 中國人의 土地를 租得하여가지고 광이와 호미질을하여서 손으로심고 손으로거둔다 그러나 흔히는 生命을 維持하기에 到底히 不能한 境遇에 빠진으로서 草根木皮로 延命을하다가 그도업스면 榮養不足으로 죽는사람이 만타 婦人小兒가 이와가튼 地境에 드러가는것은 勿論이요 靑年들도 凍死하는사람이잇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一九二〇年 一年間에 七萬以上의 朝鮮사람이 滿洲에온 것이다 이것은 第三者인 目擊者談인만치 事實에 符合되는 이야기일것이다

滿洲移住民의 苦生은 實上이와가티 悲慘하엿던것이다 게다가 滿洲事變前後에는 雪上加霜格으로 各種의 社會的原因으로 因하여 이러나는 困難이 非一非再엿던것이다 馬賊의掠奪 共產黨의橫暴 民族主義團體의 苛斂誅求 中國官憲의 不法壓迫等等이 그것이엿다。더욱히 滿洲事變의 即前即後에는 所謂反滿抗日義勇軍의 橫暴無雙한 暴虐 言語道斷의 殘忍性殺掠로 因하여서 無數한 朝鮮移住民이 殺害를 當하엿던것이다。

滿洲事變後에 新興滿洲國이 誕生되고 그盟邦인 大日本帝國의 掩護下에 滿洲國은 今年으로써 康德五年의 新春을 마지하게되엿다。五族協和王道主義의 旗幟下에서 陰晦하엿던 空氣는 一掃되고 滿洲는 正히 樂天地가 展開되고 잇는것이다 『日滿經濟블럭』 『滿鮮一如』가 唱導되고 實現되는 今日에 朝鮮사람은 果然무엇을 生覺하고잇는가? 果然移住民은 前日의 苦難을 진저리떨든 一場惡夢을 이저버리고 이新天地에新生活을 開拓하여서 安樂한 生活을 營爲할수가 잇겟는가 업겟는가?

三四年來로 朝鮮內에서는 滿洲投資熱이 發生하엿다。半官的經營下에 設立된 鮮滿拓殖株式會社를 비롯하여 滿洲興業株式會社 平安農事株式會社等 移住民을 利用하여서 農業經營을 事業의 主體로하는 會社가 이미 成立되엿고 또 近頃에는 東亞產業株式會社의 發起가 잇게되엿다 그外에도 個人으로 滿洲에 農事經營을爲하야 土地에 投資하는 사람들이 極히 多數에 達하게되엿다。이러한 團體나 個人은 大槪가 그事業의基礎를 綿密한 調査와 周到한用意下에 두기때문에 比較的安全하다 그러나 그 大部分의 數는 科學的經營方法을 採用치 안키때문에 中途失敗의 쓴經驗을 맛보는境遇가 만타 따러서 此等經營體는 可及的 速히 科學的 經營方法으로 그內容을 改造할必要가 잇슬것이오 新規로 着手하는 사람들은 그經營의 最初부터 科學的方法으로 調査 立案 設計施行을 하여서 成功의 萬全을 期하여야 할것이다。

滿洲에가는 이에게 一言을할것은 滿洲에가면 살수잇다고 生覺하고 아무計畫과 豫算이 업시 漠然히 渡滿하는것은 絕對로 禁物이다 이와가티 無計畫 無定見으로 渡滿하는사람은 大槪가 本鄕에서 生活難으로 因하야 死中求生格으로 出發하는 無識한 農民이나 勞働者階級에 屬한 사람들이나, 또는 그러치 아니하면所謂 인테리靑年層이다。이들은滿洲에가도 別수가 업고 그들의 前途에는 苦海難嶺이 가로되여서 到底히 成功할것을알기가 困難할뿐아니라 一般滿洲에 가고는 旅費等困難으로 歸鄕키도 不能하고 在留하기도 困難한 進退維谷에 빠지게된다 그러므로 此等의 泛然移住는 避하여야될 것이다。

今日에 잇서서 滿洲에 移住한 朝鮮人은 그正確한 數字를 알수가 업거니와 적어도 百萬은 確實히 넘을것이다。資本家로 投資하는 便 사람들이나 또는 開拓者中의 實際的 勞働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다가티 將來에 이 新天地요 또故鄕인 滿洲에서 새로히 經濟的 社會的 宗敎的 其他모든 方面에잇서서 新環境을 만드러 내이고 新生活을 建設하여서 모든가지 方面에 잇어서 夫餘와 高句麗의 先人인 乃祖에 有光하기를 期하여야될것이라고 밋는다

經濟事情과 및社會事情의 細錯한 點을 論及하여서 새로히 滿洲에 有意하는讀者에게 參考가 될만한것을 쓰라면 이短促한 時間과 有限한紙面을 가지고서는 到底히 不可能한것이다 本論이 너무도 抽象的이요 一般的이여서 한가지도 具體的事象을捕捉하여가지고 讀者에게 展示치못한것은 極히 遺憾이다。그러나 爲先 이것으로써 방문旅客의 光陰을 쓰기로하며 朝鮮日報社에 對한 文責도 벗기로 하고 擱筆한다

朝陽前漢城旅舍에서

相互權益을尊重코
善隣關係를確保
英伊共同宣言書發表

【羅馬四日發同盟】英伊兩國政府는 地中海의 相互權益尊重에關한 共同宣言書를 作成하야 二日키지宮에서 伊外相치아노伯과羅馬駐箚 드라몬드 大使와의 사이에 調印을了하엿는데 伊太利政府는四日 宣言書正文을 發表하엿다 內容은 如左하다

英伊兩國은 平和의 一般的增進과 兩國關係及全地中海諸國의關係改善에 貢獻할 慾求에 基하야 또此等諸國의權利와利益을尊重할決意下에 地中海에 對한出入通過航行에 關한自由는 英國政府帝國各地와 伊太利國雙方에 對하야 死活의 利害關係가잇는것及 此等利害關係는 相互로 何等 相容되지안는바가 아닌것을 承認하고 地中海의 各領土에 對한 國家的主權에 關하야 그現狀을 修改할 意圖가업고 또 그것이 修改되는것을 希望하지아니한다는 것을 宣言하고 右와같은 意向이 업다는것을 確言하고 地中海地域의 相互의 權益과 利益을 尊重할것을 約束하고 또 善隣關係의 確保强化가 本宣言의 目的으로서 右善隣關係를 毀損할 憂慮가잇는 如何한 行動도 이를 阻止함에 最善의 努力을 다하자는데 意見이 一致되엇다 本宣言은 平和의 目的達成을 企圖하는것으로서 如何한 他國家도 目標로한것이아니다

一九三七年一月二日

羅馬에서

伊太利國外相 카레앗초·치아노 署名

英國大使 에릭·드라몬드 署名

平壤、大邱兩神社 列格奉告祭 六月中에執行

朝鮮神社令에依하야 昨秋京城神社및釜山龍頭山神社가 國幣小社로列格을보게되엿는데 總督府에서는 十二年度에 大邱及平壤兩神社를 國幣小社로 列格키로 되여 그經費計上이 決定되엿슴으로 來六月頃 兩神社에서 各各盛大한 列格奉告祭를擧行하고 南總督、大野政務總監이 勅使로서 參拜할터이다

張學良特赦!
國府委員會決定

【南京五日發同盟】既報=張學良特赦에 關한 四日의 國民政府委員會의 決定事項은 如左하다

一、蔣介石氏의 要請을 容認하야 張學良의 有期徒刑十個年을 特赦함

一、今後 張學良의 行動에 關해서는 軍事委員會로하여금 嚴重監視케함

一、五年間의 公權剝奪은 免除치안음

그리고 東北軍의 善後措置가 決定되기까지 張學良은 當分南京에 留置될 模樣이다

獨西關係重大化
歐洲政局에再次赤信號

【倫敦四日發同盟】英國伊太利兩國政府가 紳士協定을 締結한結果 에디오피아 戰爭以來 오래동안 地中海를 掩蔽하고잇든暗雲은 掃蕩되엇스나 獨逸汽船파로스號拿捕를 契機로 獨逸西班牙兩國間의 關係는 重大化하야 歐羅巴의 國際政局은 再次危險信號가 揭揚되게되엿다 獨逸政府는 『파로스號』事件以來 自國船이 西班牙左翼政權으로부터 不法射擊을 밧는것은 從來 어데까지든지 파로스號搭載品返還을 要求하는 强硬決意를 表現이라한다 此際 그去就가 注目되여잇든 伊太利政府가 英國政府와의 紳士協定에 依하야 地中海의 現狀維持를 公約한것을口實로 西班牙國內에 共產主義政權이 出現하는것은 英國政府도 가리지 反對하는바이라고까지 말하고잇스므로 即時西班牙 內亂에서 손을 떼는것이라고 斷言할수는업다 最近英佛兩國政府는 歐洲政局의全般的處理案으로 獨逸政府가 從來의 友好關係를 維持하고 現在取하고잇는 政策을根本的으로 變更하면經濟的便宜를 提供한다는말을 非公式으로 提言하얏다고 確聞하는데 獨逸總統은 아즉回答하지안은모양이다 英伊兩國政府의 紳士協定에 對하야는 如何한 觀測도 可能하나 또나우流域就中墺太利國에 關한伊太利의 立場이 獨逸과 協力치아니하면 아니된다는 立場에잇서서 結局平和를 維持할가 歐羅巴를 再次大動亂의 渦中에 投入할가는 히틀러 總統의 方針如何에걸렷다고觀測되다

米中立法强化
緊急議案으로附議

【華府四日發同盟】米國新議會는 開會劈頭緊急議案으로서 中立法强化案을 上程附議할터이다

中立法은 西班牙內亂에 當하야 그缺陷을 暴露하엿스므로內亂에는 適用치안코 此를補强하고자하는것이다 上院外交委員會長피트만氏는 이로써 다음一決議案을 注意하고잇다고 確聞한다

一、現行中立法施行期間은 此를 內亂에도 適用함

一、米國國民의 好戰國船舶에 依하야 旅行하는것을 禁止함

五日開會되는 米國新議會에서 [illegible]

稅制改革關係法案
全部法制局에回附

【東京電話同盟】大藏省主稅局에서는 四日午後二時부터 省內에서 局議를열고 山田主稅局長尾關國稅課長以下各關係官出席、今議會에 提出할

一、關稅定率法中改正法律案

一、複關稅法案

一、輸出統制稅法案

一、外國貿易統計稅法案

一、統制關稅臨時免除에關한法案

等의 關係各種法案의 審議를하고 討議書省略하고 即時法制局에 回附하엿다 이로써 今回의 稅制整理에 伴한各種法案은 全部審議를 終了하고 法制局에回附하엿다

南總督新年張宴

南總督은 五日正午부터 倭城臺官邸에서 新年宴會를열고 民間有力者와 新聞關係者를 招待張宴

海外經濟電報 (四日)

倫敦金塊	七磅一志八片
倫敦銀塊	二十片四分一
米 棉	四十五錢低
印 棉	二十七錢高
스틸株	七十五弗八分三
안나콘다株	五四弗八分一
米日爲替	二八弗四三仙
英米爲替	四弗九〇仙八分七
紐育銀塊	四五仙
큐바實糖	三仙
米棉 現物	一二仙九一
生 限	一二仙八〇

休日氣配

▲株式=紡績中心으로 買氣旺盛이나 高價는買警戒되어고氣配는 頑强이다

大新 一〇〇〇 東新 一四三〇 鐘紡 二〇六〇 日產 一〇〇

▲期米=高價는 利喰되어底意頑强이며 押目買人氣로氣配堅이다

米議會五日開會

【華盛頓四日發同盟】米國第七十

八面鋒

◇五日부터開會되는 米議會에서 中立强化法案을 討議하리라고。

◇海軍無條約第一年에 對處하기爲한 準備라하면 너무나 무서운제스추어가아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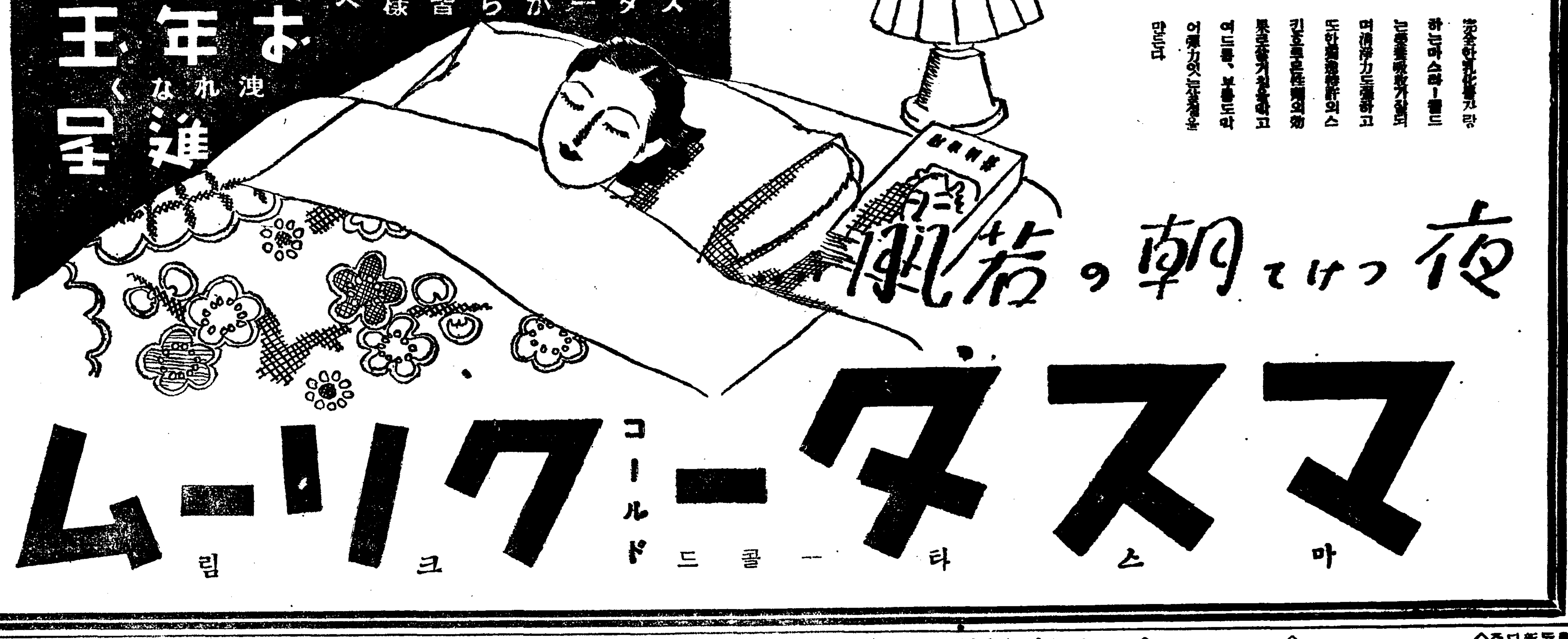
◇英伊兩國間에 地中海의現狀維持와 相互權益尊重을爲한協定이成立되얏다고。

◇大英帝國의海軍도 老英라無力인가。

◇中立小會派의 聯合軍이 政府를 彈劾코자하고 軍部는 增稅에對하야 積極論을堅持하고。

◇日比谷議會가 다시열니는날이면 東京政界가 한참떠들석할군지。

今日本紙十二面



申込規定

買上하신스타-크림의空函裏面에이廣告를보신新聞名과希望하는스타-名及貴名、住所를明記하야送付하면新年贈物을빠짐업시贈呈한다

(封筒에는三錢切手를貼付하시오郵稅不足은接受치안음)

賞品

①、水の江瀧子さんからのお年玉
一、ターキーサイン入 スチール 二、マスターグループ 三、スター自叙傳 四、スター鉛筆 三本 五、ターキーグラフ 六、レヂーブック 七、ターキーパクト 以上一袋

②、田中絹代さんからのお年玉
一、絹代サイン入り スチール 二、スター自叙傳 三、スター鉛筆 三本 四、比左良人形 以上一袋

③、桑野通子さんからのお年玉
一、サイン入り レヂーブック 二、スター自叙傳 三、マスターグループ 四、スター鉛筆 三本 五、美容讀本 六、マスターカップ(マツサージ用) 以上一袋

以上十名에三名種賞을추첨한다

抽籤에빠진者全部에 스타-鉛筆及每日新聞紙面을贈呈한다

締切 一月廿日

宛名 東京市蒲田區梅屋敷美術堂 お年玉係宛

東洋劇場

◇十二月三十一日부터 三日間(晝夜二回興行)
喜劇의 待望! 新年特別公演의 榮光 ... 新年에도 잇지마시고 만히 ... 주시시요。
悲劇 秦華船 / 李雲芳 脚色 / 1、悲劇 再生 / 2、鄕泰恩 作 오페렛다 / 멕시코薔薇
◇一月一日부터 (一日은 晝夜二回) 二、三日은 夜間만
東洋劇場에서 ⊙ 悲劇 靑春座新年特別公演 林仙圭 作 悲戀悲劇 사랑에속고 돈에울고
⊙府民館에서 前後篇同時上演
◇一月四日부터靑春座東洋劇場에서 新年第二週公演(乞期待)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一三三番

◇新春一月四日낫부터晝夜三日間 낫一時밤七時始 映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三大超傑作名篇大公開
◇朝鮮映畫京城撮影所特作品 朝鮮語全發聲 迷夢(죽엄의자장가) 監督 金蘇峰氏 主演 文藝峰孃 金寅昌氏 林雲鶴氏
◇FOX社超大作全發聲日本版 바레-스의王者 監督 시도니란빌三氏 主演 와나바스타氏 쟈크오-키氏 이리스이孃
巨匠차나크、레뷰映畫의代表! 壯麗豪華스런춤과노래映畫
◇FOX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拳骨하리캉 監督 다-퀴트하와-드氏 主演 죤오프라이엔氏 호렌크쿠리孃
次週=大獨=창크의新婦=串指おでん

朝鮮日報 安岳支局 振替京城七二一五〇番

◇新春第二週巨陣! 彈 一月四日낫부터三日間晝夜二回 始映낫一時 밤七時半 大衆料金 十錢奉仕
◇콜롬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갑싼料金으로大名畫堂堂提供 『G멘』以上의大雄篇 無法地獄 全十卷
『男性No.1』의 G멘 俳優제스·라·모리스 『男의敵』의 悲劇的俳優마코트·크라함 共演 『G멘』의 갱스타로이도·노-란 『罪와罰』의 可憐마리안·마-슈
◇映畫朝鮮社特作提共映畫 朝鮮日報連載小說 原作、脚色-安夕影 朝鮮映畫界最高精華篇 春風 處女篇 人生篇 全十四卷 全部上映 李慶善、卜惠淑 文藝峰、金一海 共演
制服의處女百餘名을스라카스트 次週七日豫告=上海야장일거라 大活劇日本版 危險地獄隧道

光武劇場 上往十里町

◇新年一月四日부터每日晝夜二回 料金 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超大作三大名畫畢切◇
◇유니버살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쩬스구류-스氏 有爲轉變의冒險王요항사다-半生을그린갈포니아開拓秘史 黃金 主演:에도와-드아놀드氏 비니반스氏 리드레시孃 하리케리氏
◇DGM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探偵戀愛劇 逆間諜 監督:삼옷드氏 主演 마나로이孃 죤푸렌드氏
歐洲大戰의國際諜報機關의『蓮間諜』이되다시活劇
時代劇 あばれ長脇差 監督:兒井英男 主演:嵐門光三郎氏 甲陽映畫超大作オール・トーキ版
次週=弟의플エノケン近藤あこ水れの巻物語=大獨창크의新婦=串指おでん

新富座 新堂町 電本2 三三七番

薪炭市場使用權을 一部大商에 割當

千餘名中小薪炭業者蹶起

組合側을糾彈對峙

대경성부 륙십만인구의 부어책임을마타잇는 봉래정(蓬萊町)신탄시장(薪炭市場)에 근자 적여명의 생활권이 위협을밧고잇스며 일반소비대중에게 적지안흔 영향을줄 큰문제가 발생하고잇다 즉 현재의신탄시장은어떤장사치든지 나무만가저오면그곳에 두엇다가 팔수가잇게되여왓든바 근자 경성으로들어오는신탄량이 부쩍불고 장소가협착함으로역구내에 체화(滯貨)가 만하서화차의운용상 만흔지장이 생기니화차를 제한하여야하겟다는철도당국의 의향으로 그곳을관리하고잇는 「마루보시」(朝鮮運送)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의일부분으로 조직되여잇는 신상조합(薪商組合)과 서로 절충하여오든바 그조합간부 멧사람의독단으로 조합원중 대하주인멧사람에게 그지역을 할당(割當)하기로되엿다고한다

그러나 이소식은 일반조합원과 비조합원등 일반소상인에게는문자 그대로의 청천벽력으로 이에놀란 그들은곳 비조합원을 신상동업조합(薪商同業組合)을조직하야가지고 이에적극적으로신상조합측의 부당과 그간부들의독단적 처치를 규탄하기로하야이미 그활동을개시하엿다고한다 문제가 그들천여명의 생활권을 박치고 싸우는 사활문제이니만큼 이문제의추이는 대단주목되고잇다

大荷主의獨占은 薪炭價에도影響莫大

문제의 발단인 신탄시장은 원래 철도국의용지(用地)로 소화칠년 그사용권을 「마루보시」외 멧동업인으로 조직되여잇는 신우회(新友會)가 어더가지고 현재까지 누구던지 자유로 그신탄시장을 리용할수잇든바 별항보도한바와가튼 화차제한의 리유로 금번지역할당(地域割當)이라는 문제가생기엿다 만일이지역할당이 실시되면 여하한영향을 일반소매상과 소비자는바들가 대하주 멧사람이 지난해의 입하실적(入荷實績)을 참작하야그들만 그곳의 사용권을 가지게되면 다른일반중소상인들은 그곳에서 장사할수가 업게되다 장사할수가 업게되면 그들의생활문제가 념려되다는 자연적 「코스」에 직면하게되다

그리고 일반 소비대중에게는 그들 대상인의 독점적지위를리용하야 부당하게 노피는 독점가격의 영향을 바더 전보다훨신비싼 나무갑을 지출하게 될에따라서 일반세민층에게는 직접크다란 타격을 밧게된다고한다

千餘中小業者 致命的大影響

薪商組合長 梁漢晋氏談

이문제로는 참으로 우리에게는 청천벽력가튼 문제입니다별말하지안허도 아시겟지요만은 일부특정한 사람들만 그시장을 사용하게 된다면 종래 이것으로생활하여오든 우리소매인근천여명은 어떠케될것가 그럼으로 우리는 새로히조합을 조직하야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워볼려고합니다

朝鮮運送當局者談

그런문제가 생기고잇는것만은 사실입니다 만은 우리에게대하야서는 일반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모다 똑가튼 하주(荷主)이니깐 될수잇는대로 공평히 이문제를 해결지으려고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불평이 만타고함으로 여러분과 [illegible] 떠겟지요

今日이小寒

륙일은 음력으로 십일월이십사일로 소한(小寒)이다 추위는 소대한이 한고비인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그다지날세가 춥지안하야 눈도눈다운 눈이한번도오지안코 어름조차얼지안하야 소한이라도 날세는 흡사히봄철과 갓다

蘇聯軍越境頻繁

日本守備隊와滿洲國軍放銃에

敵軍은對抗안코退却

쏘베트로서아 기마병대 십오명은 지난 사일 오후령시쯤에 로서아와 만주와의 국경인 장령자(長嶺子)로 월경하엿는데 일본수비대와 만주국군대 십삼명은 즉시 현장에 배치하야 경기총을 노핫는바 저편에서는 별로히 대항하지도안코 물러가버렷다한다。

○……그러고 또 사일 오후령시반쯤에는 만주 남별리(南別里)부근의 국경에서 역시 로서아기마병대 이십오명이 월경한것을 만주국군대측에서 발견하야 경계선에 출동하엿는바 역시 별사고를 이르키지안코 퇴각하여버렷다 한다。

로서아군대가작구여러차례나월경을하는일이 생김으로 일본수비대와 만주국군대측에서는 엄밀히 경계선을 펴고잇다 한다

金品盜難頻發

요즘 시내종로서에 들어온도난계는 며칠동안에 벌써서넘상이글과 선물들이며 자전거등 십여건이나되엿다

▲한가지는 종로부제무국 세무과에 근무하는 김민식(金敏植)(三一)이란사람이 상여금 륙십원과 월급구십원을 손가방에너어서 세무과 사무실에두엇든것이 도난을당하엿스며

▲또한가지는 시내청진정 (淸進町)사십삼번지의이확희의장수배호진(裵浩鎭)(二七)이가 [illegible]자를 도난당하엿스며 그밧게자전거도난이 아홉건이나 되여서 시내종로서에서는 범인을 붓잡으랴고 맹렬히 활동을개시하엿다

晩種畓小作料宕減

肥料代金도免除

布內瑞麟町張基鴻氏壯擧

부내서린정(瑞麟町)일백이십오번지 장긔홍(張基鴻)씨는 양주군장흥면삼하리 (楊州郡長興面三下里)에잇는 그의소작인 이십명과 고양군벽제면선유리 (高陽郡碧蹄面仙遊里)와 고양군신도면오음리(高陽郡神道面五音里)에잇는 그의소작인아홉명등 모다 이십구명에게 비룟갑오백여원을 전부면제하여주고 만종답은 작인들에게 그대로 떼여먹도록하야 그의장거에 소작인들은 여간감사히여기는바아니라한다

집일코길일흔사람들

정초가되여서 그런지 집나간사람과 길일흔아이가 부쩍늘엇다

▲시내 수송정(壽松町)일백이십삼번지 리춘두(李春斗)씨의집고용녀 황금이(黃金伊)(一七)라는 소녀는 사일 집을나가버렷고

▲시내 서린정(瑞麟町)일백륙십번지 최창규(崔昌圭)씨의 장남 서호(瑞浩)(九)는 사일 집을일허버렷스며

▲시내 팔판정(八判町)오십륙번지 [illegible] 백이십일번지 [illegible]씨의장녀 현희(賢姬)(六)는 사일 회신(會新)상회에서 길을 일허버렷고

▲도 시내서계정(西界町)사십삼번지의 사상실고려근진(李[illegible])씨의 고용녀 권재옥(權山玉)(一七)이란 소녀도 사일집을나가버렷다한다

少年少女三名 滑氷中溺死

楊平郡下의慘事!

【楊平支局電話】 사일오후세시경 경기도양평(楊平)군내 김덕희(金德熙)(一七) 리규택(李圭澤)(一二) 리영자(李英子)(一二)등 소년소녀 세명은 그고을 갈산면백안리(葛山面白安里)압방죽에서 『스켓트』를타다가 그만 어름이꺼지는바람에 무참히 빠저죽엇다

前英帝"윈자"公 심프슨夫人과遂結婚

今春五月의吉辰을擇하야

—"사랑의殿堂"은"유고슬로비아"에—

【巴里四日發同盟】 대영제국의 황제를퇴위케한경국미인심프슨부인은 사는에드워드팔세를 [illegible] 버리고 오스트리아로 몸을 피한후에도칸느에 그대로 머물러서 크리쓰마쓰와새해를 마지하엿는데 그는 심프슨씨와의 리혼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날을기다리여 오는오월의 길일을 택하야 『유인에잇는』 영국성공회(聖公會)교회에서 전대영제국황제『원자』공과결혼식을거행하라는의향이라고 전하고잇다 그리고 결혼식을 거행한후에는『유고슬라비아』의『쓰부론우니카』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베플예정이라고 한다

(사진 우는 윈자공 좌는 심프손부인)

記憶의靑年學徒時代 ③

昨醉未醒"之字"步로 崇實에入學志願!

飜然大覺! 四年間東京留學中에

尾行따라劇場求景單두번

曺晩植氏

◇

우리의선배 조만식(曺晩植)선생에대한일화(逸話)는 한두가지가아닐것이며 더욱이 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獎勵會)의 회장으로서의 선생의 일상생활 다시말하면 몸에 걸치는의복 의복을시작하여 관혼상제 (冠婚喪祭)등일체의 의식에 일으기까지모도가 언행일치하는점에 대하여 관서지방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잘알고잇는터이지만 우리는선생의 청년학도시대의 일화를한번드러보기로하자

조만식선생의 소년시대 내지 초기의청년시대에는싸홈잘하기로 남파람잘하기로 담배잘피우고술잘마시기로 유명햇고 화류항에서도 장수노릇을 하엿든것이다 어떠문에 씨움판에서나 날파람더에서는물론 서천만에서도선생의 그림자만 한모롱이에서나타나면 맛치 솔개가 지나간뒤에 병아리들이 조용해지는듯한감이 업지안허 그당시의 선생의존재는 일반에게 공포의 표적이되여잇섯다 한다

담배를 피워도 보통담배로는 만족을엇기 힘드러 특제의 큰담배대에다가 성천초(成川草)세입사귀를 꽁꽁마러서 서대를피운후에야 긔침(起寢)을 하엿다나 이한가지로도 선생의 초긔청년시대의 성격을충분히짐작할수잇슬것이다

이러케도 남이실다는짓조치안타는것은 한가지도 빼놋치안코 선봉대장격이되여 가지고 이십사세까지 매일장취의 생활과가티 상업을 계속하엿다니 상업이 거덜이 낫슬것은 분명한일이거니와 원래 두뇌가 명석하고 고집이세인 선생은 이러한사도(邪道)를 집어던지는데에도 또한 상쾌하엿다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건달조만식선생을 떼여버리고 청년학도조만식씨로 회생할때부터의이야기아울러 멧가지의〃에피쏘ㅡ드〃를 간략하게소개한다

상업에 실패하고 화ㅡㅅ집에 풍풍을 계속할때에 어떤분이요새신학문을 가르치는 숭실학교(崇實學校)에 입학하여 공부를해보라는 권고를햇고 조선생도 그권고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한편에 일종의호기심도 낫슴으로『그러마』고 한마디에 대답을한후 그의아버지에게『저는 래일부터 숭실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겟습니다』하고 공손히 엽대여 말슴을 드렷다

그아버지말슴이『그랫스면 사람구실하게 나는 암만해도 네소리가 미더지지안는다』는 말슴을하시면서 반신반의를햇스나 결국은 간절히사뢰는만큼 물론승낙을 바덧다

숭실학교에 입학할결심을 햇고 아버님에게 승낙을바든 선생은 지금까지의 술동무 화류계동무들의 인연을끈는다는 명목으로 그날밤이 새이도록 전별주(餞別酒)를 마섯다는것도지금생각하면 장관이거니와 밤새원술을마시어 아직입에서는 술냄새가나고 발거름을 갈지자로 것게되는 작취미성의 몸한몸을하고도 적우간 숭실학교를차저가 당시설립자요 교장이든 고배위량(故裵緯良)박사를만나 입학을요구햇다

배박사는 조선생의 관쓰고 주정뱅이가튼모양을 물그럼이 바라보더니『공부는무엇하려구하겟나?』하면서 숭실학교에 입학할자격이업다는 표시이엇스나 조선생은 지금에도 어떠케그려한 걸작의대답을햇는지 알수업는『공부해서 하나님의일하겟소』하고 대답을한것이 배박사를감격케하야『조소』! 그러케생각하고 열심으로 공부하시오하면서 조선생의등을 쓰다듬어주엇다한다

이십사세의 숭실학생조만식씨는 이날부터 비로소《아라비아》수짜를 배우고 지세략해(地勢略解)사민필지(四民必知) 동식물학(動植物學)생리학(生理學)만국통감(萬國通鑑)등 일생에구경도못햇고 듯지도못햇든 신학문을배우기시작햇스나 명석한두뇌의소유자인 선생은 성적이일등하야 남과가트면 오년동안공부해야될것을 삼년에졸업하고마럿다

그러면 조선생청년학도시대의 숭실학교학생의 긔풍은 어떠햇나? 비록상투는짜고 흑은머리꽁지를따어 느려드린 학도들이엇만 일백이십오명이란 학도는급작스럽게 밀려오는신교육의사조(思潮)와 그당시한국정부의 정치적변혁의 말할수업는 분위긔(雰圍氣)에지배되여 학과그것보다는 정치열의팽창으로 죽을지살지를 몰랏든시대이엇다한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여 체육방면에도 축구니 야구니 정구니하는〃뽈〃이란 구경도못햇고 오직〃라파룬〃의군인보다질것업겟네의 서인병식체조(兵式體操)를 세웟슬뿐이엇섯다 한다

그런데 숭실학교시대의 장편은 동하불명(燈下不明)이란말과가려 서양사람이 세운학교에서 영어는절대금물이란 철칙을세웟기때문에 영어를내놋코 못배웟다는것도 이즐수업는〃에피쏘ㅡ드〃이지만 이런철칙을세운 리유는 여기에서 독자의 판단에맛기고 그만두기로한다

〃주정뱅이〃조선생이 갱생의 첫학도시대인 숭실시대도 졸업장한장으로 인연을끈케되니 사면에서 교원생활을하라고 권햇지만, 원대한포부를가진 선생은 일축해버리고 현해탄(玄海灘)을 건너 명치대학(明治大學)에서법과(法科)를지망하고 동경류학생시대 사년간을경과햇스니 이때 명치삼십구년의 옛날이엇든만큼 조선류학생의수효도 그리만치안헛지만, 중등학교의계단을 밟지안흔년세가오십가까와손자까지멧식잇는 저마다정치가요 영웅주의(英雄主義)인 늙은학생들이만헛든만큼, 류학생들의면면도 각기장관이엇섯는데 이시대의류학생의 긔풍은 역시독자들의 상상에 맛기거니와 평양에서 조선생과가티 류학을햇든 분들로는 현재 평양숭실학교장인 정두현(鄭斗鉉)씨를 비롯하야 금성의원장 정세윤(鄭世胤)씨 김현식(金顯植)씨 김지간(金志侃)씨등을 꼽을수잇다

동경류학중 일한합병 (日韓合倂)이 되엿다는 소식을 소전원(小田原)에피서중에 드럿고동경사년동안에 연극장(演劇場)구경을 두번햇는데 이것은 미행(尾行)하는 형사가 자긔가 너무도갑갑하니까 자긔가 입장권을 사가지고 안내를 햇기때문에 구경을햇다고한다

사진은 숭실학교입학당시의 曺씨

洋品店 東洋

鍾路二丁目에 尖端流行을리ㅡ드하는洋品店東洋은新鋭業者가이番引繼하야從來의短點을一掃키爲해서高級品도具備하며大衆的으로奉仕한다고하며新春부터稼物을準備하야 卸賣部를設置하리라고한다

運動競技

對堀口戰에 徐廷權ＴＫＯ

【東京電話同盟】 徐廷權對피스톤堀口의 十二回戰은 四日午後六時부터 國技館에서 열린바 第一戰을 集中한가운데 열린바 第二라운드까지는 猛烈한 打擊戰을 演하드니 第三라운드부터 徐君若戰에 빠저 第四라운드에드러가 堀口의右의압파컷트는 徐君의 턱에 命中하야『크로기ㅡ』되여 드되여 一分三十秒에『레페리ㅡ스톱』을 당하니 徐君의復活의 希望은 水泡로 도라갓다

堀口 TKO 徐廷權 (四라운드 一分三十秒)

全日本中等럭비 第二日詳報

大每主催의 第十九回全日本中等學校럭비選手權大會第二日은三日午前十一時부터 阪神甲子園球場에서 擧行되바 朝鮮代表로出場한 培材高普軍이 强豪의滿洲代表撫順中學軍을 十一對零으로 이겨 準決勝에드러갓다는旣報한바어니와 이날第二回戰의 各試合은 다음과갓다

【第二回戰】(第二日)

(抽籤勝)

崇德中學8…8福岡中學

台北一中37…3北海中學

京都一商14…5神戸一中

培材高普11…0撫順中學

同德卓球快勝

【東京發電】 日本卓球會主催의 第六回全日本女學校對抗卓球大會는 四、五兩日間 午前九時부터 東京市麻布區笄小學校講堂에서 열린바 이大會에 朝鮮代表로 出場한同德女子高普軍은 第一回戰에 橫須賀高女軍을 三對一로 擊破하야 第二回戰에드러갓다

運動界人事

▲權泰夏氏(伯林올림픽馬拉손選手·滿鐵大連 勤務)四日入京 武橋町入五松屋旅館에投宿

라디오

五日(火曜)

◇午後○時五○分 라디오小說朗讀 『굴시카의사나이』 沈影

◇同六時 兒童劇 어린이의放送局 童心會 指揮 朴興珉

◇同六時二五分 新年展望(三) 朝鮮日報社主筆 徐椿

◇同七時三○分 靑律一、舍館風流二、步虛子 奚琴 趙寧石 大笒 金一變 細笛 李点龍 杖鼓 金一宇

◇同八時 방아타령外 一、방아타령 二、개성난봉가 三、한강수타령 四、사발가 五、흥타령 六、노래가락 申海中月 洪笑月

◇八時三○分 (平)獨唱 權泰浩

◇同九時 野談『그소의한결』 申鼎言

◇一○時 [illegible]放送 (續新)로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ＪＯＡＫ兒童大會

◇同六時(名)管絃樂

◇同六時一五分(東)講演

◇同七時三○(東)[illegible]

◇同七時五五(東)淸元

◇同八時一五分(東)落語

◇同八時五○(大)라듸오·드라마

天氣予報

槪況 低氣壓은 北滿洲에잇서 東進中이며 高氣壓은 日本本州의 南海上으로부터 朝鮮에 퍼지고잇는데 不連續線이 黃海로부터 國境方面에 달리고잇다 南鮮은 흐리엇고 어쩌면 小雨가잇다 滿洲方面은 日氣가 良好하며 南西諸島는 흐리고잇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 흐릴터이며 小雨雪이잇다 明日은 흐린後에 개일터이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九度六

同 最低 零下五度三

今朝最低 零度九

今日正午

알구전世上에이것은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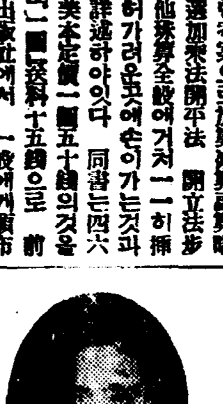
一躍成功의快報

算盤一個가唯一의武器

[illegible] 大阪市東淀川區西町現代出版社에서 [illegible] 新式速成珠算獨習の秘訣 [illegible] 同書는四六判 [illegible] 一圓五十錢의것을 [illegible] 代金은 [illegible] 送料共一圓三十

便紙를잘쓰면 立身出世가빠르다

植原文學士發表



交際、取引、文、便紙를 잘쓰면남에게 尊敬을 받고 어떤일이나 훌륭히 處世할수잇스나 反對로 便紙가 서툴느면 [illegible] 乃終에는 義理를 일코 相對에 感情을 주어서 뜻아닌 失禮를하는일이 만타 文學士植原路氏의 實用新案手紙大辭典은 交際文、商用文、暑中寒中等 四季候의 慰問、病者慰問、祝賀、謝禮文照會催促、注文吊文을 비롯하야 其他모든書翰文의 書法이나 便紙에關한 一切常識이 いろは別의 索引에依하야 卽座에서 알수잇게됨으로 如何한 便紙가 서틀은者라도 本書一冊만 잇스면 뜻한바 便紙를 順順히 쓸수잇는 實로 理想的書翰辭典이다 그래서 三圓定價의것을 一千名限하야 不過一圓 送料十五錢이라는 破天荒의 價格으로 特賣中이다 더욱十版發賣紀念키爲하야 常用漢和辭典(定價一圓)의三冊을 特別提供하는것으로서 右書翰辭典注文者에 限하야 同封無代進呈하는故로 景品만으로도 一圓以上의 價値가잇고 實로出版界空前의 壯擧이다希望者는 大阪市東淀川區東町現代出版社로 申込하면 代金은 [illegible] 著拂로 送費共一圓三十八錢으로 送本한다고하니 賣切되기前에 至急申込하라

훌륭한! 內職副業이 發見되엿다

[illegible] 調査發表하고 內職副業의 입을내는商店原料의 仕入製品의販路까지도 記載하얏다 더욱小資本으로 할수잇는賣小店의 開業法及 婦人就職案內도 調査發表하야 [illegible] 大阪市東淀川區西町現代出版社에서發表한『內職副業總案內』는 理想的인要金書로서無資本同樣또는極少資本으로 男女老幼누구나 할수잇고그리고 本業副業으로서確實有利한 [illegible] 同書는 四六判約三百頁로特價九十六錢으로 前記現代出版社에서 一般希望者에게頒布한으로 直接葉書로申込하면代金은 著拂送費卅增으로送本한다。

나오라雄辯家

發見된 雄辯의秘訣

『演說으로成功함을立身成功의基礎』라고한 [illegible] 다 現代는 事實上 言論時代이다 自己의 [illegible] 人事의말도 [illegible] 히못하는 사람이 잇다이러한사람은現代의社會에서는廢人同樣이다 그럼으로어떠케雄辯家가 되겟는가? 今回大阪市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에서發賣한式辭と演說挨拶の仕方는 [illegible] 熟達한雄辯家가될수잇는 [illegible] 先生이 苦心한編纂으로서 벙어리아닌사람은 누구나이 冊으로서 [illegible] 式辭 演說 人事等의 [illegible] 講演 式辭 人事等何時如何한場所에서든지서슴지안코 [illegible] 게 大氣焰을吐하야 [illegible] 을 陶醉케或은魅惑케하야 拍手喝采를밧는일은 다시업을것이다 그럼으로同書는 最新版四百餘頁クロース金文字箱入美本定價一圓四十錢을 千部限하야 破格의一圓으로 前記現代出版社에서ー般에게 頒布하는中이니 希望者는 葉書로申込하면著本拂로送實共一圓卅二錢으로 送本함

돈!돈!돈! 돈모기는?

아모리 하여도 時勢이다 그러나 그만큼危險이잇스나 이危險을 突破하면 時勢만큼滋味잇는것은업다 百萬圓、千萬圓을貯蓄하엿서도 누구나 苦惱을맛하는者일는 天下泰平의大賭博이다 今般大阪市東淀川區西町現代出版社에서 發行한『株式期米相場必勝戰術』이라한 時勢道의 極意書로 누구나 試驗하여보아도決코 損을안보는 大理法을 公開한것으로 이理法을 活用함에一千擧金을 어룰수잇는 大至寶典이다 一般으로는누구나 不論하고 一秒라도 速히 一讀해야할것이다

그래서 同書는定價二圓을 先着五百名限으로 特價一圓五十錢으로 前記現代出版社에서 希望者에게 頒布하는中이다 葉書로申込하면 代金은 着本拂로送本함

五十錢銀이 八十圓

에팔린다

거지들과가튼事實 여러분이日常使用하시는◇幣中에大端히高價한物品이잇다 그中에는數百圓이되는貴重品도잇고一錢銅貨도 八十圓以上에팔수잇는것도잇다 大阪東淀川區西町現代出版社에서發賣한『金銀銅貨名鑑』에依하야 이러한숨은寶貨를차저내서모회루시시요하지 [illegible] 것은名鑑記載의價格으로全部前記現代出版社에서買入하는故로右名鑑은三錢切手十枚로前記現代出版社에 [illegible] 送本함

人相과 姓名의吉凶

人相과 姓名의善惡으로 壽夭病死도는榮枯盛衰等에 不可思議한關係가잇다。大阪市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에서 發行한『家相吉凶と名前の付け方』(特價一圓)을보면 實로奇妙한 [illegible] 吉凶의 [illegible] 다는것으로 于先읽어야할 冊이다、災難을當한者 疾患이不絶하는家庭 商業이繁昌치안는者 立身出世가느진者는 반다시人相과姓名에基因함으로 注意할바이다 希望者는前記 現代出版社로 葉書로申込하면 代金은 着本拂로送本 送費共一圓十五錢에 送本함

第一劇場

一月四日부터三日間大公開 新年度特選의名畫 [illegible] 每日三回晝夜公演 一回十二時부터二回四時三回七時半

大輸映 料金 [illegible]

▲新興키네마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悲劇〃惡魔의笑顔〃 알ㅡ○、젠드氏監督

▲松竹蒲田超特作·發聲 [illegible] 原作 伏見晁氏 監督 五所平之助氏 現代名畫 處女よさよなら 主演者 伏見信子、岡田嘉子、小林十九二、[illegible]

▲米國칼ㅡ메ㅡ라社特作 [illegible] 監督리부스이슨氏 西部活劇 爆烈 [illegible] 로드러그스氏主演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團成社

四日封切(五日間) 每日十時半、一時半六時廿分三回 新春第三週特別大興行

▲유니버살超大作豪華版 쩸스호엘監督、제롬킨作曲 지그펠드ㅡ의名作詩樂喜劇에서 쑈、뽀ㅡ트 (獨占) 아이린단、아란죤스、헬렌모간、포엘로손、찰스위닌자主演 空前絶後의音樂豪華版、興趣迫力의集積! 新春映畫界唯一의名作

▲新興키네마超大作映畫 山路ふみ子、高野由美、河津清三郞、田中春男外全스타豪華陣 陸の黑潮

▲東日大每國際ニュース

一次週封切、虎阪島脫獄、伊達競艶錄ㅡ近日封切、二國旗下에對二、바다로가면、五夢女、巨星지그펠드ㅡ新月抄、兄の誕生日、運轉手武勇傳

日本映畫界初有의海洋스펙타클映畫燦然이빗나는新興空前의名篇

優美館

巨彈連發! 四隣을壓倒할新正의壯擧!!

一月四日부터超特別大興行

유社超特全發聲科學連續篇 巨匠호래대리크스태파니ㅡ氏大作 超人對火星人 五六七篇上映 바스타그라부氏主演 妖花지ㅡ乚ㅡ도자스孃助演

코림비아超特作全發聲大活劇 로스래다만氏大作 快漢바크죤스氏主演 榮譽의警官

PCL超特作全發聲新版爆笑篇 名匠矢倉茂雄氏監督作品! かつぱれ人生 永田キング氏自作自演 三條正子、林寬、ラッキーセブン氏助演

次週 八日파라디超人對火星人、血河猛鬪、戀愛의責任、 大豫告 極樂浪人天國、學生怪死事件、나의脫走記、天空快盜王、狂亂

貫鐵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中央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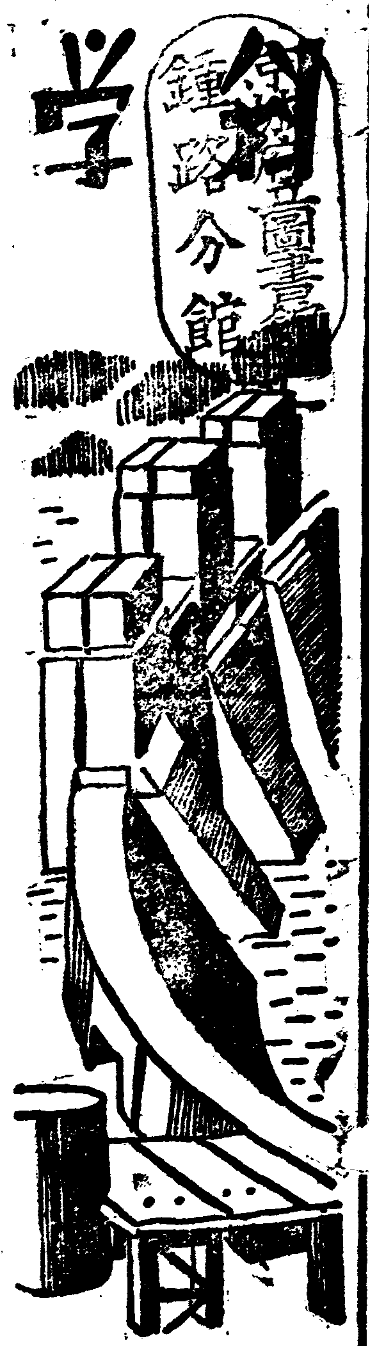
正賀新年 三十一日ヨリ三日マデ公開 [illegible] コロムビア特作喜活劇 無軌道爺西部の卷 水島道太郎、琴絲路主演 水の王者 大都超傑作豪華版オールスター出演 孫悟空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illegible] 第二回 [illegible] 第三回 [illegible]

永樂町 電話三二番 中央館

四日ヨリ五日間晝夜三回興行 リライアンス特作 ランドルフスコット ヘンリウイルコクスン ▲赤陽の斷崖 PCL日活テイチク合同作 藤山一郎 椿澄枝 井染四郎 星玲子 ▲東京ラプソディ ▲東日大每ニュース 大人五○ 學生小人三○ [illegible]

ワカゲキ

鍾路分館



人體의神秘를말하는醫學者들의一夕話

人體의不可思議 잇다면무엇일까

記者 자—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인체의 불가사이(不可思議)라고 할만한것이 잇다면 무엇무엇이 될지 말슴해주시지요 박선생먼저말슴해 주실까요。

朴秉來 글세올시다。인체의불가사이라고 할만한것잇슬까요! 내생각가태서는 병인것갓습니다 로인네들보다도 젊은사람에게 질병이만흔것과 인생의 수명이 평균칠십세라고들 하지만 그반도못살고 죽는사람이 좀만습니까 그걸노코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도 불가사인 것가태요。

記者 그럼 문선생께서는?

文仁柱 박선생이 말슴하셧지만 나역 사람의 생명이란 알수업는것가티 생각됩니다。나는외스과(外科)를하니까 각금생각나는젭니다만 뱃속에까스가생기고 또 고름가튼것이 생기고하는것가튼것도 우리로서 본다면 불가사이한것갓습니다。

李聖鳳 내의견을두분이 다말슴햇스니까 더말슴드릴것은 업습니다만 꼭가튼병에 꼭가튼약을쓰는데 낫는사람은 낫고죽는사람은 죽으니 이것도불가사이가아닐까요。

金錫煥 각과의견지에따라 불가사이라고볼만한점이 다른젭니다 우리네가연구실에서보는인체라는것은 보면볼수록 불가사이한것뿐인데 지금의과학으로도 설명못할것이 한업시만흐니까요 나는 부인과(婦人科)니까 부인과의견지로 본다면 사람의생식력(生殖力)이라는것이 무엇보다 불가사이하게 작구생각됩니다。

鄭槿陽 우리가 일생을사라가는데 우리몸에 불편한점이 잇다는것이불가사이한점일까합니다 사람도진화과정에잇스니까 정말사람만이 가진 몸의불가사이라는것은 결국발견할수업다고해도 과언이아니겟지요。

咸尙勳 제가 잠깐말슴드릴까요 신의주에 생긴일인데 어떤부인네가 알타가 죽엇거든요。그래 그환자를진찰하든 의사도사망진단을햇고 이틀후에는 그러니까 사십팔시간후가되지안켓습니까 장례를지내랴고 관을사오고 염습하라고하는판인데 죽은사람이 발을뻣대드랍니다 그래서 집안사람들이 놀래서 의사를불러다보니까 죽은사람이 깨난것이엇답니다。그래 주사를주고 어쩌고해서 일주일만에 아주사라나서 완인이되엇다는사실이 엿스니 죽엇다깨나는수가 정말잇스며 잇다면 어떤것도를 가사이가 될수잇지안어요?

朴秉來 옛날에는 기사회생이라는에기가더러잇고 지금도법률로 죽은지 이십사시간안에는 매장을 허가하지안케되어잇지안습니까 그러나 정말죽엇는지는 잘판단할수잇습니다 가사(假死)라고해서 정말죽은것은 아니고 죽은듯이보이다가 얼마후에 깨나는수가잇는데 사십팔시간만에깨난사실가튼것은 우리도구경못햇습니다。

咸尙勳 도대체 사람의죽엄이라는것이 어떤것입니까 의사들은 죽엄을 무엇으로규정합니까。

朴秉來 첫째 호흡정지、즉숨이 끈어진것이지요。그리고는 맥박의정지、즉맥이뛰지안케되는것의두가지가오면 사람은 완전히죽은것입니다。

記者 김선생은 불가사이에대해서 생각나시는것이 업스십니까?

金喆膺 글세 여러분이다 말슴하시어서 생각나는것이업는데요 나는치과니까 니빠지는데대한것이나 말슴드리겟는데 옛날에는 니를빼고 죽은사람이 썩만헛습니다 얼른생각하면 니하나로해서 사람이죽는다는것도 우습지만 치과의학이 발달된오늘날에와서는 니를 빼고 죽는일은 거이업서지다십히 되엿스나 전보다니들이 납바져서 인체의전신기능을 쇠약하게한 원인이된것은 역시이상한노릇이아니겟습니까。

李聖鳳 나는시골서온 어린애한자를보앗는데 결핵성뇌막염으로알고 죽는다는선고를하다시피해서 시골로내려보냇습니다 그런데그후에 그환자의부모가 나중에 편지를 보내왓는데보니까회충약을먹고나엇다는말이에요 그러니 엇지 됏습니까 아주허니무른편지를 햇드군요 하하하하

出席者氏名	
婦人科	金錫煥氏
小兒科	李聖鳳氏
外科	文仁柱氏
齒科	金喆膺氏
皮膚科	鄭槿陽氏
內科	朴秉來氏
本社	咸尙勳氏

(寫眞右로부터)

時日지난十二月十八日밤八時

萬人中의一人 奇病언파레이드

記者 이번에는 기병(奇病)언파레이드입니다 만사람에 하나 백만사람의하나쯤 잇슬까말까한환자를보신일이잇습니까 대학병원가튼데서는 연구용으로 멕여살리는환자까지잇다지요

金錫煥 하나봣습니다 오년전일인데 자궁암환자가와서 수술해서 그냥저냥나엇지요 그런데 『엑스광선』으로 보아서도 꼭암으로 아렷든것인데 최근에와서 그것이 암이아니다른병이란것을 아럿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동경에도 한사람잇섯다는말을들엇는데 병명은 『에스치오멘』이란것입니다

文仁柱 뱃속에 커-다란봉오리가잇서 그것이 꼭사람은 아니고 사람형상으로 뼈도잇고 머리털도잇고 눈도잇는 고기덩어리가 잇는환자가잇습니다 엇던때렌트겐으로 보면 갈빗대가 그속에백혀잇는것을 보는수가잇스니까요

記者 그래 그게뭡니까

文仁柱 말하자면 쌍둥이가돼서 나올것이 따로 떠러저서 나오지못하고 하나이 뱃속에백혀 나오게지요

金錫煥 부인과에서도 흔히보는것입니다란소(卵巢)속에기형종(畸形腫)이잇는환자가잇습니다

文仁柱 그리고 저 왜 등이부튼 쌍둥이가잇지안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떼수업다합니다 그리고 하나가죽으면 다른하나도 그시독(屍毒)으로인해서 죽는다니까요

朴秉來 내가 본 환자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잇습니다 조선사람에게 서는 못보고 서양사람인데 이병의 이름을 불란서말로는 『스포루에뇌라』고하고 독일어로는 『트로펜크랑크하이트』라는것입니다 혀가 몹시 갈러지고 설사를 몹시해서작구작구 수척해가는데 아모리 약을써야 압뭇는단말이지요그래서 꼭 장결핵(腸結核)으로 알엇는데 급기야 동물의 간(肝)을 먹어나엇습니다 이병의 원인은 외국에가서 잇는사람에게 생기는병으로 열대지방(熱帶地方)을 통과한사람이래야 생기는병이란것을 알게되엇습니다 그후로 이런사람을 불란서사람으로 둘이나 보앗는데 변검사를 해보아야 세균도안보이고……결국은 비타민부족으로 생긴병이라고간을먹엇드니 역시 감쪽가티치료가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자면서 딸국질하는 환자를봣는데이주일동안을 내리 딸국을햇드란말이요 나중에알고보니 폐염(肺炎)끄테생긴것인데 폐염이낫자 딸국질도 나어버렷습니다

鄭槿陽 오좀나오는구녕이업서방광의 천막이 배꼽근처로 빠저나와 그리로오좀이 솟솟나오는남자를본일이잇습니다

動物인人間으로 進化、退化된點 사람만이가진臟器는업는가

記者 그럼 인체의 불가사이는 그만두고……사람만이가진 장기(臟器)、즉 다른동물에서볼수업는 사람만이가진 장기는 업습니까

鄭槿陽 업지요

記者 그럼 동물인 사람으로서 다른동물에 비해서몸에 퇴화된부분은 무엇이며 진화된부분은 무엇이겟습니까 어디차례로말슴해보십시요

金錫煥 뇌가제일진화되엿겟지요

記者 손은요?

李聖鳳 그러치요 손도진화된것이지요

金錫煥 그러나 수족이란것을 뇌의명령을 바다가지고 노는것이니까 먼저 뇌가발달안되면 손도 그러케교묘히 놀수업을겝니다。

文仁柱 퇴화된 부분을 친다면 젓(乳腺)일겝니다

金錫煥 그러치요 그런길래 지금도 흔히보는일이지만 청우가 습패기에 또 젓꼭지가 부러잇는 녀자들이 잇습니다、얼른보면 먹사마귀처럼 조고마치만 그것이퇴화되기전 아주엣날에는 사람도 다른즘생처럼 젓꼭지가 네개여섯개식달려잇는 증거지요

文仁柱 귀도퇴화된것이지요 다른동물들의귀를 좀보십니까 더러귀를 놀리는사람이 잇기는하지만

記者 엇잿든 시각(視覺)이니、청각(聽覺)이니 후각(嗅覺)이니하는것은 모다 다른동물에 비해서 퇴화되엿지요?

文仁柱 암이럼요

金錫煥 꿀벌이 제집을차저 제방으로드러가는것을보면 미물이지만 꽤 영리한놈이고 일본내지에서는 메ー기(鯰)가지진(地震)에대하야 꽤예민한놈이라해서 지진예지(地震豫知)에쓴다지요

金喆膺 사람의턱 즉악골이 예전에는 아프로 쑥나와잇든것인데지금은 쑥드러갓지요 그리고 제삼대구치(第三大臼齒)가튼것은 지금은나지도안는답니다

朴秉來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엿다고하나 나는 그러케 생각안습니다 콩나물은 콩나물이고、숙주나물은 숙주나물이지 원숭이가 될수잇습니까 우리인체가운데 맹장(盲腸)가튼것은 무용의물건이라해서 잘라내기까지 하지만 예초에 무슨기능을 위해서 생겨난것인지 사실에 잇서서는 우리도 모릅니다。맹장을 수술해서 떼어낸사람은 열병가튼것을 알을때 그경과가 대개는 낫부다하는말을 들엇는데 그럼 왜 소용업는 맹장을 떼어버렷는데 그런 영향이 미첫까? 이것은 우리가 더 연구해볼 필요도 잇거니와 지금의 과학으로보아 이런것도 불가사이한것이겟지요

文仁柱 그러나 맹장이 필요한것이라면 건재(健在)해잇슬텐데 퇴화돼슬리잇습니까

朴秉來 퇴화라고도 진화라고도 말할수업지요 지구(地球)를 모지다 둥굴다하는것도 그시대사람은 그러케멋섯스니까요 모지다고 미든사실을 지금의우리는 어째서둥근것이라고 밋게되엇습니까

記者 그럼 더진화될부분이잇다면 그건 뭡니까

李聖鳳 역시뇌겟지요。

朴秉來 뇌가작구작구발달된다면 다른것은 다퇴화될것입니다。

鄭槿陽 커진다는것은 진화되는것이고 적어진다는것은 퇴화되는것이겟지요。용불용설(用不用說)로 쓰면발달되고 필요한것은 진화되겟지요

文仁柱 우리의맹장은 지금은퇴화되엇스나 예전에는 소화기능이잇섯든모양입니다。토끼가트면 훌륭한 맹장이잇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맹장아니고라도 소화는될수잇습니다。

醫師의人生觀 完成된醫師가되자면몃해나걸리나

記者 완성된 의사가되자면 학교를 마치고나서 몃해나 림상경험을 싸어야합니까 박선생부터 죽도라가면서 말슴해보십시요

朴秉來 글세요 한이업고 끗이업는일이지만 내과에 잇서서 최소한도로 삼년은해야 남을 진찰할수 잇슬겝니다。

文仁柱 외스과는 사년은 해야 되지요

李聖鳳 소아과는 적어도 이년은해야 엇더케 숭내낼수 잇지요

金錫煥 산부인과는 삼사년해야 돼요

金喆膺 치스과는 아마 칠년은 해야 될것가태요

鄭槿陽 피부스과 비뇨스과는이 삼년하면 될겝니다。

記者 의사되신분들은 죽는사람을 하도만히 보시니까 인생관(人生觀)부터도 보통사람과는 좀 다르지 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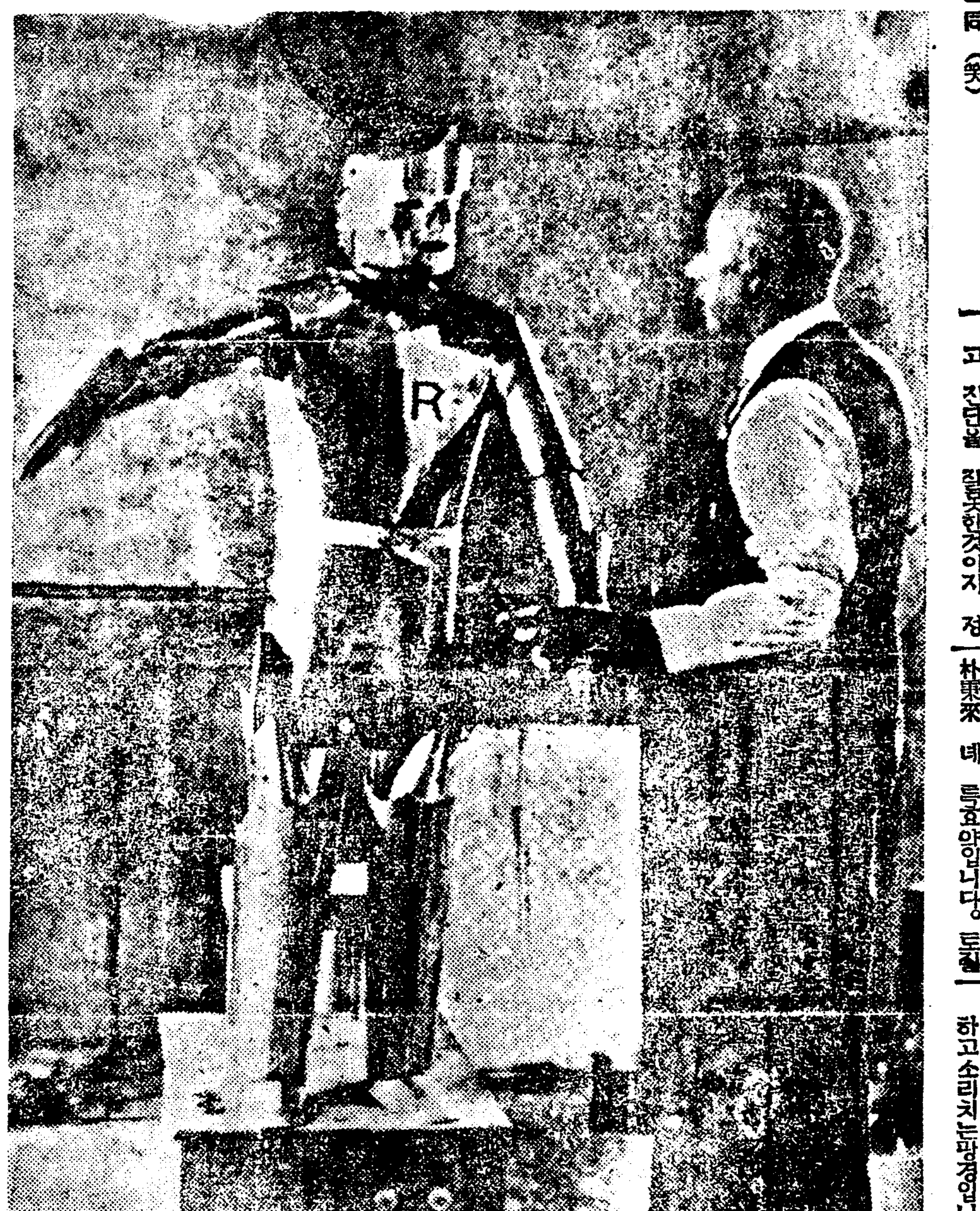
金錫煥 작년에 내가 우리가친이 돌아가섯다는 전보를밧고 집에를 나려갓는데 처음시체를 보나 어듸 눈물이 나야지요、한참잇다가 우리아버지가돌아가섯거니 생각을 하고서 비로소 울게되얏습니다。처음에는 퍽 면괴스럽드군요

朴秉來 나는 금년에 가친이위암으로 돌아가섯는데 내가수술하기를 권고하얏다가 수술후곳돌아가시게 된것입니다다하여튼 사람의죽엄을 대하는 마당에서는 긴장된태도로잇게 됩니다。나는 어느환자든지죽을때에는 신중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그래야 그집안사람들부터도 아무 원망이업습니다。

記者 그러니까 그것은 가식(假飾)이 아닙니까?

朴秉來 그러치안습니다。그러고 죽는마당에도 교양(教養)이잇고 업는것을 딸아 다르드군요。교양이 잇슬수록 죽엄도 고와요。

文仁柱 최후의 마당에서 신중하고 친절하면 아무 칭원이 업다고 박선생은 말슴하시지만은 외과에는 그것도소용이 업습니다。어떠케 신중히 하고친절히 하든지 외과에서는 꼭 째서 죽이엇다는 칭원을 듯게됩니다。



人造人間 말하자면 기계인간이지요 일홈흑「에릭」이라합니다 만인압헤나서서「제군!」하고소리치는광경입니다。

現代醫學의未開拓地 來世에올病은무엇

記者 요다음 세상에 올병은업겟습니까 지금은 엇지만말슴이지요

鄭槿陽 참어려운문제엡。시험보기보다 더어렵군요 박선생말슴해보십시요

朴秉來 생긴다면 눈병이겟지요 십년에서 일만하고 자연을접할기회가 적어질께니까 이상스런 눈ㅅ병이 생겨나고말것입니다 우리어려서도니알튼사람이 별로업더니 지금은모두들 충치때문에 고생들을하고 입안에 딴병이생겨 야단들이니까요

記者 부인ㅅ병으로는 업겟습니까

金錫煥 구태어 부인ㅅ병이라고할건업고 엇잿든 련애병(戀愛病)이 생길겝니다

一同 (笑)

記者 현대의학으로도 아직 미개척된 경지라고할가요……도모지 어떠케할수업는 병가튼것은 업습니까

金錫煥 만치요。

朴秉來 작구만 연구해가는중이니까 미개척되고말 병은 업스리라고밋습니다。그러나 아직가태서는 만치요。우선 진행된 결핵병(結核病)、레푸라 즉 문둥병가튼것입니다。

文仁柱 암(癌)도 역시 초기에는 수술하면 치료할수잇스나 진행되고보면 어찌할 도리가 업습니다。

李聖鳳 결핵성뇌막염(結核性腦膜)도 한번걸리면 나울도리가 업지요。

朴秉來 암을 낫게햇다면 그것은 암과 비젓한것을 암이라고 진단을 잘못한것이지 정말암은 낫지안는모양입니다

金錫煥 잘나어요 우리부인과에서는 자궁암(子宮癌)가튼것을 수술해서 낫는수가만습니다。

朴秉來 그건 그러치만 폐암(肺癌)가튼것은낫지안습니다

鄭槿陽 그러치요 가슴을 두드려볼때 일폴러다심한것은 의례 도리가업습니다

記者 정신ㅅ병가튼것은 어떳습니까。

朴秉來 원인에달렷겟지만 사실 어떠ー쎈트가량은 치료되는모양입니다

文仁柱 간질가튼것은 지금약으로도 꼬친다하지만 간질은대개 뇌외압력때문에 생기는것이니 두개골에 구녕을뚤트면 압력이주러드러 낫는다고 하는데 수천년전、사람들은 벌서부터 이것을 아렷는지 그때사람의머리뼈에 떠러구녕이 뚤려진것이 잇답니다。그구녕은 전정을하다가 상한거와는 전혀다른구녕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학자들은 이런해석까지한다합니다

鄭槿陽 압력을주러나올수잇는것은낫지만 벌서세포에 변화가생긴것은 엇지할수업겟지요 즉은세포는 엇지할수업겟지요

特效藥은멋가지 무슨病에무슨藥

記者 특효약(特效藥)이라고 볼만한藥은 대체 멧가지나 됩니까?

朴秉來 마라리아에 기니네、류마티스에 사리찌루산고(酸膏)、지프테리에 혈청(血淸)、아메바적리에 에메친

記者 아메바적리에 에메친을특효약이라고 볼수 잇슬까요

朴秉來 네 특효약입니다。토질에는 특효약이 못 되지만은

記者 그러면 그네가지밧게 더 업습니까?

金錫煥 그럿습니다

—文責在記者—

惠山鎭

咸南惠山鎭 高麗醫院 內科 黃材旺 外科 張元鳳 藥劑師 金基一

普天堡共勵組合 寶泰山共勵組合 大坪共勵組合 大鎭坪共勵組合 大興共勵組合 保興共勵組合 新興共勵組合 烽守峰共勵組合 東新山共勵組合 大上里共勵組合 龍岩共勵組合 鳳頭里共勵組合 終浦共勵組合

鳳頭里驛前 京城食堂

鳳頭里驛前 木材商 朴瑞龍

惠山線鳳頭里驛前 鮮滿運送合名會社 營業所

鳳頭里郵便所長 島內安一

惠山鎭五是川 永昌書堂 校長 尹學鎭 敎員 白正順 同 尹明球

甲山郡會麟面書堂里 區長 李範龍

甲山郡會麟面 農山山農指導區 方致南

同仁公普校 職員一同

甲山郡同仁面事務所 職員一同

共興會社含井浦取扱所 主任 崔榮俊

咸南惠山鎭 貿易商 金亨俊

咸南惠山鎭 專賣局派出所 所長 李文基

咸南惠山鎭 國境拓林株式會社 常務取締役 鄭時南

惠山鎭本町 朝日商店 金源敎

惠山邑本町 綢緞綿布鐵物石油米穀諸雜物 張鳳杜商店 電話五二番 振替京城二二八九八番

咸南惠山鎭 國境自動車運輸合資會社 社長 金在赫 電話四六番 振替京城二四一六八

惠山鎭山農指導區監督事務所 惠山鎭山農共勵組合事務所 職員一同

咸南惠山鎭本町通 惠山齒科醫院 院長 李[illegible]泰

咸南惠山鎭 技術本位 晝夜撮影 巨頭寫眞館 劉載昊 劉載傑

甲山郡惠山邑 惠山公立普通學校 校長[illegible] 外職員一同

惠山線大五是川市 木材商 董泰一

咸南惠山鎭 惠山鎭電氣株式會社 李能熙

咸南惠山鎭本町 食料品雜貨商 鄭承鳳本店 支店 普天堡、大鎭坪普泰山 電話六七番

咸南惠山邑 木材商 盧時好 現住山南面

咸南惠山鎭 國境拓林株式會社 電話一〇四番

咸南惠山鎭 砂糖蔘粉 和洋菓子 食料雜貨 朴根商店

惠山警察署

咸南惠山鎭本町 客室專當 沐浴設備 來客親切 咸南旅館 主 李大只

普天面長 趙來叔

山南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山南面事務所 職員一同

甲山郡鎭東面南大里 有志 李龍海

含井浦森林保護區 文周斌

甲山郡鎭東面事務所 職員一同

甲山郡鎭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甲山郡 楊柳里保護區

甲山郡 銅店山 農共勵組合

甲山郡 楊柳里 警察官駐在所

甲山郡山南面龍坪里 鄭化德

甲山郡鎭東面 私立東明學校

甲山郡山南面龍坪里 中西文七

山南面銅還振興會

甲山邑北部里 崔昌善

山南面龍坪里書堂

五是森林保護區 森林主事 [illegible]

大五是川市 [illegible]

惠山線大五是川市 東西醫院 韓承麟

普興公立普通學校 校長 上原六合男

朝鮮日報惠山支局 顧問 張元鳳

咸南惠山邑江岸通 丸信工業所 主 金信植 店員 李周福 朱仁鉉 安炳熙 安炳穆

惠山線鳳頭里驛前 丸北運送店 代表者 吳壽天

鳳頭里驛前 朝鮮料理 明月館 主 朴泰允

鳳頭里驛 東樂亭

鳳頭里驛前 共興株式會社 鳳頭里出張所

鎭東面南大里 白南鎭

鎭東面南大里 李建實

咸南惠山鎭本町 和洋雜貨 文房具 又一商店 主 朴基鎬

咸南惠山鎭 [illegible]

惠山鎭 咸一旅館 主 白南順

惠山鎭 李龍河

惠山邑事務所 職員一同

咸南惠山鎭本町通 各種時計 蓄音器 レコード 電氣器具 慧星商會

銅店駐在所 朱[illegible]燮

鎭東面南大里 李瑋夏

銅店里普明學校 校長 崔文燮

鎭東面南大里 金正鳳

惠山稅務署 署長 朴澄均

咸南惠山鎭本町 絹織物 毛皮 綿布 石油雜貨 朴鎭化商店

咸南惠山鎭金融組合 組合長 金禹錫 評議員 辻本芳松 李元讚 金重鉉 金學道 金殷龍 姜官鉉 金鳳雲 金炳赫 李蕙株

廣梁灣

龍岡溫井市 新築洋屋 自家自湯 設備完全 親切叮嚀 金星旅館 主 金星健

平南廣梁灣 廣梁灣信連鎖店 百貨店 三和商會

廣梁金融組合 組合長 金義鉉

龍岡溫井市 新築設備 自家自湯 設備完全 親切叮嚀 平和旅館 主 金聲弼

龍岡郡金谷面事務所 職員一同

龍岡郡海雲面事務所 職員一同

龍岡郡貴城面事務所 職員一同

龍岡郡瑞和面事務所 職員一同

廣梁灣六月會

廣梁灣市街 海東商會

平南廣梁灣市街 自轉車 廣梁自轉車商會

廣梁灣市街 オジマ齒科分院

廣梁灣市街 廣梁共生組合

廣梁灣乳洞 永山園 魯永九

龍岡郡新寧面 私立新寧學校 校長 全東[illegible] 敎員 金仁澤 同 金昌德 同 孫一俊

龍岡溫井郵便所 所長 安性源

龍岡溫井市 司法書士 任秉晃

日用雜貨 諸食料品 日米石油 販賣特約 三友商店 主 金[illegible] 龍岡郡溫井市

龍岡溫井市 龍海醫院 韓東煥

龍岡溫井市溫泉醫院 李淳翼

龍岡溫井市 尹致[illegible]

龍岡溫井市 神經痛 皮膚病 專門 西鮮電療院

龍岡溫井市 三和旅館

廣梁灣市街 金昌龍

龍岡郡貴林漁業組合 理事 姜璣英

金谷面擔樓里 李載說

海雲面龍井里 姜致祐

廣梁灣市街 金城洋服店

朝鮮日報支局

그대家計는 엇던가

빤한수입에 엄연한 씀씀이 그러나 주부의 규모로 집은 서간다

되도록절약하라 애는쓰지만 팔십원가지고는빠듯하다

崔善福

우리집식구는 우리내외와 아히들넷과 식모, 친척한해서 모다 아홉식구입니다

그이(주요한씨)가 매달팔십원식 드려다줍니다 이것을가지고 첫재

쌀갑 이십삼원

나무갑 삼십원

전긔료금 오원

수도세 일원사십전

교제비 삼원

애들학비 륙원

이상모다합하야 칠십원돈이 들게되며 그밧게 찬가가잇습니다 일정한가게부를 가지지못하고 그저될수잇는대로 절약해서 써나가라고할 따롭입니다

집이 소위양식집이라 여러가지 편리한점도잇지마는 웬일인지 자리가잡히지안코 잘맛지롤안흔것갓습니다 첫재 위생상으로 보더라도 조선집보다 공긔융통이 잘안되는것갓고 뒤숭숭하야 오래동안 우리의전통으로나려오든 조선집이 훨신조흔것갓습니다

살림사리에대한 포부라던지 아히기르는데대하야서는 학교에 다닐때 생각과 실지가 너무다르다는 감상밧게는 더나지안습니다 그야 학생시대에는 다만하나의리상이엿고 실지생활이 어듸그러케단순할수가 잇겟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생각하면 결국사람의 생활이란 복잡한것이니 그복잡한 가운데서도 침착하고 조리잇고 따스한 분위기속에 가정생활의 묘한맛이 잇다고 늣겨지며 아들딸을 잘길너서 압날에 훌륭한 사람을 만들겟다는것이 나의임무를 충실히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엿습니다

그이는 분주한사무에 쪼겨서 집에잇는 시간이 몃시간되지안습니다

그리고 두리서 극장에를 간다던지 산보를 다닐틈이 조차를 업는데 혹잇다면 그때비용가튼것은 일체를 저쪽에서 부담하여줍니다 그리고 비상지출이 생겻슬때도 그지출은 그이가 부담하게 되여 잇습니다

두내외가버으러 수입은잇지만 버려노은것이잇서객비만타

女醫師 吉貞姬

이러타할 가계부를 가지고잇지는 못하엿습니다 그러나 한달동안 얼마나든다는것은 대개일정합니다 수입은 저가보시는바와가티병원을 경영하고잇스니 대개 여긔서 가저다가 살림사리에 봇태여쓰고잇습니다 한달에 일백오십원식을 집에 가저다쓰는데 거긔서 남는것이잇스면 달리 저축하기로되여잇습니다

식구는 우리내외와 애들둘과 식모하나와 병원간호부한사람—모다합해서 여섯식구입니다

일년을 통해보면 사시가 모다 다릅니다 대개 요사히겨울을 표준하면 한달동안 쌀을 한가마니 반울먹습니다 이것이 이십이원가량들게 됩니다 반찬갑은아모리해도삼십원이 넘고 사십원 갓가히듭니다 또한 나무갑과 석탄갑이 엇더케 만히드는지 이것이삼십원은넘습니다

그리고 교제비 십원 교육비로 유치원에 단이는아히의 월사금이 이원오십전보통학교에단이는 아히의 월사금이 륙십전 두아히의학용품이 이원 모다 합해서 륙원가량들게됩니다

어린애들의 용용이갑시한달에 칠원은 들게되며 그외에 오락비가튼것은 전부그이(김태원씨)가 부담하게 됩니다 옷갑가튼것은 일정치안습니다 만히 들때에는 비상지출을 하게됩니다。 동부인해서 어듸 놀너갈때의 비용말입니까 그것은 그는 저편부담이지요 이러게 쓰고나면 매개 월급에 드는돈이 일백삼십원이 됩니다。 남어지 이십원은 비상지출이 잇슬때 쓰는비로 저축하여두기로 되여잇습니다

팔십원수입에서 사십원은저축 가계부는반드시잇서야한다

京城女商校 宋玉璇

조선의가정에는 첫재가계부(家計簿)를가저야 하겟습니다

나로서는 이방면에 대하야여러가지로 관심해왓스며 사실연구하고잇습니다

나의한달동안 수입은 학교에서 밧는월급 칠십오원과 그외에 집세로 이십원모다 구십오원입니다 그이 (김종명씨)는 평안북도강계군청에 다니며 팔십원가량의 월급을 바더서 혼자생활하고보내주는것은 업습니다

식구라고는 식모와 모다 합해서 세사람입니다 한달동안 세사람의 식비는 쌀갑팔원 찬가신탄비십삼원모다합해서 이십일원오십전에 식모월급이 오원교제비삼원 오락비이원 세탁비이원 그리고 의복은 그저잇는것을 주장입고새로지어입는것은일년에한오륙십원드니이것이한달에오원쯤계산할수 잇습니다 한달게산을 모다하면대개는 사십일원가량들게됩니다 남어지는 차곡차곡저축해두기로되여잇습니다 비상지출의 필요가잇슬때는 물론이예금속에서 차저쓰기로되여잇습니다 사실 여긔에는가계부의 자세한 항목을잇는대로 드러내기가 곤난합니다마는 이것만은 가정의 주부로서는 이것만은 꼭 가저야 하리라고생각합니다。

오십오원돈으로 여섯식구살림 아이들학비때매제일곤난

李寶卿

내살림사리라는것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가운데서도 늘수지가맛는 살림사리를 해나가야겟다고 애쓰고 잇습니다

수입이라고는 월급으로밧는오십오원박게는 업습니다

그야 오십원이라는 매달수입을 가지고 넉넉히사라가고 예금이라도 할만한 살림사리가잇겟지요마는 그것은 지출여하에 달렷슬것입니다。 한달에 오륙원밧게 안되는수입을가지고도 런명해나가는사람이 오죽만습니까 이러한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넉넉한 편이겟지요

식구는 모다 여섯사람입니다 첫재 애들이삼남매 식모 그리고 일가집아히하나거긔서 나하나모두가 여섯인데 쌀갑시십오원은 가저야되며 나무갑시 십오원은 아모레도 들게됩니다 찬가 말입니까 찬가는 륙원이면됩니다

그밧게 큰 아들이 지금 경성사범 연습과에 단이는데 관비생이라 학교에 드는비용은 업습니다마는 행인지 불행인지 그아히는음악에재조가잇서서 음악을배운다기에 악보며 월사금으로한달에 십삼원식 들게됩니다 그리고 그다음딸아히가또한 경성녀자 사범연습과에단입니다 이애도 관비생이므로 별다른비용은 들지안흐나 그래도 일용돈으로 한달에 오원식은 주어야됩니다

그다음에 망내아들이지금 여섯살먹엇는데 그아히에게는 그저용이 갑스로일이원으로 오원을 주는데 이러고보니 결국수입과 지출은 꼭맛지안습니까 내자신에드는비용은 한닙도업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니다 현재계산으로보아수입오십오원에 지출오십오원이 안입니까

비상지출이 잇슬때는엇떠케하느냐고요 글세요그것이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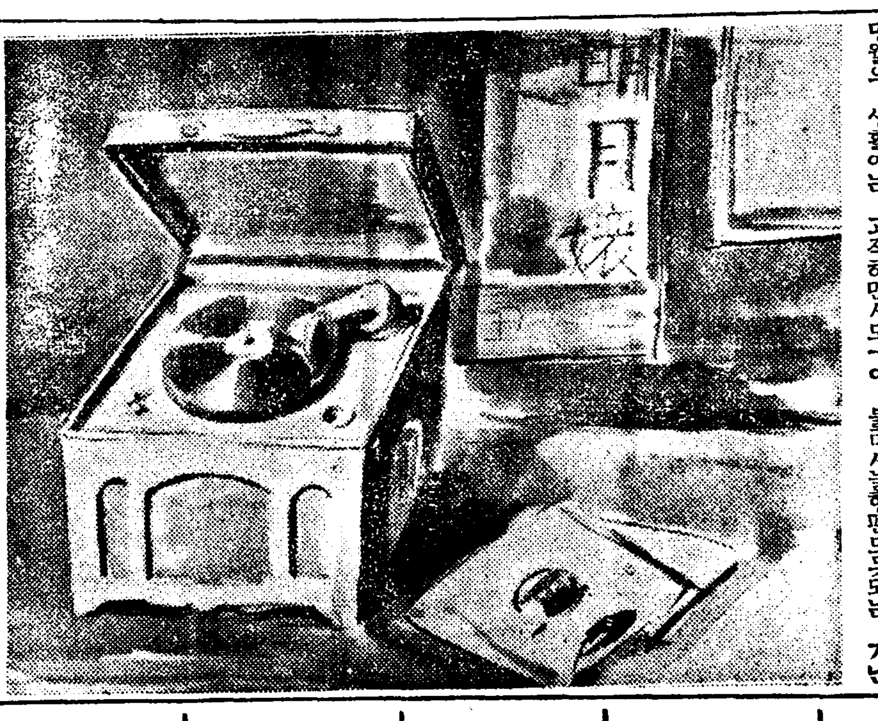
그때는달리엇더케 빗을내여라도 쓰게됩니다 망내아들교육비는 첫재그애의월사금을위하야 준비로 예금한것이 잇습니다

그리고 다른것은 제형과누이에게 맛겨야 겟습니다 그아히들이 학교를 맛치면 나의 살림사리도 조금 윤택해지겟지요 그러나 큰아히는 명년에 동경상야음악학교에 가기로 되여잇습니다

雙虹舞 【77】

方仁根 作 / 金奎澤 畵

歌手(四)



명월이 취입한지 몃달이 못되어 그의노래는 날개가 돗친듯팔리기시작하엿다。 전조선 방방곡곡에 명월의노래가 아니가는데가업고 유행이 되기시작하엿다。 서울의 거리거리 상점과 음식점과 가정에서도 명월의유행가 천지엿다。

고명월의 이름은 단연호날리엇다。

유성기회사에서는 명월을 전속가수로 고빙하게되고 보수도 만히주엇다。 그리고 요릿집에서도명월을 불러보려는 손님이만허하로이틀전에 지휘를 하지아니하면안되엇다。 그는 돈이생기는대로 광훈에게 부치고 남어지는 빗을갑헛다。 이러케 얼마동안만하면 빗을다갑고 자유의몸이될것을 생각하니 기뻣다。

명월의 생활에는 고적하면서도 활기가잇섯다。

그러나 명월은 몹시피곤하엿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조금도 쉴새가 업섯다。 낫에는 유성기회사에가서 취입을하고 밤에는 요릿집에가니 새벽부터 아침까지겨우 몃시간박게 잠을잘수가 업섯다。 그리고 조금 틈만잇스면 남녀손님이 집에 차저오고 또 놀러 가자고하고 정신을 차릴수가업섯다。 그저 자기는 뭇사람에게 휘둘려 유성기판처럼 빵빵돌아가는 생활과 가탓다。

그러면서도 유성기판은 바늘에 찔리어 소리를 내는것처럼 명월의 가슴에도 바늘로찌르는것처럼 알른일이만헛다。 못난자가 사랑하자고 덤벼드는데는명월도 정신을 차릴수가업섯다。 차저오기도하고 편지도하고 요릿집에서 부르기도하여 사랑을 청하는사람이 수업시만허다。 서울의부자、신문긔자、회사원 전문학교학생 이런모든사람들이 명월을 둘러싸고 범떼처럼 엉기는것이엿다。 거기다가 창수와 노래연습시키는 선생과 또악사중 멧사람까지 명월을 독점하려고 경쟁하는것이엇다。 명월은 우슴조케 조종하자니 힘이들고 엇고도 기가막히며 그네들을 다편때는 안타가워 눈물까지나왓다。 자기몸을 락-내맷기고 일생을 사랑할만한 훌륭한남자는 도모지 보히지 아니하는것가탓다。

『사랑을못하는 고통도 크다』

이렷케 명월은 생각하엿다。 물론 그못난자들이 자기를일시농락하려는것이오 잠간 연애를하든지 또오래면 멧해 첩으로다리고 살다가 흘물어내세울작자들인줄 알매 명월은 맘을노코 그들을 사랑할수가 업섯다

『쌀쌀하다』

『도도하다』

『절개잇다』

이러한평판이 돌면 돌수록 남자들은 더덤비는것이엇다。 어떤 심란사람은 명월이가 가고오는길목이나 집어피나 축음기회사아페서서 기다리고잇다가 만나보고 말도업시 가기를 멧백번이나 되푸리하는 남자도 잇섯다。 명월은 그런사람을 볼때는 불쾌하기도하고 불상하기도하며 자기가튼 사람에게 저렷케 성의를 갓는다는생각을하면 죄송스럽기도하엿다。 요릿집에 버젓이 불려서놀형편도못되는 가난하고 수집은 그절믄사람에게오히려 명월은 동정이 가는것이엇다。

명월은 이러케 자기의 이름이 노파지고 수입이 늘어가고 못낫자가 사모하는 처지에이르럿스나 그는 조금도 잘난척하거나 거만스럽지 아니하엿다 다른기생이나 가수들은 기고만장하여 뽐내고 단니지마는 명월은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업는 단아한 여자이엇다。 그리고 다만 자기의 부르는 노래에 전심전력하고 그길에 정진할 뿐이엇다。 그러하매 그의인기는 점점 노파가고 그의 노래는 차차 세련되어갓다 그래서 어대를 내세우나 부끄럽지 아니한 유행가수로 자리가 잡히게되엇다。 누구나 놀랄만치 그의 기생으로서의 가수로서의 출세는 전광석화와가티 빨럿다。

은명에게서도 축음기에서 명월의 목소리를 반갑게 들엇다고 편지가왓다。 또 각처 시골에 자기가 기생노릇을할때 알든 손님과동무에게서도 그런축하와 감탄의 편지가 빗발치듯할때 무어보다 그것이 기뻣다 그러나 광훈에게서는 자기의노래를 들엇다는 편지가업섯다。 그것이 몹시 섭섭하엿다。 그는 공부에 열중하고 그런유행가쯤은 귀도기우리지 안는것을 생각할때 명월은 한편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원망스럽기도 하엿다。

龜城

平北朔州郡大舘市 朴炳曄

朔州郡外南面 土曜會一同

平北朔州大舘市 平北道會議員 金恒源

龜城司法書士分會

龜城郡農會

龜城警察署

龜城稅務署 稅友會

龜城公立學校 職員一同

龜城金融組合理事 渡邊五郎

龜龍泉釀酒社 朴昌日

朝鮮交通株式會社 本社 定州邑城外洞 營業所 龜城邑內 泰川邑內 寧邊代理店

平北道會議員 金昌洛

東山公立普學校 張昌根 崔東零

朔州外南洞 義合金山 金允行

龜城醫院 公醫 崔信國

義州電氣會社 龜城營業所 主任 任昌吉

龜城邑內 昭和齒科 安榮生

龜城面 院興鑛業所 辛敬柱

龜城專賣局指定賣捌所 朴健冑

龜城邑內 第一洋靴店

日成精米所

龜城邑內 東光精米所 主 朴麗華

龜城邑內 甲種料理 明月舘

龜城邑內 甲種料理 平壤舘 主 朴亨模

龜城邑內 平壤舘 劉景仙

龜城邑內 平壤舘 張景淡 金錦花

方峴 大同舘 名妓 韓春花

方峴 大同舘 名妓 李暎月

方峴 翠松園 名妓 李椿姬

方峴市 翠松園 名妓 黃蓮子

方峴市 南市 釀酒會社

方峴 壽斯醫院 崔禮洛

廳洞面協議員 金衡玉

舘西面昭關洞 信興義塾

平北朔州大舘市 德本醫院 醫師 金濚柱

朔州南山面院峴市 釀業 釀酒商會 主 洪亨植

平北朔州大舘市 全炳璨

平北朔州郡外南面大舘洞 農民消費組合

龜城水利組合

方峴面職員一同

肅川

平原郡肅川面舘東里 鄭亨泰

順川郡內南面元峰里 順興金鑛事務所 鑛主 楊錫烈

平原郡東松面 平原七成鑛山 鑛山 朴文燮 鑛代表者 朴命根

平原郡東松面雲所里 平原金鑛事務所

肅川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肅川代行營業所 代表者 金景柱

京義線肅川驛前 三益商會

京義線肅川驛前 三合精米所

京義線肅川驛前 李泰熙

京義線肅川驛前 農林穀物組合

肅川面職員一同

肅川公立普通學校

平原郡東松面月峰里 泰和金鑛事務所 姜泰鎭 姜泰鉄

安州郡雲谷面雲龍里 昇龍金鑛事務所 代表 李晳

京義線肅川驛前 肅川和信連鎖店 主 車定鎬

京義線肅川驛前 共勵相助組合

肅川郵便所 山中正

京義線肅川驛前 肅川麵店

京義線肅川驛前 朴來愚商店

京義線肅川驛前 平安旅舘 主 崔允鎭

京義線肅川驛前 籾受檢組合

肅川面舘東里 東海園 主 王北甫

京義線肅川驛前 ㊁荷主運輸組 金致玉

京義線肅川驛前 朝鮮日報肅川支局 [illegible]

京義線肅川驛前 美奈登商會

京義線肅川驛前 金泰玉

雲田

京義線雲田驛前 雲南商會 穀物貿易 玄米製造 肥料販賣 電略(ウ)又ハ(クモ) 支店 平南平原郡美竇里

京義線雲田驛前 三合精米所雲田支店 玄米製造 肥料木材 セメント

京義線雲田驛前 清雲商會 玄米製造 穀物貿易 委託賣買

京義線雲田驛前 同成商會 玄米 白米業 委託 主任 金在灌

京義線雲田驛前 ライオン(カフエー) 金蓮花

雲田 大田面

定州郡大田面雲山洞 信用組合 穀物貿易 玄米製造

京義線雲田驛前 濟生醫院 白充濟

裡里

裡里邑榮町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裡里監督所 所長 金楨敏

裡里邑錦山町 田炳順

全北裡里邑南中町 天一ゴム株式會社 裡里工場 電話三八番

裡里邑日出町 金英基

裡里邑古縣町 金判中

裡里邑榮町 光州食堂 主 李性菊 電話三〇七番

金堤郡 白鷗面長 金演植

五山面木川里 金鐵斗

裡里邑旭町 郭東秀

五山面松鶴里 朴魯彥

同仁水利組合

李晶均

納清製鹽株式會社 朝鮮京義線雲田驛前 鐵道貨物取扱兼穀物貿易業 ㋒西鮮運送店 電略(〇ウ)又ハ(ウ)

穀物貿易 玄米製造 酒類販賣 委託賣買 義信商會 電略(キ)又ハ(キシン)

雲田驛前 金秉傑

綿絲布木商 二合商會

雲田 綿絲布木商 朴昌洛

京義線雲田驛 白米 玄米製造 三和精米所

京義線雲田驛前 司法書士 李闓珪 崔俊三

朝鮮運送株式會社雲田代行營業所 代表者 山下方四郎

京義線雲田驛前 協同商會 本所 定州郡大田面 雲田協同組合

精米所

窮乏과 農村經濟 (下)

盧東奎

그러므로 朝鮮의 小作料는 半分打作이 原則으로 되여잇스나 災年에는 小作農의 生命維持를 爲하야 小作料減免의 實益이 잇섯고 朝鮮農地令은此를 法的으로 承認하엿다 그러나 이러한 小作人의 小作料減免要求가 엇던程度까지 貫徹될것인가? 實際에잇서서는 地主階級은 凶作의 損害를 最小限度로 적게하기爲하야 災害地의 小作料를 도리혀 引上하려고할것이다 經濟的으로 弱者인 小作人의 要求가 貫徹되는것보다 經濟的으로 優勢한 地主의 要求가 實行될것이니까 災年의貧窮은 主로 小作農과 小作農家에게 도라가다는것이다 이것이 今年에 잇서서 小作爭議가 더욱 늘어가고 小作權移動이 더욱 만흔理由일것이다

그뿐아니라 災害地에잇서서는 災害를 當한 土地의 復舊工事가 問題가 되거니와 이것은當然히 地主의 責任에 屬하는것이다 그러나 地主는 如何한形式으로던지 其復舊工事의 적지안은 部分을 小作農에게 强要할것이며 經濟上弱者인 小作農에게 轉嫁할것이며 經濟上弱者인 小作農은 小作權喪失을두려워하야 이에服從할수박게업다는것이 事實이다 그러므로 災害負擔은 主로 小作農에게도라갈다는것이다

災年總決算

災年의 損害는 主로 小作農과 小農家이라고 하엿스나 地主와 大農家에게 損害가업다는것은아니다 現物收入이 減하고 農産物價格은 적어도 農産物出荷期에 貨幣收入이 激減하야 結果로보아서는 農業恐慌期에서와 가튼 損害를 볼것이다 其結果로는 一部地主의 解體와金融資本의 大地出을促進할것이다

災年은 小作農과 小農家에 對하야는 貨幣收入의 問題가아니라 直接生命의 問題가된다 적어도封建社會에 잇서서는 災年은곳飢饉과 餓死를 意味하지안엇는가? 그러나 今日의 資本家社會에 잇어서는 災年이곳 餓死를意味하는것은 稀少한例外에 屬한다 食糧이不足한 小農家라도적어도 債務負擔으로 最小限度의 食糧을 求할수잇슬것이다 그러나 모든小農家가 食糧을 求할수잇슬만한 債務를 어들能力이 잇슬수는업다 이에서 封建時代의 救災制度 이던 社還米制度의 復活과 擴大의 社會的意義를 發見할수잇다 그러나 社還米라는 食糧貸付制度가 모든 少農家를 救濟할바가 아니니가 小農家의 災害를 保護할것이요 移住民은 浩蕩를 呈할것이다

그보다도 大多數의 小農家는 高利貸를 求하야 金融組合의 勢力은 一層 增大될것이다 總督府 農村振興係에서 調査한바에 依하면 自作兼小作農 七十二萬戶 小作農百五十六萬四千戶 火田民六萬二千戶 計二百三十六萬七千戶의 小農家는 平均百十一圓五十錢의 高利債를 지고잇다하고 小農家의 高利債總額은 二億六千二百萬圓에 達한다 今年의 災年으로 도다시 이巨額의 高利債務額을 增大케할것이다 當局에서는 現在一千五百萬圓에 達하는 殖産契를 五個年間에 一萬契로 增加케할것이요 十個年計畫으로 上記한二億六千萬圓의 高利債를 低利債化할 計畫이라고한다 그러나 小農家의 高利債라는것은 零細小作農의 恒時的半飢不足에서 由來한것이니 其源泉을 막지안코 金融組合의 擴大로는 根本的解決을 期待할수잇슬것이아니다

그리한가운데 今年과 가튼 一次의災年은 더한층 十年의計劃을 無效化할것이다 然則 丙子災年의 總決算은 무엇인가? 金融資本의 進出 土地集中 小地主解任 小作農의 解任 移民의促進 高利貸의勢力增大等等의 一列의 過程일것이다 過去朝鮮의 農村經濟에 무엇을 가저오려는가? 豐作凶年일것인가? 凶作의 再版일것인가? 이물조흔米穀의 … 當面者인 우리는 … 歷史의 … 을 待할것이다(完)

國家的決意下에 劃時期的施設! (2)

農林局長 矢島杉造

그러나 現在와가튼生産에 馬事 … 特히 食用豐瘦, 日本內地移出 或은 滿洲輸出의 增加가 顯著할때 생각할때 容易하지아니한바잇서 政府의 絶大한 助成手段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므로 十年하인 今年에 經濟上 理想的

畜牛增殖計畫

을 確立하야 그達成에 向하야邁進하고 십다고 생각한다。 國策上 重要하고 또 畜産施設에 朝鮮의 馬産과 緬羊增殖事業이 잇다。爲先 馬産事業에 對하야 述하건대 國防第一線에잇는 朝鮮으로서는 産業上 及 國防上의 見地에서 西北朝鮮地方馬産適地에 存能馬의 生産育成을 獎勵하야서 必要頭數의 早速한 充實을 圖함 必要를 痛感하는데 昭和十年度에 十八個年 四萬頭增殖의 馬政計畫이 樹立되엿스나 諸種事情上 幾分 變更할수밧게업시되어 드듸어 昭和十二年度부터 實施에 着手하기로되엿다。또 本計畫의 一部인 朝鮮의 競馬에 對하야 附言하건대 朝鮮競馬令에 依하야 昭和九年부터 實施할 朝鮮內競馬는 아미 四個年 그동안 여러가지 困難에 遭遇하엿스나 各競馬俱樂部의 拮据不撓의 努力은 마침내 昨年에 總額約三百七十萬圓의 勝馬投票券을 發賣하게되어 大體로 競馬俱樂部財政의健全性을 認定하게되엿스므로 今年부터 一層 拍車를 加하야 嚴正하고 興味津津하야 馬事思想普及上 有益한 競馬施行을 期하고 一般四民들의 期待에 副하고저하는바이다。

緬羊의事業은

羊毛自給의 國策과 農家副業의 一策으로 昭和九年度부터計畫에 基하야 實施해 오것인데 全然 新事業이기때문에 周密한 注意를 不怠하고 施設을 獎勵한結果 豫期以上의 好成績을거두어 農家副業飼育의 成績이優秀한데 然하야 또한 一面 最近의 國際情勢及 貿易關係에制約되어 昭和十二年度부터 一層 速한 緬羊의 普及發達을 企圖하게 되것인데 이것이 豫定대로의 進行을 보게될때에는 朝鮮의 緬羊은 異常한躍進을 遂할수잇스리라고 期待하고 잇는터이다。

米穀統制에 關해서는 그것의 農家經濟와 國民生活上에 잇서서의 重要性에 鑑하야 歷代의 政府에서 多大한 苦心努力을거듭해온바이어니와 朝鮮에서도늘 政府의 政策에 順應할 方針下에 機宜의 施設을 講究하야 日本內地와 協力하야 米穀統制에 努力해오것이다。

그런데 政府는 最近의 米穀事情 米穀統制法實施의 經過와 財政上의 關係等에 鑑하야 米穀對策調査會의 答申에 基하야去 第六十九帝國議會에 米穀自治管理法案을 提出하고 昭和十一年五月 이를 公布하야 同年九月二十日부터 施行하기로되엿다。 米穀自治管理法의 眼目으로하는바는 過剩米의 自治的統制로 日本內地朝鮮及臺灣을 通하야

米穀需給推算

을 行하야 그結果供給이過剩인 境遇에日本內地、朝鮮及臺灣에 잇서서 生産者의 團體又는 米穀取扱業者의 團體로하여금米穀을 貯藏케하야 米價가 一定價格以上에 갈때까지는 貯藏의 解除를 認定치안키로하고 米穀統制法의 運用과 아울러 需給調節의 目的을 達成하려는것이 本法의 趣旨이다 그리고 이에 對해서는 政府에서 米穀貯藏의 供給補助金의 交付等 可及的助成을할것等內外地를 一貫한 公正安當한方策이라 多年에 亘한 懸案도 이에 爲先 解決을 告하야 米穀政策上 一步를 進할수잇게되것은 實로 同慶하야마지안는바다。

압서 樹立된 經營困難한 水利組合의 整理計畫에 對해서는 官民協力하야 이遠大한 理想實現에 邁進하기로되엿거니와 그中 整理計畫의 根幹이라고도할 更生水利組合聯合會를 中心機關으로한 三十五組合에 對한 整理方法의 成敗에 對해서는 不少한 朝野의 關心이 集中되엿든것이다。 그런데 計畫實施의 第一年度인 昭和十年度에는

一般的豐作과

米價高의 惠澤으로 또 一面各所屬組合의 努力에 依하야 三十三萬餘圓의 積立金을 할수잇게된 好成績을거두고 諸般計畫도 또한 자못順調로進行되어關係官民으로하여곰 本計畫의 實施上鞏固한 自信을 가지게하엿다그러나 昭和十一年에잇서서는 苗代時季의 異狀한低溫과 霖雨로 秋의發育을害하고 또補植期에들어서는 全朝鮮的旱魃 念慮가漸次濃厚하게되고 그中京畿、忠南忠北、黃海、平南及江原의 中部六道의 被害는자못 憂慮할바이잇기되엇는데 이우에다 今年後半의 中南部方面의 洪水의襲發과 全朝鮮的으로 發生한 稻熱病의 慘害와는 稻作에 激甚한 打擊을與하야 所屬組合中에는相當한 難局에 遭遇한者도 不少한바 極力經費의節約 事業의延期等의 非常手段을 講究한外그래도 萬不得已한 組合에對해서는 聯合會積立金의繰入(그總額十九萬圓)을하야 이에 依하야收支의均衡을 保持할수잇게 하야 겨우 이難局을突破할 豫想이서게되므로 이제야 整理計畫에基한 聯合會組織의 微妙하고 强力한作用을確認하는同時에 將來一層 所屬各組合의 共勵 協力이 切要함을 痛感하는바이다。

朝鮮의林野는

往時의 林政이 弛緩하고 保護取締가 充分치안햇든것과 그地盤을 構成하고잇는 岩石이 風化崩壞키쉽고 또氣候가 大陸的이기때문에 林相이 極히 劣惡하게되어 豪雨때마다 만흔土砂를 下流에 押出하야 河床을 노피며 洪水가 氾濫하야 每年가티 農耕地、交通機關及 人畜의 被害를보게되고 特히 産業이發達한 南朝鮮地方에 荒廢林野가 鍵在하엿기때문에 一層 洪水被害를 크게하고잇다。

總督府에서는 일직 荒廢林野의 復舊가 産業開發의 根幹이 됨을 認定하고 大正七年度以降 水源涵養造林事業을 大正十一年度以降 國費補助砂防事業을 樹立하야 主要河川流域에 砂防事業을 實施하고 또 昭和六年度以降은 疲弊困憊의 極에達한 農山村을 救濟하기 爲하야 各種의 砂防事業을 施行하야大正七年度부터 昭和十年度에 至하는 十八年間에 國費及道費를 아울러 二千八百七十餘萬圓을投하야 約六萬町步의 復舊事業을 完成햇스나 아직도 昭和十年度以降에 砂防事業이 必要한 荒廢林野는 全朝鮮에 亘하야 十九萬六千町步의 大面積에 達하야 이것의 復舊는 治山治水上 緊急을 要하므로 昭和十年度以降 十年 乃至 十五年間에 總額五千八百餘萬圓으로써 十二萬七千町步의 荒廢林野를 復舊하려고 第二期砂防事業計畫을 樹立하고 右計畫에 基하야 國費砂防事業은 京畿道以南의 漢江 錦江 洛東江等의 主要河川에集中施業하고 道費砂防事業은 全朝鮮에 施行하나 主力을 中部朝鮮以南에 注하기로하고 洛東江流域砂防事業은 慶尙南北兩道에서 施行하기로하야

治水委員會等

에서 … 直轄事業 … 다 그러나 過般의 風水害의結果에 鑑하야 砂防事業의全面的擴充을 促進하는것이 … 結果 來年度부터는 計畫外 六萬九千町步及 林相改良地五萬餘町步에 對해서도 來年度以降 十五個年計畫으로 完成하기로하고目下 實施中이다。

以上外에 自作農創定에 農地令運用 林地擴充에 北朝鮮開拓事業遂行에 警察乃至 鐵道等 副業奬勵에 施措를 不忘하고잇거니와 所管事務에 對해서는 將來幾多施設의 進步改善을 圖할必要가잇슬것은 勿論이라 一日이라도 晏如함을 不許하는것으로 믿고 國家的決意下에 劃期的施設을하야서 朝鮮同胞의 生活安定及 精神作興을 目標로하야一層 官民이 一致協力하야 更新의 努力을 다하기를 切望하야마지안는바이다。(完)

國堂 金熙舜 氏筆

困國에서呻吟하는 最近米價의消息

統制網속에서오락가락할뿐

崔晋夏

米價란 直接으로 米의豐凶、間接으로 經濟事情의 如何를따라 左右되는것은 自然한現象이라할수잇스나 近年의米價는 需給狀態의 直接關係보다도,爲的인 政策이 全혀 米價를 左右한다하여도 過言이아닐것이다 그래서米의 自價는 統制法網에걸리어 困國에서 呻吟하는格이되엿스니 此는 昭和八年 米穀統制法이 實施되以來의 米價趨勢가 如實히 證明하는바이며 딸아서 아프로도 最高最低의 그範圍를容易히 버서나지 못할것을足히 豫斷할수잇다 實로昨年度最高米價는 三十三圓二十錢面當 高標準米인 攝津米로 換算하면 三十四圓六十錢인데 昨丙子年과如히 朝鮮의風水害가 多하엿슴에도 堂島先限 三十四圓五十九錢 仁川先限 三十二圓七十錢의高價를 示함뿐으로 畢竟은 日本內地米 第一回豫想 六千七百八十四萬六千餘石인 昭和八年의다음가는 農作을爲하고 朝鮮米의 第一回豫想은 新調方式으로의 一千九百九十四萬千餘石의 新記錄的數字를 示하엿슴에도 最低公定米價二十四圓八十錢을 下廻하기는 姑捨하고 最低로부터二圓以上의高價에止할뿐으로 反히 昭和十一年産米에對한 新公定米價인 最高三十三圓九十二錢 最低二十四圓九十二錢의 局限을 버서나지못하고 九百千圓範圍內에서 往來할모양이다 더구나 本米穀年度부터는

米穀自治管理法

기로 政府는 이미政策을 서웟스니 廣田首相의 宣言에依하면 米穀은 國民의 太半을占한 農家의 重要生産物이오 또國民全體의 重要食糧이므로 國民生活의 安定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安定을 圖하려함에 … 運用과 아울러 … 九個所의 米穀統制組合의 設立을 見합에至하엿다 그러나 同米穀自管法은 最低公定米價인二十四圓九十二錢으로부터 一割上値以內에 發動하게 되엿슴으로 堂島標準米인 攝津三等米로 換算하면 一圓四十錢의 格上을加한外에 最低公定米價에서의 一割即 二圓四十九錢을 加算한二十八圓八十一錢의 以下市勢가아니면 自管發動을 見하지못하게 되다 그럼으로 今後의市勢가 最低公定價格의 一割上値以內로低落하는때는 自管이 發動하게되고 最低公定價格을 下廻하는때는 政府의買上으로써 米價의低落을 防止하게 되엿스니 此는 可謂 官民協力으로써 農家는 一線에서 政府는 第二線에서 局外로 防走하는 米價를 監察할이나 다름업시 되엿다 그런데 新米穀年度에入한 以來의 米價는 農倉의管理、金融機關의改善

農家의經濟良好

모든條件압에 農家의賣惜方針은 例年보나도 又一層鞏固하야 短期 强制貯藏의 中止狀態임에도 自治管 文字 그대로의 自由貯藏을 함으로 米出盛期인十一、十二 兩月을 經하엿스되 이러타 할만한 産地의 出廻가 업고 도이미 出廻된것도 持主의低價賣의 不應으로 自然精米所는 原料의 不足又는 採算不適으로 大體休業狀態를 呈하고잇다그러고本米穀年度의 需給關係를再檢討하여보면

▲供給(單位千石)

前年度持越高	八、〇〇〇
實收高豫想	六五、〇〇〇
朝鮮米移出豫想	七、〇〇〇
臺灣米移入豫想	五、五〇〇
供給合計	八五、五〇〇

▲需要(單位千石)

消費高	七五、〇〇〇
差引持越高	一〇、五〇〇
需要合計	八五、五〇〇

이로 政府의 現在手持米四百三十七萬石 今回買上五十萬石 合計四百八十七萬石과 民間持越高五百六十萬石을 算하게되나 그러나 昭和十年度産米가 凶作인關係上日本內地는 三百萬石의 부족을하엿고 朝鮮米는 前年의實收보다

約三百萬石減收

하기로 … 되엿스즉 農家의 賣惜은 當然하다고보지안흘수업다 實로 農家가 自管의發動도 期待하지안코 年來政府의 中止도 不拘하고 꾸준하게 賣惜方針을 繼持하고잇는것은 … 하는것보다도 또는農家의 經濟力이 潤澤하다는것보다도 政府의政策을 信賴함으로써인데 아프로의 農家의 態度가 果然何如할지 此가 가장注目되는바이다 萬一農家가 頑强한 態度를 繼持한다면 米價의低落을 招致하지안코 範圍에서 平均價를 行하여간다하면 米穀自管의 必要도업시 또短期强制貯藏의 惠澤을입지안코도 農家의 自力으로서 高米價를 實現케할수잇스나 萬一此의 反對現象으로 奧地의 貨物이 逐次出來하야 集散地의 積貨를 見하게되는때는 一時實勢戰壓의 反落을 免하지안흘가 생각된다 一月二十日頃에 發表될米實收高는 누구나 減收일것으로 豫測하는바이나 따라서市勢의 行動도이미 一端하엿다고도볼수잇슴으로 實收發表後의反落을 示할지도 亦未知이며 더구나 其際는 即昔年末에만치農家의 換金高의 轉換이 업지아니하야 多少의 反動落을 豫想할수도잇스나 그러나 低落은一時的으로 去十月의 最低價를 割하지못할것은 米界의 모든事情으로써 足히 參酌할수잇다 그러면 米價는 아프로 어떠한波瀾과 經路를밟버 昭和

十二年米界歷史

를 記錄케할가? 이에는 누구나 할 모양인가? 此에는 누구나 確斷을 付할수업는 일이나 最高公定米價인三十三圓九十二錢即 堂島米價의 三十五圓三十二錢(一圓四十錢格上)을 突破하지못할것만은 또한 保證的의 判斷을 내릴수도잇다 勿論政治的으로 最高最低米價의 障壁을 막고 잇슴으로 農民實業者中間商人까지 逆行하지못함으로 그障壁을 버서나지못할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그限度內에서 行動을 取한다하면서 押目買에 押目買의 敢行이 가장賢明策이아닐가한다 그러나 豐作後의日本內地 凶作後의朝鮮으로서의어떠한 獨積的性質을 招來할것인지 此는自然에매낄수박게업고 人爲的으로보아서 上記의觀測에 過誤되어업슬것이다

新春의 株界前途

爆發? 反發?

實勢는强하나 波瀾難免

二個月에 亘한 保合으로 沈潛中에잇던 株界도 年末掉尾一振의 市勢를 展開하야 一齊大爆騰裡에 大納會를 告하엿는데 이제 新春市勢는 어떠할가?이것이 우리의 알고저 하는바요 興味의 中心이다。年末의 爆發이 單純한 季節關係,仕手關係뿐아니오 偶發的 또는 自然히 일어난 여러가지 好材料가 잇섯든것을 忘却할수가 업스나, 첫재、綿絲、生絲、人絹、鋼鐵、고무、其他 商品이란 商品은모두 努力이잇는데 그中에서도綿絲人絹의 消費繼續이 가장큰刺戟이되엿고、둘재로는稅制改革에對한 反對氣運이高揚하게되엿데 한울어뎟스며 第三은 民、政兩黨이漸次官僚에 向하야 積極的抗爭態度를 取하게되것도 또한 한助力이아닐수업섯다。또外交關係에 잇서서는 日獨防共協約의延長과 蔣介石氏生還에依한 國民政府의 抗日政策緩和豫想、日米親善工作等으로 國際關係打開의 一抹의 光明을 엿본것이 또한 原因이 되엇든것이다。

그러면 新春株界의 動向도亦是商品市場의 動向을 注目할것이오 또는 機會를 中心한政局의推移 또는 外交關係其他에依存한다고할수잇는데、첫재 商品高가 一時的現象에 끈치는것이 아니오 안으로는 三十億豫算이라는 인풀레期待일것이며 둘재로는 世界物價高의 餘波를바든것이니만큼 容易한 低落은 難望일것이다 이런意味에서 商品이 多少 危險線에는 갓다할수잇스나 政府가物價統制에나서거까지는 騰貴의一路를 밟을것이요 政局의推移는 가장 注目되나, … 波瀾을 보일것으로 豫想되는데 이것도 修正이된다면 더욱有利할것이오、修正이 되지안는다하더라도 이미 既定事實化하고잇는것이므로 큰 落膽은 업슬것이며、外交關係도 明朗化하엿다고 하지못할지라도、危機만은 緩和된것이 確實하므로、모든點으로보아 株界에 不利하다고 할材料는 거의 업다해도 過言이아니다。그러므로 春高期待는 强氣의 空想만에 끈치지안흘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긔서 注意할것은 첫재로는 熱狂만은 警戒하여야할일이며、둘재로 投資에 當하야 物色에 用感하여야할것이다。東新가든 取引所株가 往年의 活躍을 다시 보일지는모르나 取引所改組如何를 不拘코 時代는 採算中心에 기운 時代이므로 優良株의 物色을 잘만한 …

商品界新春展望

人絹

이런意味에서 重要商品高에刺戟되여 新春에는 一大飛躍을示할시도 亦未知이다。

去年十一月末 蠶絲上場決定과 함께 六十五圓臺를 上拔한 人絹이年末에 綿絲 生絲等의 强調에伴하는 人絹低觀으로 八十圓臺로 狂騰하고 福井市場은 百圓을 突唱하야 立會中止를 惹起하는等의 … 以來의 高價를繼續하엿는데

綿絲

綿絲는舊年末에 連日 暴騰을演하야 드듸어當限 二百六十圓臺 先限도 二百五十圓臺를 突破하야 昭和四年以來의 高價를繼續하엿는데 二二六事件으로 百八十七圓에 轉落되엇든것을 回顧한다면 그急激한 變動에 驚異의 注目을하지안흘수업다。

이原因은 一時面較之하면 亦是 供給不足과 需給前途의 樂觀에 是因한것인데 이에 加하야 膨大豫算編成과 國內購買力增進期待、一般物價高騰期待가 强化하고 國內需要增大豫想의 假需要增大와 紡織業의 好採算等으로 飛躍을 演出하엿다。이도 人絹과 마찬가지로 볼서 危險線에 到達한感이 不無하야 飛行은 警戒되지안는바아니나、世界 乃至 國內需要가 依然한 好調를 繼續하는限 反動다운 反動은 업슬것이니 첫재 諸物價高에依한 勞賃의 引上 原料騰貴、增稅負擔等을 轉嫁하는 原料高等을 생각한다면 綿絲의 騰貴는 當然한 現象이라고 볼수박게업다。이런意味에 잇서 月前은 警戒期에 賣押을 보일는지 모르나

棉花

棉花는 依然 高價를 維持할것이라고 볼수박게업다。棉花의用途가何必 綿絲原料에만 局限되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世界棉花 半數以上이 綿絲 綿布의 原料로供給되고 잇는것을 생각하면 綿絲의 暴騰은 棉花高를 招致하지안흘수업는것이 先物 七十四圓臺도 그리異常할바가 업다할것이다 그나마 米國自動車工業의 隆盛은 다이야原料로서의棉花의 需要를 激增하고 잇스며 火藥의原料로서도 時節이時節이라 需要가 增大될것이 事實이므로 綿絲 綿布高 紡績業의隆盛이 繼續되는限 棉花의前途도 明朗하다할것이다。

金

佛國의 平價切下、이에따른 金뿔럭의 崩壞를 機로 金塊市勢는 大暴騰을 演出하엿는데 그後에는 大幅이엇시 小幅變動에 推移되어왓는데、世界가 모다 金本位로부터 離脫은 하엿스나、그래서 金本位圈은 縮小狀態가되엿스나、이는 도로혀 金保有의 必要를 痛感케하야 軍擴中心의 赤字인플레不可避한각國은 金本位制때以上의 金價의 重要性을 띄게되엿스므로 金價의 將來는 一層 有望하다할수잇는데、이는 不換通貨의 膨脹의 度가 더하면 더할사록 一層 金價高에 拍車를 加할것이며、軍需工業의 殷盛에依한 諸金屬의 狂騰도 또한 金價에 影響하는바잇슬것이다。그나마 政府는 産金國策上으로보아、또는 金密輸出防止對策으로서도 早晩間 金買上價格을 再次 引上할것으로 期待되느니만치 金價는 今後도 續騰步調를 밟을것은 거의 틀림업다할것이다。

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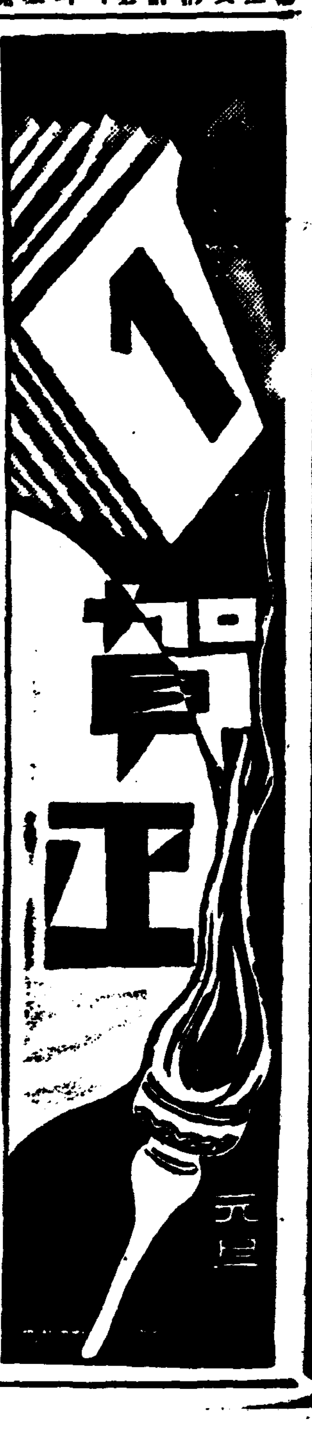
限産의 强化、世界的消費增大에 依한 需給改善으로 고무는 續騰步調를 示하야 新嘉坡現物은 三十二仙臺를 上拔하얏는데 今後에잇서서는 米國의 消費增大는 同國의 自動車工業의 隆盛과함께 틀림업시 期待되는바이며 또는 歐洲政情不安에 依한 各國의 軍擴競爭은 다시 强化될모양이므로 고무의 消費量增加는 또한 明白하므로 今後에도 고무는 依然 高價를 繼持할것은 明白하나 다만 今後의 需給關係가 너무도 逼迫을 告하야 이以上의 暴騰을 演한다면 限産委員會에는 消費者側의 委員도 잇스므로 반드시 限産率을 緩化할것이니 天井不知의 勢로 續騰하리라고는 期待키 어려울것이다。그러나 今後에도 二、三仙쯤의 昂騰은 더잇슬지도 모를것이며 또한 限産率이 多少 緩和되더래도 相當한 高價는 繼持할것으로 보아야할것이다。

砂糖

佛國平價切下를 契機로 暴落을 告한 砂糖도 漸次 回復步調로옴겨 倫敦市況의 漸高騰과 關稅引下問題의 決定과 等으로 드듸어 十一圓臺를 回復하엿는데 外糖輸入採算上으로 十一圓二十錢이 極限이라고 할수잇스나 海外高가 繼續한다면 아에 따라 騰貴될것은 勿論이며 倫敦은 世界的需給改善及 戰時形態에의 食料品高必至豫想等으로 前途는樂觀視되므로 비록目前은 多少의 反落이잇다하드래도 大體로는 好調일것으로 觀測하는편이 만타。

生絲

新年의 生絲動向은 무엇보담 生絲自體의 需給關係에 잇느니만치 年初에發表될 十一年度 秋蠶實收高가 보다 多少 弱氣的이라고 하드라도末나、縱使十一年度의 需給數字가 多少 弱氣的이라고 하드라도米國의 好景氣必至와 歐洲財界의 明朗化는 需要增加를 必然的으로 招致할것이고 國內用에도二月의需要期에 큰期待를 두고잇는것만큼 特筆할 悲觀材料는업스므로 突破材料가 업는限七百圓을 繼持한것으로 보이는데 더욱이나 他商品에比하야서는 割低의 感도 不無하므로 市場人氣와 함께 前途高價로보아야할것이다。



瑞興 金光善
道評議員 許洹
李昌翼
東賓樓
瑞興邑 濟衆醫院 醫師 安泰熙
瑞興郡廳
瑞興公普校 職員一同
瑞興 李光翼
金炳善
瑞興邑 學校評議員 李成魯
瑞興稅務署
瑞興三共釀造場
瑞興煙草耕作組合
入雲商店 李雲[illegible]

東江樓
中村高生
姜德三
瑞興 貰貸自動車部
司法書士 金璟榮
白璧茹壯
瑞興 醫師 鄭熙淳
瑞興 友仁堂藥房
司法書士 尹武炳
瑞興 朴淑子
瑞興 金昌京

厚昌
厚昌土曜會一同
厚昌郡廳職員一同
佳山 釀造場
厚昌金融組合 東興支所職員一同
厚昌邑內 和信連鎖店 電話〇三二番
厚昌 警察署
佳山 鄭昌道
陣坪市 東光寫眞館
南新裕和會
平北東興 公醫 李吉叟
七坪市 公醫 義山醫院
厚昌面職員一同
厚昌金融組合職員一同
陣坪國有林保護組合
陣坪市 山農共扇組合

七坪 光月堂
新乫坡 劉熙慶
佳山 許鎔商店
東興市 吉仁觀商店
厚昌邑內 姜秉琦
七坪 李宗敏
東興 韓象烈
新乫坡 金致善
東新 洪致寶
七坪 李成運送部
臨竹 韓喆熙
厚昌郡內 司法書士 田秉禝
東興郵便局
東興市 高原商店
厚昌郡內 韓昌建
厚昌邑內 朱新善
厚昌邑內 崔鍾珍
厚昌邑內 宋官信
七坪 維信藥房
陣坪市 金信謙
陣坪市 李東植商店
陣坪市 池重弼
陣坪市 李寬[illegible]
厚昌邑內 月星時計店
七坪 李相昌
七坪市 田喜吉
七坪市 金嚇三
佳山 崔承鎬
佳山市 中東茂商店
七坪 平讀旅館
水節里 林延彬
東興市 三工商會
佳山 林茂彬商店
佳山市 許山信
七坪 李鍾明
謹賀新年
李春基
延禧釀造場

躍進日本 謹賀 優良

メリヤス

純毛メリヤス
綿布加工品
羅紗製品
タオル手袋靴下
洋品雜貨

毎月商報發行商店名捺印申込ニ限リ送呈

荷捌

ツエルム印メリヤス製造發賣元

現金問屋 ㋚ 前田貞治商店

名古屋市中區八百屋町一丁目

電話本局二三三二番・振替名古屋八三三番

百貨大特價

大脇特製最高級ホルモン蓄音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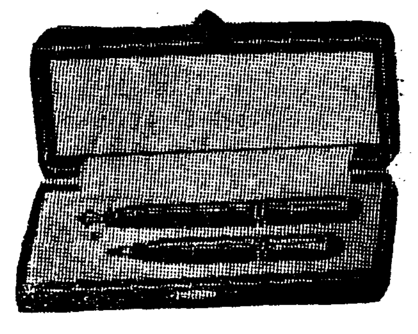
高音優美堅牢にして舶來品を驅逐する國産品

タブル一〇六號 定價金二十圓 特價 八圓八十錢 高級一色レザー張七分強力モーター 幅九寸五分奥行一尺二寸五分厚四寸五分

ベークライト針入付 自働ストップ付 一一〇號 定價三十五圓 特價 金十五圓 コロンビヤ三色レザー張 付強力モーター最上圓盤 付最新式自働反響板ステー、幅九寸五分奥行一尺一寸五分厚五寸

カタログ進呈 各種繪入滿載詳細御申込下さい

御物用に最適



萬年筆とシャープペンシル組合セケース付

A……一圓八十錢

B……二圓五十錢

御一報次第直チニ代金引換ヲ以テ御送リシマ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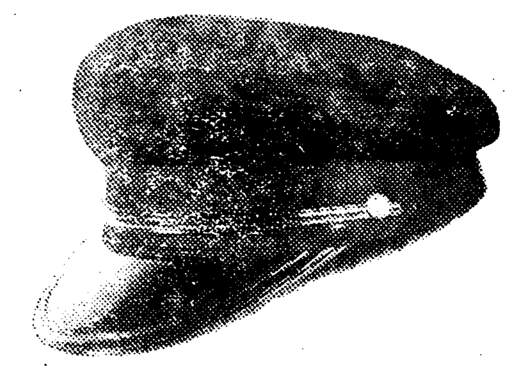
名古屋市千種驛前一〇〇

合資會社 大脇商會總本店

電話中局四〇〇六番 振替名古屋三四八五番

キクイカリ印帽子製造總發賣元

冬物 總カタログ進呈



製造直賣

中折帽子
學生帽子
鳥打帽子
シール東洋帽子
スキー帽子
毛絲帽子
冬小供帽子各種

名古屋市東區花田町

㊝ 三浦製帽所

電話東二五六五番 振替名古屋一五一一番

菊谷商店

カタログ進呈

卸問屋

名古屋市西區伏見町三

菊谷商店

電話本局三四五四番

振替名古屋一八五三一番

有利に展開する養鷄

育雛六韜三略書 無代進呈

頑健無比な成田の初生雛は育雛法に依り管理すれば育たないものはない 初生雛特價表と共に急送す

名古屋市中區廣路町石佛

成田養鷄場

電話東五一一四番

柴田商店

カタログ進呈

特約店募集

海軍工廠遞信局指定納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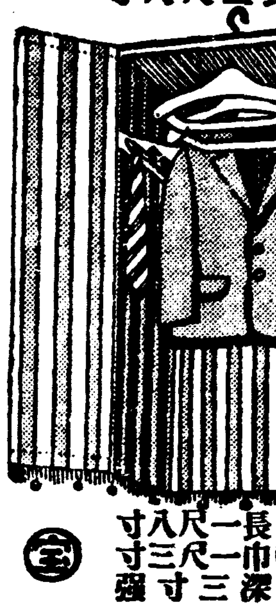
名古屋市中區古澤五丁目

合名會社 柴田商店

電話南局二一三一番・振替名古屋二一三一番

輕便洋服收納器

一個宛ダンボール函入折疊式 長三尺八寸



輕便洋服收納器 (服掛三個付) 一個代金二圓九十錢 (二個小包送料一圓〇五錢)

本品은西方의이카텐을치서버가고치기가마음대로되며鮮洋服三件以上걸수잇고와이샤쓰넥타이等을걸수가잇습니다取扱키輕便하고體裁조코只今大流行의理想品몬지안묻고늘깨끗한옷을입을수가잇습니다

(折疊寸法) 長一尺一寸 巾三寸 深三寸強 ㊄

柱掛洋服收納器 (服掛一個付) 一個代金 一圓八十錢

(特約店募集規則書送呈)

小包送料 一個六十七錢 二個九十三錢 三個九十九錢 四個一圓〇五錢

本品은 洋服一着分과넥타이 와이샤쓰等一切를 收納할수가잇는優美한것입니다

圖入寸法 長一尺六寸 巾七寸 折疊式一個宛ダンボール函入

名古屋市中区老松町

伊藤利商店

振替名古屋一〇三七七番 電話中三九九六番

優良防寒品

責任附不合意品換返金自由

어째싼가

全部自己工場에서生產하야 大衆的으로直賣함으로利用하라

驚異の大産、大阪、人氣の渦 何處へ行っても話の種 絶對に安い市價の半値

カワウソ獺襟毛皮附ベロアーオーバ

襟 毛附

色合、紺、黒、各ダンボール箱入一着値

丈鯨尺 二尺八寸 二尺九寸 同値、片前型 十七圓六十錢

丈鯨尺 三尺一寸 同値、兩前型 十八圓六十錢

表生地極上ベロアー、裏絹朱子、一見四五十圓の高級品

大衆防寒グランド羅紗オーバ

丈鯨尺 三尺一寸 同値、一枚値 四圓八十錢

高級霜降新型厚ーオバ

片前型 斜線柄 二尺八寸 二尺九寸 同値 十四圓

兩前型 斜線柄 二尺九寸 三尺一寸 同値 十五圓

色合鼠、茶、生地高級 ベロアー、絹朱子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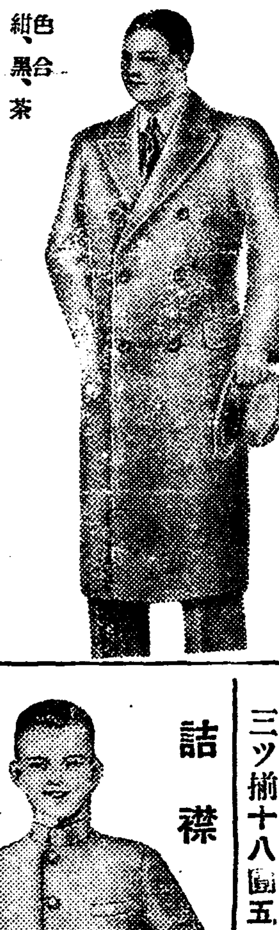
本ラクダ羅紗高級オーバ

色合 紺、黒

丈鯨尺 二尺八寸 二尺九寸 同値、片前型 十八圓

丈鯨尺 三尺一寸 同値、兩前型 十九圓

表本ラクダ生地 本絹朱子裏別高級仕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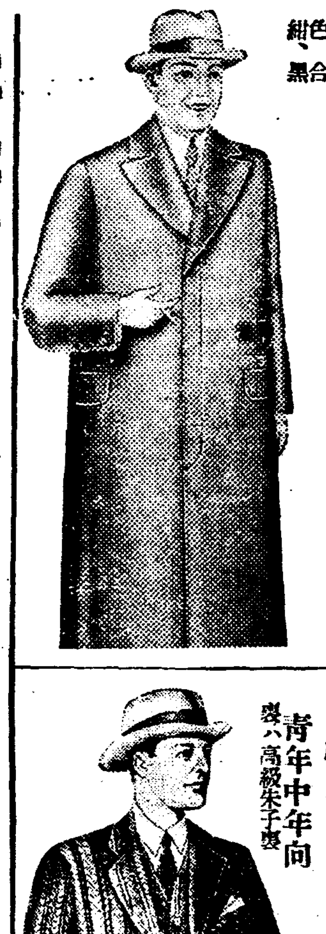


極厚高級メルトンオーバ

色合 紺、黒、茶

丈鯨尺 二尺八寸 二尺九寸 同値、片前型 七圓八十錢

丈鯨尺 三尺 同値、兩前型 八圓二十錢



實用特製羅紗オーバ

色合 紺、黒

丈鯨尺 二尺八寸 二尺九寸 片前型 五圓五十錢

丈鯨尺 三尺 兩前型 五圓九十錢

紳士用防寒トンビ

本ラクダ地 一枚 金十四圓

高級ラクダ地 一枚 金二十三圓

裏本絹朱子總裏附 本ロスキン地 一枚 金十九圓

高級品ニテ極上ロスキン地ニテ本絹朱子總裏付キ市價三十圓以上ノ品ナリ何レモ鯨尺三尺四寸、三尺五寸、三尺六寸

紳士用ウーステツト地、背廣服

上品三ツ揃シルバー裏附 十六圓五十錢

特品三ツ揃アルパカ裏附 十九圓

本年流行ノ紳士ウーステツト最新柄薄色地ニ杉織、縞柄、格子柄等アリ、年齢御指定下サイ大型中型小型同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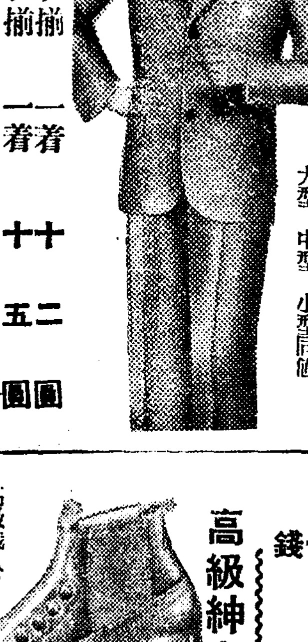
冬向サージ背廣洋服

三ツ揃高級品 一着 十八圓

三ツ揃特品 一着 十二圓五十錢

紺 黒 紗合

仕立入念 一般同品



紳士用メルトン背廣服

羅紗メルトン紺、黒 大型、中型、小型同値

上品 三ツ揃 一着 十二圓

特品 三ツ揃 一着 十五圓

紳士用特ピツケ地背廣服

小ミジントアゼ柄の優良品ナリ 裏ハアルパカト絹朱子裏付

大、中、小同値

特品 三ツ揃十八圓五十錢

詰襟 サージ服

上品 七圓

特品 九圓八十錢

色合紺、黒 大中小同値

縞スコツチ背廣洋服

青年中年向 裏ハ高級朱子裏

三ツ揃一着 十四圓

大型、中型、小型同値

高級、總皮革、大長靴

紳士用、乘馬用ノ高價品ナリ市價一足必ズ二十五圓以上ノ長靴ナリ

總牛皮革長靴 一足 九圓五十錢

堅牢無比 青年訓練 總革靴

此靴ハ丈夫ナコト軍隊用靴ト同樣ニテ軍隊法式ニ原料モ極上テ製底ハ牛皮ニデ金底ハ部ミ込金具ニ皮ヲ久耐ハ鐵チ打ツ事ヲ…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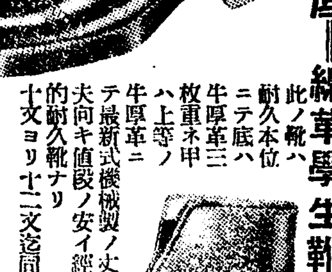
上等黑總皮製

鬼三枚底=總革學生靴

耐久絕對 二ケ年以上

此ノ靴ハ耐久本位ニテ底ハ牛厚革三枚重ネ甲ハ上等ノ牛厚革ニテ最新式機械製ノ丈夫向キ値段ノ安イ經濟的耐久靴ナリ 十文ヨリ十二文迄同値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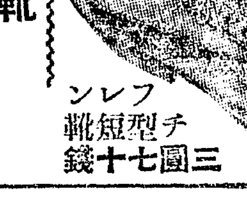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流行尖端 總革フレンチ型

本品ハ絕對ニ機械ヲ使用セズ全部手製ナリ

上等總皮底

フレンチ型編上靴 四圓二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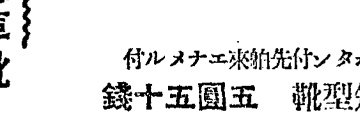
フレンチ型短靴 三圓七十錢

高級紳士 禮服用 總革靴

高級職人ノ手製ニテ原料等ハ何レモ最良品ヲ特選セリ誂向ナレバ一足十圓以上ノ品 十文ヨリ十一文半迄同值

深型靴 四圓五十錢

極上等總牛皮底品質保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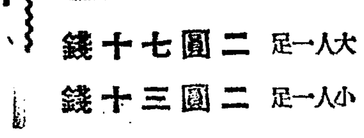


短型靴 五圓五十錢

ボタン付先舶來エナメル付

中學生專用 指定革靴

一足 三圓五十錢



女學用總革靴

大人一足 二圓七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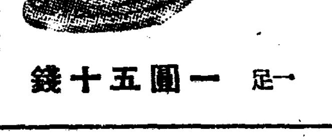
小人一足 二圓三十錢

晴雨經濟靴

(化學ノ精華、人巧ノ妙) 最新發明

一足 金二圓

最新發明ノ絶對ニ水雨ニシミズ發汗セズ體裁良クシテ紳士ノ雨天靴ナリ一見シテ其考案に一驚セザル者ナシ



晴雨經濟 女學生靴

一足 一圓五十錢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電停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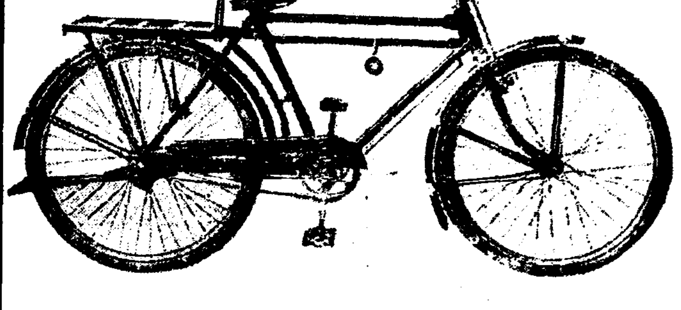
合名會社 金城商會販賣部

製品一新　年躍進大名古屋

精到良品＝新品保證＝市價ヨリ格保證

驚く程値打な實用自轉車

五百臺限り大投賣！



（各種價格表進呈）前後ブレーキフリー式（定價三十五圓）
ニウケ、スタンド、半ケースベル付組立箱入り

大特價一臺十九圓八十錢

●全ケース付……一圓高
●ユースター付……三圓高
●ハンドブレーキ式　二圓八十錢高

御註文は手附五圓送附の事殘額代金引換のこと。組立箱入り荷造料無料荷造運賃負擔
眞に品質の良品經濟的なる事は絶對保證致します世上安物とは違います
信用本位の近藤發賣車です御信用の上御注文下さい

名古屋市區東魚町三
各種自轉車卸商
合資會社　**近藤鐵商會**
御送金は……振替名古屋一七三八〇番
電話東④〇九〇二番

稀有の好況に恵まれた養鷄

素質優良にして
利益を增大する
服部系多產鷄

最善を誇る生產設備
種鷄は最善の管理たる飼飼法を採用
五萬坪の種鷄放飼場を直營し
最新式の孵化設備月產能力五十餘萬

月刊時報　無代進呈

名古屋市中區廣路町四二
服部養鷄園
電話東四二七七番
分園　豐橋市前田南町　電話四八三一番
種鷄放飼場　西加茂郡三好村東山　電話三洞三好五二番

日本で一番有名な　養鷄之日本

謹賀新禧

新年號は素晴らしい發行
特別附錄「孵化の順序と景氣表」添　一月號附
一部　二十錢　半年一圓七十錢　一年三圓三十錢　御申込は振替か爲替か切手代用にて

景品は養鷄書大提供

養鷄參書なら何んでもあります是非御用命下さい一圓以上お買上げの方に自轉車蓄音器時計等を差し上げます　詳細はハガキにてカタログ請求下さい　直ぐ送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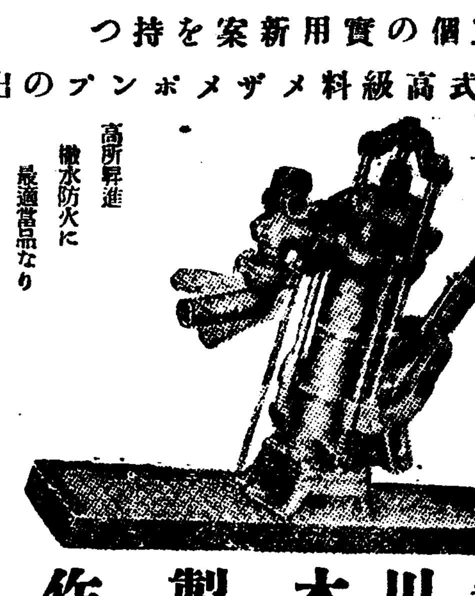
名古屋市中區鶴舞公園電停前
合資會社　**養鷄之日本社**
振替名古屋一八三九番

コノ廣告切取リ切手十錢封入御申込の方に養鷄之日本一部進呈します

川本式ポンプ

TRADE MARK

一臺に三個の實用新案を持つ
川本式高級料メザメポンプの出現!!



好評！ 只今滿天下の「ポンプ」界を斷然「リード」する
「川本式」の商標登錄であります
模造品あり上記商標に御注意を乞ふ

高所昇進
撒水防火に
最適當品なり
『カタログ進呈』
登錄商標『川本式』ポンプがこんなに好評！
『運轉輕快』で『品質本位』『價格低廉』

川本式ポンプ製造發賣元
名古屋市中區大池町一丁目　振替名古屋二五七七番
電話中局長(3)〇四四五五番　受信略號ナゴヤポンプカワモト
川本製作所
特約店　名古屋市中區門前町一　**岡谷合資會社銅物部**

（專賣特許實用新案）

インキを塗らず數年使へる　類似品有マーク（シヤチハタ印）と御指定下さい

御買上は　全國著名印判店　文具店　百貨店へ

製造本舖　名古屋市岩井通　舟橋商會

◉鮮服向オーバー（三尺二寸同値　三尺一寸）

日本毛織製品優秀品
優印　茶黑　七圓五十錢
地印　茶黑　五圓八十錢

◎學生外套　二尺……二尺六寸迄

外套
特印　二尺　五圓（二寸高三十五錢增）
オーバー
地印　二尺　四圓二十錢（二寸高二十錢增）
【日本毛織製品】黑二尺四圓（二寸高二十錢增）二尺四寸迄

毛織物問屋
△一　野村總本店
名古屋市西區伏見町五丁目三
電話本局一九二六番
振替名古屋八三四六番

商報無代進呈

[illegible]
…當店에서負擔함

防寒並型ジャンマー

折襟型平折型　各一枚値
絹コール天　一枚　一圓七十錢
別珍特品　一枚　一圓七十錢

高級防寒ジャンマー

羅紗厚地スポーツ型　手袖腰毛糸ゴム附　三圓八十錢

純毛水兵通學服

上下組合一着値

各學校指定型
尺八寸　一二年用　四圓
二　尺　三四年用　四圓二十錢
二尺二寸　五六年用　四圓四十錢
二尺四寸　女學生用　四圓八十錢

防寒頭巾附羅紗外套　金釦附

極厚地黑羅紗

各頭尺寸法　各一着値
二尺二寸　十一二歲用　四圓九十錢
二尺四寸　十三四歲用　五圓五十錢
二尺六寸　十五六歲用　五圓八十錢
二尺八寸　十六七歲用　六圓四十錢
三　尺　十七八歲用　六圓八十錢

黑羅紗通學洋服

尺二寸　一二年用　四圓
尺三寸　二三年用　四圓二十錢
尺四寸　三四年用　四圓四十錢
尺五寸　五六年用　四圓六十錢

羅紗男學生オー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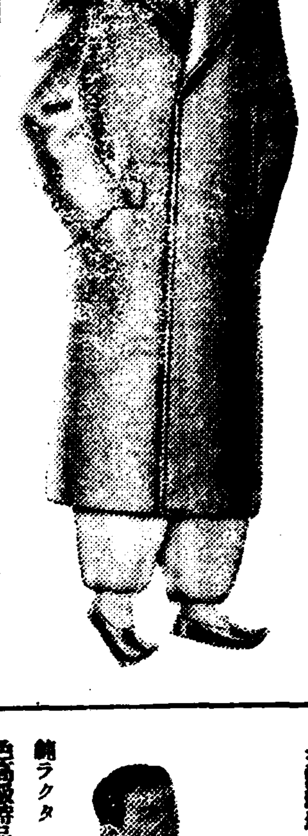
厚地防寒用色黑、紺、茶有り　兩前高級仕立　各一着値

尺六寸　幼年用　三圓六十錢
尺八寸　一二年用　三圓八十錢
二　尺　三四年用　四圓十錢
二尺二寸　五六年用　四圓四十錢
二尺四寸　高等用　四圓七十錢

小學生用羅紗マント

各頭巾付　男黑色　女エビ、紫紺　各一着値
二　尺　一二年用　三圓
二尺二寸　三四年用　三圓二十錢
二尺四寸　五六年用　三圓五十錢
二尺六寸　高等用　三圓八十錢

朝鮮向羅紗オーバー



上品厚地メルトン新毛繻裏付　一着　六圓三十錢
特品厚地メルトン洋朱子繻裏付　一着　八圓五十錢
各寸法　鯨尺二尺八寸……二尺九寸……三尺同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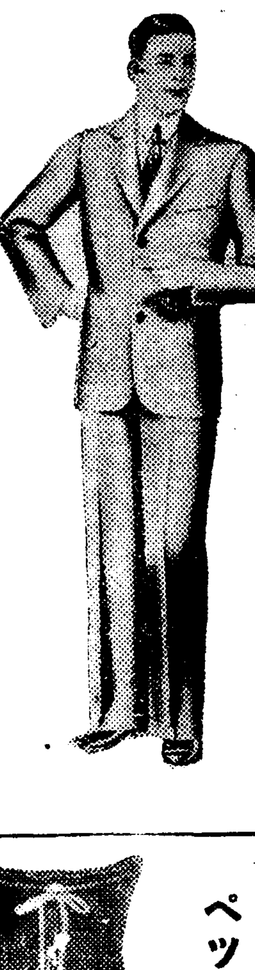
三六號型バンド付霜降厚地オーバー

兩前型　上品　三尺、三尺一寸　金十圓五十錢
兩前型　特品　三尺、三尺一寸、三尺二寸　金十五圓七十錢

別誂仕立禮式用モーニング

大特價三揃組合　金三十二圓
生地本ロスキン　本絹繻裏　縞毛高級極コールズボン
身長　體重　必ず御指定下さい

最高級紳士三揃洋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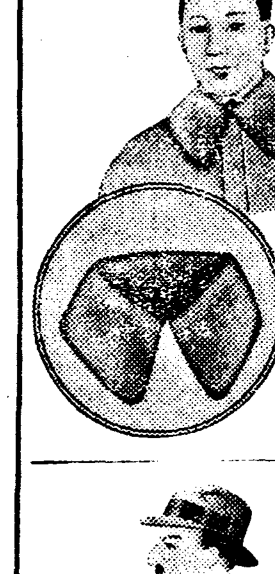
高級品　純毛ウーステッド織無地　裏縫本仕立　本アルパカ裏　一着　茶紺色二種
金二十九圓

高級霜降新型極厚地オーバー

特品　片前仕立　本絹朱子裏　金二十八圓
特品　兩前仕立　上同　金二十九圓五十錢
各鯨尺　二尺九寸三尺　三尺一寸同値

カワウソ代用

トンビ衿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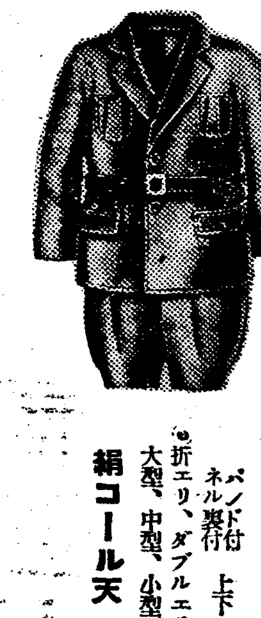
一本　一圓八十錢

カワウソ代用

防寒オーバー衿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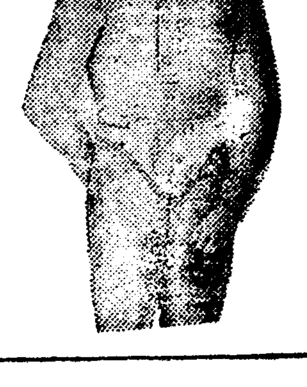
一本　三圓八十錢

防寒別珍洋服



バンド付ネル裏付　上下一着　三圓五十錢
●折エリ、ダブルエリ、乘馬ズボン、長ズボン大型、中型、小型何レモ同値御指定ヲ
絹コール天　バンド付ネル裏付　上下一着　三圓八十錢

純毛メリヤスコツトン



鍋ラクダ色高級特品
一號特大　三圓
二號大型　二圓八十錢
三號並型　二圓五十錢

流行變柄

三色柄
附高級品
一枚　三圓二十錢

高級針拔柄アンダー

極細厚地品
一枚　金三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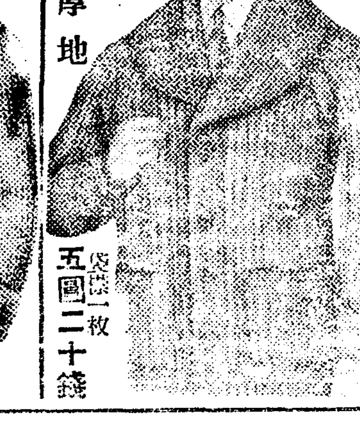
防寒トツクリ型

霜降黑　鼠ヲクダ色
アンダー一枚　一圓九十錢

ペツチ

極厚地　金二圓五十錢
細厚地　金一圓九十錢
各一枚値

防寒スエター



外出用上着
鬼スエター
極大厚地
黑、鼠、茶色
裏附一枚　五圓二十錢

外出用袋襟鬼スエター

バンド附
金五圓五十錢　一枚値

首カラー型

極厚地
トツクリ
アンダー
極太　一枚　三圓五十錢

全州

全州府大正町一丁目 內外諸紙類 完興泰紙物商
朝鮮總督府指定 中外書院 主 陳相庸 電話三三四番

全州府本町一丁目七十五番地 全北朝鮮紙温突紙一手販賣元
朝鮮紙業株式會社 電話三五三番 振替京城二五二八二番 私書函二一番

全州府大正町二百三 全羅北道會副議長 辯護士 姜完善

中樞院參議 印昌桓

全州府大和町 印昌燮

全州府大正町四丁目五三 辯護士 金鍾根 電話三三八番

全州郡鳳東面 全北道會議員 李元求

全州府多佳町 鄭運得 電話四六番

全州府高砂町 鑛業家 鄭鎭熙

全州驛前通り 完一堂書店 南鮮印刷所 代表 徐字容 電話五四六番 振替京城五一七一番

六番タクシー
全州タクシー

全州府大宮通 スターカフエー

全州府高砂町 辯護士 趙南石
辯護士 久永麟一

全州商工會議所 會頭 大木良作

全州府錦町通 三和商店 主 白南泰 電話一八番 振替京城一三四三〇番

全州府大和町一九八 海産物委託販賣 梁聖基 電話五三三番

全州大和町 製鹽貿易 三五商會 朴文鎬

全州東門外 辯護士 姜哲模

上關面職員一同

大本山寶石寺
大本山威鳳寺

全州郡所陽面海月里 元岩製紙工場 主 裴今石

全州郡鳳東面 鳳翔産業組

全州府初等學校職員一同

全州醫師會

忠誠堂醫院
鳳翔醫院 院長 梁海龍

全州郵便局前 全州醫院 院長 柳 諾 電話四二

朝鮮金融組合聯合會全羅北道支部

全北全州驛前 南鮮メッキ工業所 オーチバイ商會 電話五六六番

全北全州南門內消防組隣 文明堂印舖 梁哲榮

全州七曜會

完州郡廳

全州府六和町 全州府會議員 崔昇烈

全州府淸水町 柳永昌

白羊寺全州布敎所 布敎師 郭石城

全州府完山町 殷椿基

全州府大正町三丁目 合資會社 完興洋靴店 主 吳斗煥

全州府大和町 綢緞布木 李仁基商店 電話三一九番

全州穀物商組合

全州府大正町六丁目 米穀特米 金甲善商店

朝鮮全州府本町二丁目 絹織物綿絲布商 興昌商會
絹織物綿絲布商 源昌商會

全州府曙町 全一商會 代表者 宋宗燮 電話一四一

全州府高砂町 司法書士 金熺洙

全州驛本通 百補丸代理 湖南藥房 金形洙

全州本町一丁目一三九 朴榮鎬

全州蠶產製絲組合 理事 鄭台亮

井上洗濯所 主 金鎭文

朝鮮全州府高砂町三六二番地 文化商會 電話全州三〇八番 振替口座京城二五五七四番

全州地方專賣局 職員一同

完州郡鳳東面 鳳東精米所 主 金恩俊

全州府田町通 金物陶器食料品 金正文商店

全州府八達町 建築ペンキ塗諸美術看板 開拓社 主 尹德重

全州府劇場通 湖城旅館 電話五六三番

全州府曙町 全北麺子株式會社 電話六三八番

全州稅務署 朝鮮酒造組合

全州府內 全州料理屋組合

全州券番

全州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全州公立高等女學校

全州農業學校 職員一同

全州警察署內 土曜會

全州本町 興信商會 電話三五四番

全北企業株式會社 全州支店支配人 金英斗

完州郡龍進面事務所

濟南堂藥房
婦人公司

全州府醫前町 金奉喆 電話五〇三番

全州府高砂町 司法書士 文壽煥

五一精米所 主 李俊 電話三三〇番

全州府本町一丁目 崔萬興

全州府淸水町九二 金樂天

全州府本町通 永信堂乾材局 主 柳平秀 電話四八番

朝鮮全北全州府本町一丁目 各種自轉車及附屬品一切 取次 尹快成自轉車店 電話三〇六番

定州郡所陽面 大興製紙工場 主 姜敏石

全州府大和町 柳琪實

慶全線全州驛前 全共立國際運送店 主 金海成 電話四六二番 私書函一七號 振替京城八八九六番

全州曙町一八九 米穀精米 五共商會 主 金昌琉

全州郡大和町 全一材木店 電話二六一番

全州驛本通り 豊城旅館 電話三六一番

全州府大正町四丁目三番地 平安旅館 電話七〇九番

達町 李朋來

全州高砂町 光星堂製藥舖 主 金一鳳

全州府淸水町 權彝元

多佳町 白奎植

全州府本町二丁目 南鮮紙物商會 電話四九番

全州府多佳町 朴炳善

全州南門市場通 綿絲布絹織物 順昌商會

全州府大和町 李錫柱

全州驛前 共榮商會 李壽同

朝鮮酒釀造業 朴燦皓

食料雜貨 辰美商店 主 金甲同 電話五二九番

全州府大正町 ミシン會社全州分店 主任 李建五

全州南門外 南門書籍商

全州府本町通 大正自轉車店 主 河己郞

全北東山 東山自轉車店古物買入 李順求

全北東山 精米業 宋玉南
東山消防組小頭

全北東山 中華館 全永彬

全北東山 皮革製造業 金黃山

全北東山 李漢述

全北東山 參禮館 主 朴學來

全北東山 中華料理 東山館 朴萬玉

全北東山 精米業 宋判玉

全北東山 東光理髮館 李斗叶

金川

金川郡廳員一同

朝鮮中華料理 大盛館 朴貼龍

京義線金郊驛前 金川トラック運送合資會社

金川郡古東面籍邑里 鷄井鑛山

金川郡內務主任 金泳錫

金郊穀物檢査所 近藤豊

金川金融組合理事 佐佐木龍雄

金光德

京義線金郊驛前 穀物雜貨 酒類食料 東亞商店 主 成光鳴

共濟醫院 金允熙

外柳面文谷里 文修協同組合

市邊里 太陽自轉車舖 李鍾鳳

助浦市 東光商會 書籍部

助浦市 劉元七

金川警察署員一同

金融組合職員一同

山外面事務所職員一同

金川郡助浦市 助浦穀物商組合

金川自動車部 金鎭聲
金川、市邊里、三西面往復 伊川、鐵原、新溪連絡 金川溫井院間往復 海州連絡

京義線金郊驛前 和洋雜貨 酒類食料 金陵商會 主 全一鎭 支店 江原道伊川邑內

助浦市 穀物貿易商 黃海精米所 禹相根

金川郡守 朴利淳

穀物商 金雲鶴

金川警察署長 吉村久顯

外柳面事務所 職員一同

金郊代行倉所 金郊穀物組合 松井

金川面事務所 職員一同

金川郡西泉面

西北面事務所 職員一同

鏡城

咸鏡北道鏡城郡朱乙溫面直洞 生氣嶺鑛業所專屬 丸金組
主任 金昌龍 李青玉
係員 趙成萬 全承龍 全尙龍
運搬業 石炭販賣

咸鏡線生氣嶺驛前 生氣嶺鑛業株式會社 生氣嶺鑛業所 物品供給所 電話三三番 私書函總府局第三號 振替京城二六二一番

咸北鏡城郡朱乙溫面直洞里生氣嶺鑛業株式會社 人夫物品供給 親和組 主 全得春

飲食店、食肉店、飯場、理髮屋等指定外에 物品供給所、社宅充分히設備하고一般 人夫에對하여親切히도모함을主旨로하는生 嶺炭坑自今六百名坑夫를增員코저하는大生氣的 募集中이오百聞不如一見 次來坑하시오 我等에安樂한生活地生氣嶺炭坑에

人夫工賃
掘進夫最高五四八
採炭夫最高四〇三
支柱夫最高一七六
軌道夫最高一六〇
運炭夫最高一六四

鏡城郡廳

咸北鏡城郡守 李贊郁

私立生氣嶺學校 校長 熊谷不二雄 外職員一同

淸東醫院 裴憲

咸北鏡城 獨津漁港修築期成會

鏡城醫院 院長 京城醫學士 金炳羽 副院長 醫師 尹學洙 電話一六番

鏡城邑內 司法書士一同 咸鏡治 全在煥 全給鉉 姜昌元 黃正憲

鏡城西門外 勝岩釀酒場 主 尹泳祿

私立獨津學校 校長 朱宰衡 外職員一同

鏡城驛前 尹弼秀製材所

鏡城北門通 和洋家具 土木建築 砂子土管 尹自文工務所

鏡城中央學院 院長 外職員一同

把撥

鏡城城內 福利釀酒所

朝鮮咸北鏡城南門通 會席料理 義合園 主 王 電話三〇番

鏡城書院 金河璟 電話四七番

鏡城邑西門外 信友洋服店 主 金正昌

鏡城西門外 果樹栽培 全美園 主 全在

鏡城城內 東興自轉車店 精米所新設 主 崔斗俊

鏡城邑內著名洋服店(無順)
日新洋服店 東亞洋服店
鏡湖洋服店 昭和洋服店
北鮮洋服店 新興洋服店
革新洋服店 永興洋服店

豐山郡把撥市 燒酎醸造元 泰興酒造合會社 社長 全泰獻 專務 崔三俊

豐南金山長洞分業所 白武俊 全容源

豐南鑛業所 李容瑞

安山面學校評議員 楊錫驥

安山面議會員 綢緞綿布商 趙宗熙

把撥市 綢緞綿布商 永裕號

把撥市 和洋菓子 綿布商 李秉均 李秉獻

把撥市 米穀魚鹽商 朱台鉉

把撥市 石油 柳俊實

把撥市 李炳善

把撥警察官駐在所長 趙昌元

安山面協議會員 金昌奎

把撥市 米穀魚鹽商 朱炳源

把撥市 米穀魚鹽商 梁榮柱

把撥市 湊雜商 林昌校

把撥公立普通學校長 井原英一 外職員一同

陽峴里 張龍日

長洞金山事務所 李泰雲

把撥市 朱寅在

把撥市 共友百貨店 主 李春炫 李國泣

寧海

寧海親睦會

盈德郡柄谷面 榮東鑛山 鑛主 田溶沃 同 田次慶 同 朴珉亨

盈德郡柄谷面 白鹿鑛山 鑛主 權炳岱

盈德郡柄谷面 有山金鑛 代表鑛主 服部兼二 鑛主 張錫鼎 同 張星列

金永鑛山 鑛主 李達伊 金永圭 金永道

柄谷面事務所 職員一同

柄谷面柄谷洞 安頭相

柄谷面金谷洞 [illegible]

柄谷面 [illegible]

寧海面事務所 職員一同

慶尙北道盈德郡寧海面大津 丸和運送店 取締役社長 戒林平

寧海面城內洞 永信洋服店

綢緞綿布 各種雜貨 共益商店 主 李重奎

寧海面城內洞 綢緞綿布 同種雜貨 裵翊純商店

寧海面城內 朴正允

寧海面大津洞 寧海漁業組合 理事 松尾吉人

寧海面大東洞 金斗鎭

丑山面 陶谷鑛山 鑛主 李俊衡 同 權承熙

丑山面事務所 職員一同

丑山漁業組合 理事 松永銀重

丑山港 武田安秋

丑山港 尹永[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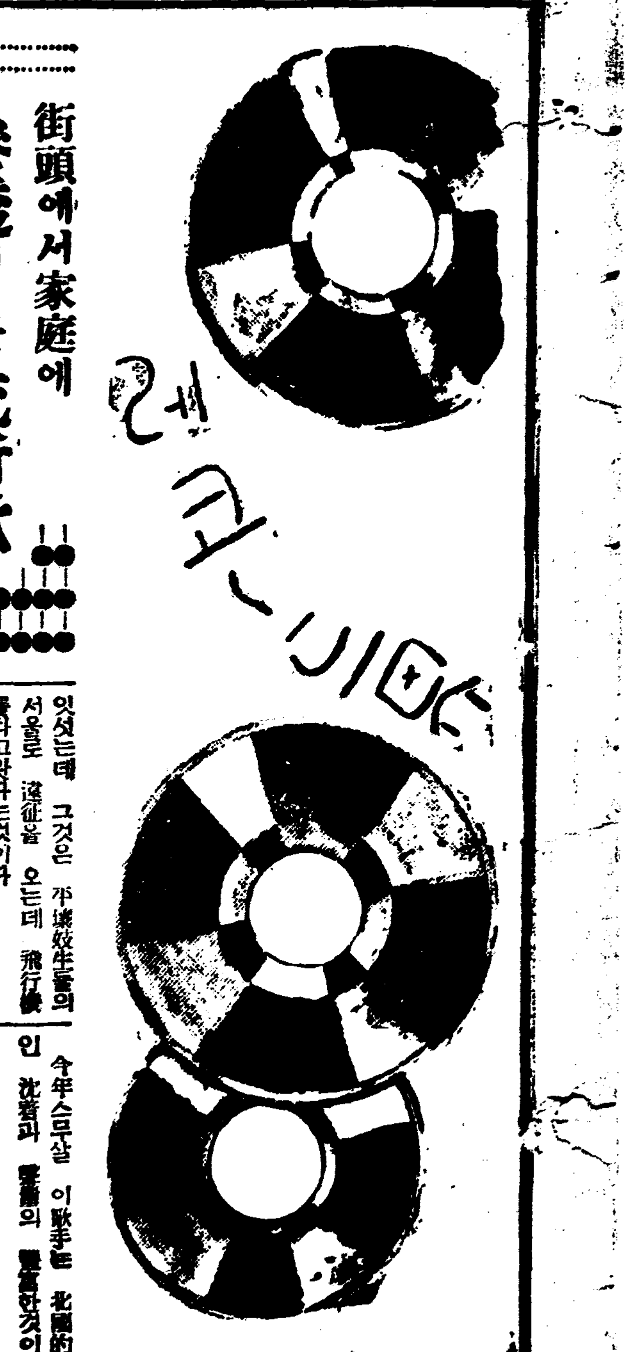
丑山面景汀洞 金井讓

丑山面景汀洞 朴魯淑

丑山面景汀洞 尹[illegible]

丑山面景汀洞 朴[illegible]

蒼水面事務所 職員一同



街頭에서家庭에 滲透되는流行歌
量은늘고質은低下

流行歌는 그것이 藝術이냐 안이냐를 別問題로하고 實로엄청난 氣勢로 進出되고잇다 이것은街頭에서 家庭에서 甚至於 아이들의 코노래속에서까지 流行歌가 얼마나 굿세인힘을 가지고 우리네의 生活에 滲透되고잇다는것을 짐작할수잇다。

이것은 훌륭히 大衆娛樂의王者가 되엇다。

現在 朝鮮안에 支店을 두고잇는 큰레코-드會社에서는 거이 全部가 所謂 朝鮮語盤이라는것을 만들기에 全力을 다하고잇다 各社가 競爭하며 優秀한 歌手의養成과 歌詞作家를求하고잇다。

한사람의 人氣歌手가 나게되면 그歌手의 吹込版은 적어도 五萬枚以上의 販賣高를 올리고잇스니 實로 놀라운數字라하지안흘수업다 現在朝鮮內에 팔려잇는蓄音機臺數는 各社것을 合하야約三十萬臺가 잇스니 한臺의蓄音機에는 十枚以上의 레코-드는반듯이 딸아단이게 되며 流行歌라는것은 한시절 번득하고 지나가면 그다음에는 죽어버리므로 한장의 레코-드는 五六月個만지나면 아모리 조흔流行歌라도 실증이나버리게되니 레코-드하나가 새로 나오면 웬만하면 蓄音機數대로 팔리게된다。

이리하야 朝鮮은 레코-드市場으로도 조흔 對象이되여잇다。

레코-드는 대개가 各社에서 文藝部라는것을 두어서 거긔서 歌手養成과 歌詞、作曲等을 마타보는데 요지음은 東京方面에 流行하는 歌詞와 曲調가 그냥 翻譯되여서 吹込되고잇서서風紀問題로 押收되는것이 一年에도 十餘種類가되다。

純情을노래하는 北國의歌人
飛行遠征의金福姬

빅타-레코-드의 專屬으로人氣노픈 歌手는 金福姬다。

이사람은 歌手로서 人氣도人氣러니와 歌手以外의 人氣가또한놉다

얼마전에 所謂飛行機遠征이라는말로 서울은勿論 시골까지에서라도 좀 똑똑한 오입장이면 침을삼키고 嘆服해버린 事件이 잇섯는데 그것은 平壤妓生들의 서울로 遠征을 오는데 飛行機를타고왓다는것이다

金福姬孃이 이飛行機遠征團의 一人임을 알고새삼스러히 놀래일必要는 조곰도업다。金孃은平壤産의 歌手로서 일즉이 平壤妓生學校를 卒業하고 빅타-專屬歌手가 되엿는데 얼굴이예쁘기로 일홈이놉거니와 목소리도얼굴에 지지안케 아름답다。

平壤에 잇스면서 서울은 吹込할때만 조곰式 들렷다가간다

그의人氣가 노파지자 서울의 好事家들이 電話로 金孃을 불러올리게 되엿스니 旅客機의貨金은 勿論편의 負擔이엿스나 飛行機를 타고 京城에 날려와서 世上이 시끄럽게 구는 飛行機遠征이란 새로운 術語를 만들어낸것이다。

今年스무살 이歌手는 北國的인 沈着과 豐滿의 豐富한것이 [illegible] 金福姬으로 살고잇는것도 無理가아니다。[illegible] 빅타-가 이歌手를 [illegible]

가시아리[illegible] 이가시요 [illegible] 가는별을 잡지안을 [illegible] 마음노코 사랑따라 어서 가소서

라는 「가시요소서」의 流行歌는 [illegible]의 히트로 [illegible] 의人氣는 여간아니여서 [illegible] 文藝部에 오는 金孃의편지가 [illegible]한다하니 엇지간히 問題를 이르키는 모양이다

어여쁜얼골과 아름다운목청
話題의主人鮮于一扇

한동안良妓의 風流客가운데 話題거리가 되고 文壇의 꼬십에까지 그일홈이 오르든 레코-드의 歌手로 鮮于一扇이라는女子가잇다

이歌手는 流行歌手로서 그일홈도 일홈이려니와 美人으로서 소문이 더노픈女子다

平壤産으로서 現在서울서 妓生노릇을 하는데 이歌手의 레코-드소리를 듯기보담 肉聲을 들어보겟다고 모혀드려서 終日기다려야얼골을할하면얼골을求하로 [illegible]

으로잇는데 人氣가 第一 놉고 問題를 이르키기는 이 歌手일것이다 所謂 飛行機遠征組의한사람으로서 그의 얼골과 목청의 아름다움이 그로하야금 이상스런 이야기거리를 흐러주고잇는것이다。

레코-드歌手로 일홈이노프니 妓生으로서 人氣도 놉고 이人氣가 노프니 이야기거리를만드러내고 話題에 오르내리니 또한 人氣가올러가고 이러케 循環作用 [illegible]

[illegible] 歌가 굉장하다。 이로 平壤妓生學校의 出身으로서 포리도루레코-드의 專屬

으로 꼬두둥실 [illegible] 黃海의 그외히트盤으로는 [illegible] 鮮人氣이라는 流行歌인데 포리도루에서는 굉장한 宣傳을하고잇 [illegible] 잇스나 大阪商船의 實上高를 보이고잇다한다。

鄕愁에지처진 南國의카나리야
哀傷의歌人 李蘭影

木浦의눈물이란 哀傷的인 民謠를 부른李蘭影孃은 木浦의出身으로 自己故鄕을 노래로불럿다 오케-에서는 李孃을 그가가진 秘藏歌手로 엿기고 잇서서 어더케하면 人氣가 減하지안흘가를 苦心하고잇다 事實 이歌手의人氣란 굉장하다 레코-드판으로 그가 가지고잇는 레코-드種類를 들추어보면 李孃의盤이八十퍼센트는될것이다。

그러므로 오케-에서는 새로운人氣를 어드라는것보다 어더노흔地盤이 허러지지안토록 現狀을 [illegible] 宣傳의 主力을 集中하고 잇는것으로보아 이

歌手는 벌서 老鍊의境에 이르럿다고볼수잇다

李孃은 木浦公普를 卒業하고지금으로부터四年前가을에 東京과大阪等에서 歌劇修業을 하다가朝鮮에도라와서 劇團太陽劇場에서 處女舞臺를 밟고人氣를 끌게되엿다

그리하야 오케-의 專屬으로드러가서 오늘에 이르럿는데이

歌手의特色은 첫재[illegible]인 소담스러웁고 부드러운것과 어데인지 모르게 哀愁的인데잇다

더욱이 이것은 이歌手의편으로보면 [illegible]하지못할것이나 피아노에 [illegible]하며 映畫에도 한목끼여서 못그럿지안흘만한 知能을 가지고 잇다하니 놀래지안흘수업다

오케-가 아프로 토-키-映畫作을 計畫하고잇는것도 첫재 이歌手의 토-키-俳優로서 가진 才能을 發見한것이 契機가 되지안혓나싶다。

前에 나온 오케-의 "노래조선"이란映畫가 이것의적은 試驗이라고할수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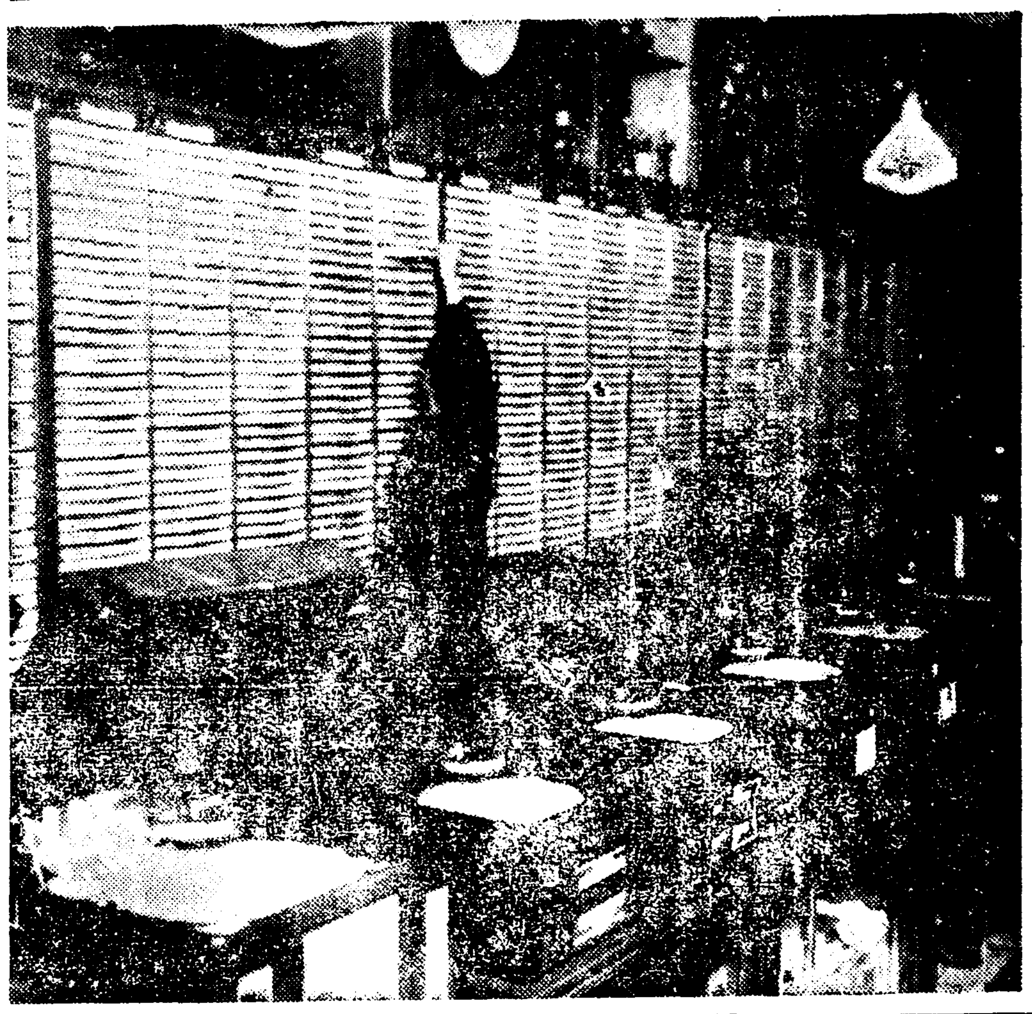
李蘭影孃이 지금까지 吹込한 레코-드로서 有名한것은 『봄마지』『不死鳥等인데 이것은 이歌手가 出世하게된 初期의것이다그다음 요사이와서『靑春抗議』『木浦의눈물』마도로스의꿈』『아려달라우요』等이 잇는데 『아려달라우요』는 너무低級하고 煽情的인것이 조치못하엿스나 木浦의눈물은 히트라고 할수잇섯다。

또한 流行歌手로서 人氣가웬만하면 대개가 艶聞이 들리고 수수한 이야기거리를 날리는데 이歌手만은 아직 이것이 업는것으로 보아 藝道에着實하는것이 미더우며 팬의期待에 어그러지지안흘것이다

新春懸賞文藝當選民謠

潭陽處女
高熙俊 (開城府京町三二八番地)

全羅道 潭陽은 참빗나는곳
어여쁜 가시내들 빗올맨다네
참대맛 솜물에 사랑을맷고
애태며 빗올매니 潭陽梳라네
하로에 두손씨 빗을매면서
장날을 손곱아서 기다리는건
빗팔아 비단옷 작만하고서
님마지 해갈날을 기다림일세
정든님 그리며 빗매는處女
潭陽의 가시내를 웃지를마소
밤마다 님그려 잡고매해도
潭陽梳 빗살가티 맘이곱다오



街頭에노래하는 象牙塔의音樂家
人氣노픈 蔡奎燁

蔡奎燁氏 이분은 콜럼비아의皮肉이라기보담 樂壇사람으로서일홈이 노프신분이다 일즉이 日本大學專門部를 卒業하고 中央音樂學校를 마치고 同校의 助教授兼 學生主事로잇스면서 콜럼비아 專屬이되기는 지금으로부터 十年前이라하니 相當히 오래다

蔡氏는 朝鮮에 그편이만타기보담 차라리 東京서 有名한音樂家인데 流行歌와純粹音樂의 中間을거르면서 엇더한 妥協點을 發見하라고 努力하는 것갓다

아카데믹한곳에 自己의몸을두고서 한사람의 流行歌手가 된다는것은 蔡氏로서의 獨特한境地가잇다고 보여진다。今年中의

히트盤으로는『물새야 웨우느냐』라는것인데이것은 콜럼비아 레코-드가 朝鮮盤으로 만들기始作한 以後의初記錄이라하니 놀라운人氣라고하지안흘수업다

正確한數字로 略六萬枚가 팔렷다한다。

祝福바든舞踊朝鮮 世界水準에肉迫!
三大舞踊家꾸준히努力

舞踊은 朝鮮이 가진바藝術가운데 世界的水準에 到達할수잇는 唯一한것이다 現在에잇서서崔承喜의 舞踊은 定評이잇는것으로서 널리 아리워젓다。

東京에서의 舞踊家崔承喜는그人氣가 絕頂에 達하엿스며 아프로 世界的 舞臺에 進出하기爲하야 歐米로 갈準備를 하고잇스니 압날의 期待는 더욱크다。

도라보면 崔承喜가 石井漠氏의 門下에서 研究를 마치고朝鮮에도라와서 그첫舞臺를 市內團成社에서 밟게될때 母校 淑明女高普의 花環을 바든지가지금으로부터 十年前-그때의崔承喜는 年齡으로나 舞踊技術으로아즉 어린아이엿섯다

그러하던 崔承喜가 十年間의 꾸준한 努力으로 오날 大成하게된것은 自己自身에게도 눈물겨운 努力이 잇섯거니와 그를 그만치 키워노흔 朝鮮社會에서도 實로 꾸준한 聲援을 앗기지안헛섯다

그는 朝鮮이가진바 哀想의民謠를 舞踊化시키엿스며 朝鮮의古典을 또한舞踊으로 表現하기에成功하엿다

그는 自己의生活과 傳統을줌으로 表現할줄아럿스며 사랑할줄아럿다 꾸준한努力-人氣가노프면 노퍼질사록 自重하는곳에 自己의發展을 찻고잇는 그는아프로 歐米의 舞臺에서 朝鮮을 춤출때 더욱 빗날것이며 그길을 도라와야만 大成을 말할수잇슬것이다 오즉 自重! 그리고 藝術을사랑할줄아는 참된藝術家!千萬사람이 무엇을 말하드라도 自己의길을 떠나지안코 忠實히 나아가는것을볼때 우리는 든든함을 마지안는다

崔承喜의舞踊은무엇이에떠타하더라도 朝鮮을춤추는것이뉴-늬한맛이잇스며이것만이 世界舞臺에가지고 갈선물일것이다。

그는지금 東京杉並區永福町二六四에 舞踊研究所를 두고 만흔 弟子를 기르고잇스며 昨年度한해동안의 公開演出만으로도 百九十回나 하엿스니 얼마나 끈장한 努力인지 알수잇다。

그가 今年二月頃에 京城에 來演한다하니 그때에는 우리에게 그동안 무엇을 가저다 줄것인지 지금부터 企待된다。

그다음 이 또한 東京과 關西方面만으로 도라다니면서 修業을 하고잇는 舞踊家 裵龜子의 舞踊은 年代가 相當히 오래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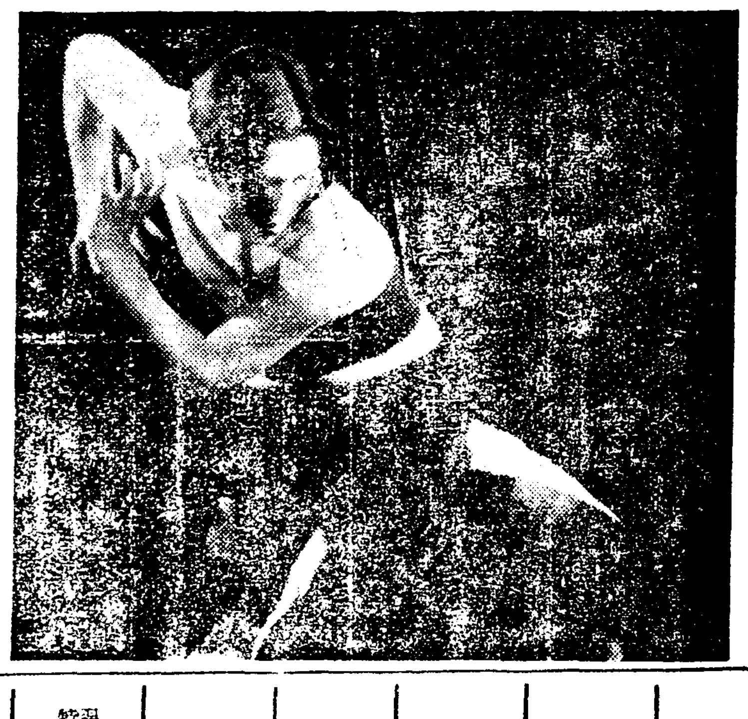
十餘年前에 그가 新堂里에 研究所를 가젓슬때부터 지금까지 [illegible] 그는 차라리不遇한 處地에 잇섯다고 볼수잇다。

그는 [illegible] 안 그는 物質的支障으로말미아마 自己自身이 研究生을거느리고 興行의길을 떠나지안으면안되게되엿다。

昨年가을에 그가 市內東洋劇場에 來演할적에 그의獨特한 技術을 보여주고는 지금은 大阪吉本興行株式會社의 專屬으로 京都方面에서 興行中에잇다 그는 裵龜子少女歌劇團이란것을 組織해가지고 朝鮮의古典을 歌劇化시키고잇스며 崔承喜가 東京서 人氣를 끄는것과가티 그는 關西方面에서 人氣를 끌고잇다 얼마전에 그는 朝鮮雅樂歌手의 沈相健以下五六人을 다려갓다。

이박게 舞踊으로서 市內에研究所를 가지고잇는 趙澤元氏가잇다。

그는 元來 庭球選手이엿스나 어떠케하야서 舞踊에뜻을 두고 多年間 東京에서 修業한다음舞踊家로서 튼튼한地盤을 가지게되엿다 그리하야 오래동안 여러사람의 研究生을 養成하며한편으로 歐羅巴에 舞踊行脚을하기爲하야 準備中에잇다



舞踊朝鮮은 아프로 世界舞臺를 노려보고 힘을기르고잇스니 지금부터祝福하야도 조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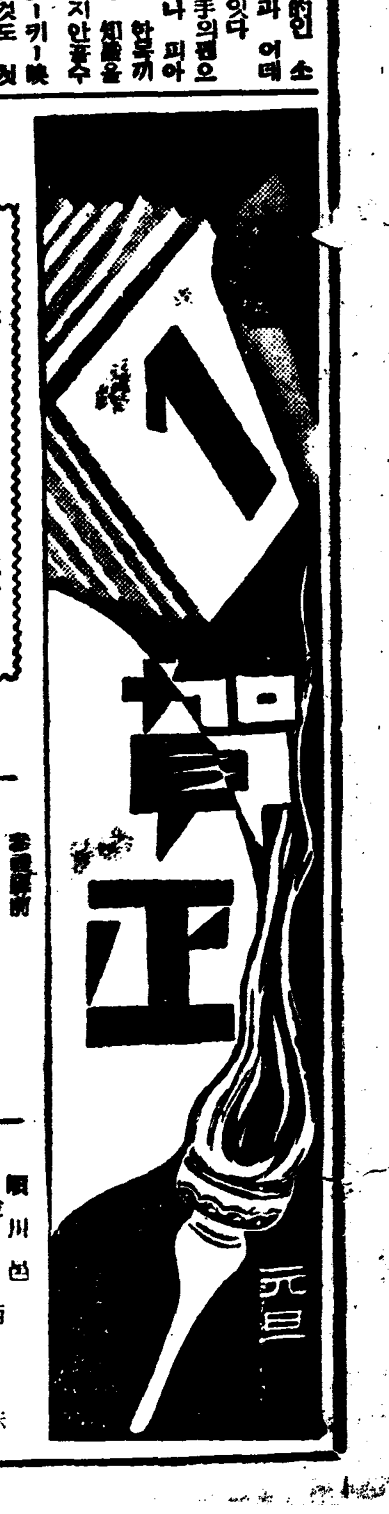
舞踊家崔承喜 二月에京城來演
歐羅巴가는送別公演 期待되는새作品들

舞踊朝鮮을 爲하야 萬丈의氣焰을 吐하며 東京에서 人氣를 끌고잇는 崔承喜氏는 오래동안 朝鮮을 舞踊으로서 世界에 紹介하는同時에 一層自己完成을圖하기爲하야 米國과 歐羅巴等地로 舞踊行脚의길을 떠나게되엿는데 이大擧를 압두고 그는오는 二月中旬에 京城에 來演하기로 決定이 되여서 京城에 [illegible]의準備를 지금부터 그오빠崔承一氏가 갓추우고잇다

京城來演은 送別公演으로서이消息에 對하야 崔承一氏는 다음과가티 말하얏다

『承喜가 京城公演을 오겟다는것은 事實입니다 저가 거기對한準備를하고 잇습니다마는 아직어느날에 하겟다는것은決定되지 안헛습니다 그저 二月中旬쯤 될것갓습니다 요번京城來演은 歐羅巴가는送別公演이 될지도 모르겟습니다마는 어떠케될지 아직은 明言할수업습니다』

(사진은 우로부터 崔承喜 裵龜子 趙澤元)



參禮

全北參禮驛前 穀物組合

益山郡春浦面雙亭里 崔鳳來

完州郡參禮面舊瓦里 柳東玉

昌新農園 主 宋炳雨

完州郡參禮面舊瓦里 柳謹玉

參禮驛前 參禮酒造場

參禮面警察官 春駐在所一同

朝鮮運送株式會社參禮代行營業所 參禮合同運輸合資會社

參禮昭和會 主 鄭俊謨

益山郡春浦面雙亭里 春浦酒造場 主 鄭俊謨

王宮面職員一同

益山郡王宮面興岩里 吳普善

完州郡參禮面參禮里 冊參特約店 東信乾材局 主 姜金直

參禮面職員一同

仁壽堂乾材藥局 主 金炳燮

參禮驛前 荷物自動車部 李承鳳

全北完州郡參禮驛前 鄭齒科院 院長 鄭完順

參禮市場通 大盛旅館 主 鄭昌鎬

參禮驛前 飲食店組合

穀物商 李鍾仁

完州郡參禮面舊瓦里 柳性玉

全北參禮 同仁醫院 醫師 任正宰 電話一七番

完州郡參禮面海田里 在 金順

參禮驛前 日光電氣商會 主 金[illegible]

各種作業服 洋品百貨 オーバー 學生服 各種帽子一式 時代洋品店 主 [illegible]

完州郡高山邑 李容仁

全羅線參禮驛前 荷主運送店 店主 金炳吉

完州郡參禮面瓦里 柳士浩

益山郡春浦面雙亭里 崔炳龍

參禮驛前 全州旅館 主 鄭化成

參禮驛前 東光洋品店

參禮市十字通 光波寫眞館

春川

江原道春川邑昭陽通三丁目一一番地 春川電氣株式會社

江原道春川郡西面 西山農場

江原道春川 合資會社 春川醸造場

江原道春川 春川道立醫院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江原道支部

江原道春川 ナショナル總代理店 光云商會

江原道春川 京春鐵道株式會社 山中友太郎

春川本町一丁目 絹織綿絲布商 株式會社 第一商會

江原道春川 江原道土木協會

春川稅務署職員一同

江原道春川本町 北星堂書店 玄鳳周

朝鮮麯子株式會社 春川支店

江原道肺結核豫防協會

江原道春川 大潤商會

江原道春川 朴贊祐

江原道食堂

江原道春川本町 平安旅館

江原道春川 春川金融組合

江原道春川邑花園町 春川幼稚園

順川

平元線順川驛前 順川無名會

順川分店 金衡廷

始興麵屋

順川邑 金炳洙

順川協同組合

表[illegible]屋

保險堂時計店

金[illegible]

金明洙

方炳均

織力組工 請負一式 丸井ブリキ屋 主 張[illegible]杰

順川邑 布木商 東亞商會

順川邑內 穀物貿易 金成商會 電話一六番

海成齒科醫院出張所 崔吉洙

順一精米所 主 白[illegible]周

金成酎 酒釀造所 主 金炳賢

李種偶

平元 クツ商會 主 李炳植

シンガー會社 順川分店 金文奎

料理屋 月星館 主 金冕國

順川邑內 順命醫院 黃[illegible]洙

平元線順川驛前 大同金物商會 主 邊正殷

絹織布木 劉基璜商店

順川產業組合

順川邑內 圖書雜誌 文具紙物 活版印刷 春香堂書店

順盛商店 主 李孝烈

平元線順川驛前 新興木工所 主 車光燮

平元線順川驛前 精米穀物商 榮光商會

鄭基柱

順川材木店 主 弓武正

三信印刷所

司法書士 宋龍燮

李圓吉

朴理禎

平元線順川驛前 順川農林組合

順川邑郡戎幼稚園 石[illegible]

無名氏

東一自轉車及農具店 主 文秉一

謹賀新年

安東縣

安東縣北一條通九丁目 **永昌膠皮工廠** 電話長一〇〇一番

安東縣六番通九丁目一 飲食店 **龍盤泉** 母 劉根植 子 李尙弼

安東縣大和橋通金湯街 安東第一の高等北京料理 **中央飯店** 日電話一八五番 滿電話二〇三號

安東縣六番通八丁目一番地 穀物貿易 各種肥料 農具一式 販賣周旋 **義成號** 電話長一二七番

滿洲國安東縣三番通七丁目三 穀物貿易 海産物各種 陸上運送 委託賣買 鐵道貨物 運送取扱 通關代辦 **日聖公司** 金聖福 電話長一〇四九番 電略(ニチ)又ハ(〇セイ) 私書函一一番

滿洲國安東縣官電街九五號 代書 測量 鑛業一般 **康德代書所** 電話(分局)一九九番

美國特上品唯一無二한肺病藥 **萬病水** 定價一瓶金貳圓五十錢 送料及關稅本堂負 滿洲國安東縣中富街 製造販賣 合資會社 **共濟堂** 振替口座奉山三四一二番

安東縣大和橋通九丁目一 株式會社 **安東取引所** 電話九一六八番

市場通九丁目 **協豐銀號** 電話店舖三五四

大和橋通七丁目 **東信昌** 電話店舖一七八市場三八七

大和橋通八丁目 **伊藤末吉商店** 電話店舖一五三市場一五三

大和橋通八丁目 **永泰公司** 電話店舖二一一市場二一一

大和橋通八丁目 **仲買店** 電話店舖一三六 四八七

大和橋通八丁目一番地 **朝鮮證券公司** 電話店舖八六三市場八六三

大和橋通九丁目四番地 **泰昌號** 電話店舖四六一市場四六一

安東縣九番通一丁目三 **李泰永**

安東縣堀割南通四丁目四 穀物委託 精米業 **豊淵商會** 主 金基永 日電一二六二番

安東縣一番通三丁目 **共昌精米所** 電話八五三番

安東縣官電街 外科產婦人科眼耳鼻咽喉科內科小兒科 **中央醫院** 院長 金俠

安東縣大和橋通九丁目 株式賣買業 **劉龍煥** 電話四六一番

安東縣二番通二丁目四 **安東金融會** 電話五三六番

安東縣金湯街 **廣生堂醫院** 金最玉 電話本局九六四番

滿洲國安東縣官電街九五號 官許土地建物賣買仲介營業 **中和號** 朝鮮

安東縣四番通七丁目 **第一洋服店** 主 金光鐸 電話一三五九番

安東縣二番通六丁目 朝鮮料理 **日星館** 韓植

安東縣 **尹景華**

安東縣六番通七丁目三 **崔忠元**

安東縣堀割南通八丁目 **韓興精米所** 金鳳周

安東第一教會 牧師 **金和喆**

安東縣大和橋通九丁目 正紀公司主 **金東周** 長電話二七五番

安東縣四番通九丁目 晝夜撮影 **中央寫眞館** 電話三六四番

安東縣四番通八丁目 **協昌商會** 電話長一一六七番

安東縣大和橋通九丁目四 司法代書業 行政代書業 **尹棋柄** 電話五〇六番

滿洲國安東縣聖潔教會 牧師 **金鴻淳**

安東縣堀割南通九丁目一 **趙敏述**

安東縣市場通 **朴根培**

安東縣四番通八丁目四 **德一商店** 電話七四一番

安東縣四番通九丁目 **新滿洋靴店** 電話分局五五番

安東縣三番通五丁目一番地 **金鍾韻**

滿洲安東縣市內 穀物貿易 委託賣買 **德泰號** 電話分局七六二

安東縣 所屬地商務會長 貴芳班 經理 **楊廣淸**

馬呂紊 孫培棠

安東縣三番通三丁目 合資會社 **田原商店**

安東長記絲廠 經理 **孫殿柱**

安東縣四番通七丁目四番地 **嶺南旅館**

滿洲國安東縣三番通六丁目 **朝日旅館** 電話一二九八番

安東縣六番通九丁目一 [illegible]商店

安東縣三番通五丁目一 高[illegible]美術商會

安東縣六番通 穀物委託 [illegible]號

安東縣一番通五ノ一 義和號

安東縣六番通七丁目 [illegible]

安東縣三番通八丁目三 李根永

安東縣 兒彰[illegible]房

安東縣 春[illegible]

安東縣三番通 桂[illegible]班

安東縣官電街 **大同醫院** 金命燁 滿電一九九番

滿洲興業銀行安東支店 **韓命稷 鄭來溶**

安東縣堀割南通八丁目二 精米部 安東縣四番通 小賣部 **韓興精米所 韓成商店** 金得珠

安東縣五番通七丁目 和洋紙文房具卸商 **中央紙業公司** 張昌復 電話一〇八一番

安東縣三番通 貿易委託 運送通關 **㊎金安公司** 金安運送部 金安通關部 電話長七八六番 私書函旭橫六番

私書函旭橋局七號 滿洲安東縣南三條通二丁目八 海陸物産 委託貿易 兼運送業 **東興商會** 電話本局長一四八番 電略(トウ)又ハ(〇ヤマ) 直營 丸山運送部

安東縣四番通八丁目 **大松蓄音器店** 主 李東燦 電話一一五〇番

安東縣市場通八丁目四 時計眼鏡蓄音器レコード **利和時計支店** 電話七三二番

安東縣市場通五丁目三 **貴金屬時計店** 主 金仁永

滿洲電業株式會社 **安東支店**

安東縣興隆街 **順天醫院** 院長 鄭[illegible]熙 電話四六三番

滿洲國安東縣大和橋通八丁目四 **朴宗鉉** 取次電一〇二三番

安東縣三番通二丁目 國境物産 穀物肥料農具 株式會社 **安東出張所** 電話長五八一番 取引銀行朝鮮銀行

安東縣四番通七丁目四 穀物貿易精白 米並木炭販賣 **金成商店** 電話一二七八番

安東縣一番通六丁目 **一樂館**

安東縣大和橋通九丁目四 **東亞興産社** 電話五〇六番

安東縣新撫街十五號 **法律顧問社** 金一斗

安東縣 **永生和[illegible]記**

安東縣七番通九丁目一 [illegible]

安東縣三番通七丁目三 滿鮮特産 委託販賣 原木製材 材部散運 賣送 通關業 **義成商會 義昌運送通關部** 主 金[illegible] 日長電話二三番 電略キ(又)ハ七イ 私書函第一五號

安東縣三番通四丁目三番地 精米精粟 穀物貿易 委託賣買 運送部 **高信精米所** 長電話三八五番 電略(コシ)又は(コ)

安東縣二番通二丁目二番地 合資會社 **共和精米所** (日)電話一三〇四番

土地家屋 一般仲介 信託金融 安東縣四番通金昌號 **金尙玉** 分局電話八六八番

安東縣六番通九丁目 **㊖信益商會 信益運送部** 日長電一七六番 私書函二十三號

安東官電街五二號 滿洲國法學士 **李相蜂法律事務所**

安東縣六番通八丁目 穀物貿易 委託賣買 運送通關 **奐大成號** 日長電六八二番

安東大正普通學校 職員一同

事業目錄 安東縣南一條通三丁目 電氣靴下、靴下機製造 製綿機、和洋家具 製造販賣 製繩機、製用叺 荷造用延繩類 **安東朝鮮人民會授產場** 電話一三三番

安東縣六番通七丁目二 **金泰榮**

安東縣南一條通三丁目五 **成啓澤**

安東縣市場通九丁目 **三和護謨株式會社** 安東出張所

安東縣市場通九丁目 **安東牧場** 電話一一七四番

安東縣堀割南通 **三和精米所** 金志賢 日長電四八九番

安東縣二番通二丁目 **金東昊** 電話一〇七六番

安東縣六番通九丁目六 劉[illegible]宗

安東縣下六道溝 [illegible]吉有

安東縣三道溝 張[illegible]星恒

安東縣上川端町壹二九八 天和盛

安東縣六道溝 [illegible]紡

安東縣 王文彩[illegible]紡

安東縣七道溝三國八七 大同[illegible]

安東縣 天順堂

安東縣七道溝下川端町 愛蓮書館

安東縣堀割北道九丁目二 [illegible]芳[illegible]

安東縣上六道溝南二條通 張仁山

安東縣七番通九丁目一 中興亭

安東縣 常[illegible]會[illegible]

安東縣 李煥章

安東縣六番通八丁目 義州麵屋

安東縣大和橋通 滿洲飯店

安東縣 王書亭

靈岩

靈巖郡廳 靈巖郡邑會 **職員一同** 電話四番

信洞興業株式會社 **和信連鎖店** 電話八番

西面事務所 面長崔炫 外職員一同

德津面事務所 面長崔基燮 外職員一同 電話二二番

新北面事務所 面長柳寅龜 外職員一同

始終面事務所 面長郭奉玉 外職員一同

西湖面事務所 面長崔奇洪 外職員一同

美岩面事務所 面長曹東煥 外職員一同

三湖面事務所 面長朴珉浩 外職員一同

鶴山倶樂部
鶴山面事務所
犢川金融組合
犢川警察官駐在所
犢川郵便所
鶴山公立普通學校
靈巖公立普通學校
德津公立普通學校
金井公立普通學校
新北公立普通學校
都浦公立普通學校
始終公立普通學校
西倉公立普通學校

靈巖警察署 署長 高田市郎 外署員一同 電話五番

道會議員 **韓銅錫**

靈岩 **新北金山**

靈巖面事務所 面長金玹栽 外職員一同 電話一二番

金井面事務所 面長林綏日 外職員一同

靈巖產業組合 組合長 **金玹栽** 理事 **金鶴銘** 電話三四番

美岩面春湖里 面協議員 **玄城鎬**

西湖面夢海里 有志 **李永煥**

西面鳩林里酒造場 **金在信**

都浦面鳳湖里 **湖南治療所** 金應天

始終面南海浦 學校費評議員 **李祥順**

始終面新燕里 面協議員 **李敦奎**

始終面萬樹釀造場 **申台燮**

新北金融組合 **職員一同**

鳩林公立普通學校 校長 北村正 外職員一同

良川公立普通學校 校長 金昌錫 外職員一同

西湖面夢海里酒造場 **金周炫**

西湖面長川里 面協議員 **全鍾源**

西湖面錦江里 有志 **崔順同**

靈巖郡都浦面都浦里 千代田生命靈岩代理店 **原田包美**

靈岩郡都浦面 **千株植**

德津面德津里 酒類釀造 **金相台酒造場**

始終面沃野里 面協議員 **吳琪祚**

美岩面春湖里 酒造業 **林平洙**

新北面葛谷里 **李貞雨**

靈岩邑內市場通 綢緞布木 **文鍾米商店**

靈岩邑內市場通 日用雜貨 **李相昈商店**

靈岩邑內市場通 綢緞布木 **申華成商店**

靈岩邑內市場通 綢緞布木米穀 **李京淑商店**

新北面月坪里 面協議員 **柳寅俊**

新北面葛谷里 有志 **朴正圭**

新北面市場通 綢緞布木 **金東錫商店**

西湖面聖才里 **李甲戌醸造場**

西湖面太白里 有志 **朴學先**

西湖面太白里 有志 **李鎭雨**

靈岩道岬寺 住持 **高仁奉**

靈岩郡都浦面 **徐成旭**

金井面延壽里 藥種商 **鄭重九**

永川

永川官公署一同
永川郡各面職員一同

大本山銀海寺

慶北道會議員 **曺由煥**
永川學校評議員 **曺奎榮**

映畫演劇常設館 **永川劇場**

朝陽醫院 永陽醫院 東光醫院

華北 **楊永曦**

永川代行書業所 **金鎭秀**

永川邑 良品廉賣 正札實行 **李禎容洋品店** 電話五八番

琴湖面 **曺圭燮 曺圭信**

大昌面 學校評議員 **成洛柄** 面協議會員 **崔周鳳**

朝鮮料理 **東山亭**

永川市場 海陸物産 委託販賣 **二三商會** 電話六番二三番

新寧 **金暢淑**

新寧 **金龍溺**

永川穀物商組合

花山公立普通學校長 **李貞燮**

華北 **鄭潤浩 鄭東鳳**

知谷 酒造業 **曺箕煥**

北門通 **金星洋靴店** 主 金漢基

東門通 米穀商 **金琮漢** 電話一二五番

東門通 司法書士 **文尙琦**

南門通 布木商 **金利坤**

西門通 精米業 **李盛垛**

大昌靈芝寺 住持 **車應俊**

慈川 酒造業 **殷成道**

淸通面 **田任達**

穀物商 **李榮雨**

淸通面 **院村酒造場**

大昌 酒造業 **蔡潤基**

驛前 **中央商會**

大邱商工銀行 永川支店

大昌面 **盧致容**

新寧 **安太元**

新寧 **具明會百貨店**

新寧 **李宗甲**

新寧 布敎師 **金元甲**

新寧 米穀食鹽 **永信精米所** 曺振錫

新寧 **東華堂藥舖** 權五信

新寧 面長 **朴德根**

新寧 **權五龍**

新寧 日用雜貨 **尹學洙商店**

[illegible]林 酒造業 **尹聖永**

西門通 [illegible] **朴得伊**

中央通 和洋百貨 **鄭炳憲商店**

市場 海陸物産委託販賣 **永東商會** 電一七

市場通 材木商 **朴海根**

南門通 牛肉商 **沈坤伊**

中華料理 **三星館**

西門通 九河 **貨物自働車部**

大昌 **曺百煥**

琴湖驛前 酒造業 **李弼洪**

琴湖驛前 **和信連鎖店**

琴湖驛前 米穀商 **權上洛**

安北 米穀肥料 **金允方**

慈川 **全炳夏**

慈川郵便所長 **金英大**

華北 産婆 婦人秘方家 **楊膺祚**

華北 **曺奎卨**

華北 學校評議員 **權寧植**

華北 **曺奎元**

淸通 **金丁洙**

臨皐 醫院 **郭鍾林**

臨皐 面協議員 **李秉鮮**

大昌 穀物雜貨 **許和行**

古鏡 酒造業 **趙鍾九**

古鏡 **李鍾澤**

林浦驛前 米穀商 **鄭容和**

琴湖水利組合 理事 **李沅珪**

尹益壽

北門通 穀物商 **曺秉海**

三山貨物自動車部 主 永川邑北門通 電話四〇番

西門通 寶用百貨 **金達錫商店** 電話二三番

新寧 **玉木淸一郞**

新寧 **李萬德**

琴湖驛前 楊[illegible]

琴湖 金[illegible]

新寧 [illegible]

中央[illegible] 金[illegible]

對岸의堤防築造로 四個里民에大威脅
二百餘町步의農土被害豫想
東古川百餘住民蹶起

【新興】수전방수구(水電放水口)의 제방(堤防)축조로 인하야대안주민들이 피해를 예상하고절속하야 소동하는사건이잇다 함남신흥군서고천면(新興郡西古川面)에잇는 조질제사호발전소(朝窒第四號發電所)의 방수로 그면파및 린접한 원평면(元平面)일부에 피해를주는것이 현저하야두면의 관계주민이 회사당국을비롯하야 함남도와 신흥군당국에 수차진정한바잇섯고 마침내는 관계지주들로부터 회사상대로 소송을제기한것은 그당시당시에 본보에보도된바어니와 관계당국도 그주민들의 요구가정당함을 인정하고 회사측으로하여금 전기두면의 피해예상지의연안에 제방축조를 명령하야지난 십일월중순부터 제방축조에착수하야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잇다 그런데 지금 공사중인두면 연안의 제방축조는 이번에는 그대안인 동고천면(東古川面) 중흥(中興) 중리(中里) 상리(上里) 흥경리(興京里)의일부일백여호의 이백여정보의 토지에 피해가 예상됨이 현저하다하야 사개리주민 일백여명은이미 도、군당국에 지금축조중의제방공사를 중지하든지 그러치아니하면 사개리연안에 가튼제방을 싸허줄것이라는 진정서(陳情書)를 제출하고 다시대표자들수전회사에 파견교섭하는일방 지난이십사일에직접 상도(上道)교섭하엿다한다 사태가 이에이르매도당국에서도 얼마전에 현지에기술원을 파견하야 실지조사한배잇섯는데 주민들은 일호공고한 결속하에 진영을 정돈하고 신춘벽두부터 목적관철을 위하야매진하리라는바 관계당국과및 대안주민들의 태도가 주목되나 피해가 예상되는이상 당국의 적의한시설이잇서야할것은 피치못할것이라고 일반의 주목을 끌고잇다

本社位置問題로 瓦電總會大紛糾
會議席上一月六日再開키로
事態의進展이注目處

【釜山】남조선에잇는 대구(大邱) 대전(大田) 광주(光州) 목포(木浦) 군산(群山) 부산(釜山)등의 혹전기회사를 대구대흥전기회사를 모체로하야 흡수한통합하기로 가계약을체결하게되자 각지로부터 신회사의본사유치문제로 쟁탈전을한바 부산부에서는 부회의원、상공회의소회의원、부산번영회、공업구락부등을중심으로 본사유치기성회를조직하고 맹렬한활동을하고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운동이 전체적맹렬화하야감에따라 부산부내에잇는 조선와전회사(朝鮮瓦電會社) 주주들은 일치단결하야 신회사를 부산에유치하도록 의시에응하야 회의실에서 향사장의사회하에 주주총회를개최하얏는데 주주총수 팔백여명중 출석주주는 백팔십여명으로 총주수십이만오천오백주중 출석주수십만구천삼백오십주이엇다 향회사장으로부터 가계약에관한경과보고가끗나자 주주중 중촌(中村) 오도(五島) 김장태(金璋泰) 목우구(牧牛九) 송강(松岡) 미창(米倉) 산내(山內)등제씨가 차례로나와서 남조선혹개전기회사합동은 국책(國策)으로 행하게되는일이라 구타여 반대는아니하나 모든조건과모든방면으로보아서 신회사의본사가 부산부내에잇서야할러이므로 제안한 대구대흥회사에 한때가계약금각서승인의건은 신회사의본사를 부산부내에둔다는부대조건부로 승인할것을전제한후 사장의의중여하는 영업성적으로보다 자본으로보다 사업의규모로보나 대흥전기회사보다 월등히몃배이상 우월한 지위에잇는데도 불구하고 대흥전기회사에 흡수합병의 가계약을주주에게 열의의상의도업시 한것은 일부회의의인지시 해산에의한 중의회의결에 눈이어두워서 일반주주의 리익을 무시한혐의가잇고 공정한후 도 중회사가 부례오만원이란 적은자본으로 설립된것이 현재 확대오십여만원이란 대회사로된것은 부산부민의덕택이라하야도 과언이아닌데 가계약체결에잇서서 이은인인 부민의리익을 무시한후 신회사가부산부에 설치되고 안되는데 일반부산부민은물론 부당국의손실이막대할 본사유치문제를 고려하지안코 함부로 가계약을체결한것은 부산부민에 대하야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준렬한질문급집책을하야 장내는 극도로긴장되엿는데 향회사장으로부터여러가지변명의 답변이 잇섯스나 일반주주들은 절대승인할수업다고 떠대는동시 만일중역제씨가 주를 다수이 소지하얏다고 이여론을무시하고 중다수결정을하게된다면 불측의불상사가 야기될는지 알수업다는등 격렬한말까지 나오게되여공기가 극도로 험악하게되엿스므로 향회사장은 할수업시 오는일월륙일에 다시 주주총회를계속하야 개최하겟다고 선언한후 동오후륙시에 폐회하얏는데 다음총회가주목된다하며 특히그간 일반부민급 일반주주들의 활동과 회사간부들의 티면공작이 주목된다고한다

三浪金組移轉說에 洛東側憤然反對
反對陳情書提出準備

【三浪津】삼랑진면락동에 잇는 삼랑진금융조합이 동면송지리(同面松旨里)로 이전된다는말을듯고 락동시민(洛東市民)은 이에분연 반대하는 일방 도(道)에반대진정서를 제출하고 목하 동군상남면(上南面)과 김해군 생림면(生林面)조합원들에게 반대동의에 날인을 맛는중이라한다

普校生의惨死
煖爐불에火傷

【慈城】북국 삭풍한설에 날마다 떨며 한글자라도 배우라고 찬바람을 무릅쓰고 다니는것을 부모된 마음에 애처러이 생각하고 새로히작케도를 사주엇더니 어린마음에 깁뻐다고 작약하며 다른아히보다 일즉이 학교에 갓다가 난로불에 화상을 당하야 삼일만에 어린목숨이나비 생도가 애처러이 죽어버린때이 자성읍에생겻다

자성학교사생을 서문밧게서 목제업을하는 김홍준(金洪俊)의 이녀 김소제(×)는 당지 공보교 일학년에 공부를 하는데 복장한 설한바람에 보통보든때며 고사려가튼 어린손으로 엄집으로 불며 날마다 다니는것을 애처러이 여기며 그부모들이 지난 이십이일 아츰에 「고게스트」한벌을 새로히 사주니까 어린마음에 한정업시 깁버하며 조와라고 날뛰여 그날아츰에는 다른생도보다 학교에를 몬저 가서 난로아궁을 자긔손으로열고 불을쪼이다가 오전구시경에 불행이도 새옷에 불이당기여 사정업시 붓게되엿는데 공교히도 겻헤 이어린이를 구하여줄사람이 업섯다 그래서 엄마고민하는동안에 딴방에잇던 선생이나 소사가 뛰여와서 황급히 구하여 자성의원(慈城醫院)에서 응급치료를하엿스나 화상이과중하야 지난이십오일 오후세시반에 애처러이도 죽어버렷다한다

四百餘圓喜捨
金梓一氏의美擧

【會寧】회령읍오산동(會寧邑鰲山洞)에 거주하는 고김성수(金成水)씨의 사자(嗣子) 제일(梓一)(二○)군은 부친생전에 회령사회를위하야 공헌이 만헛더니만큼 금번부친사망한지 제삼일만에부친의 유적을 남기기위하야 회령사회단체에 좌기와가티기증이 잇섯다고한다

▲一百圓 會寧公立普通學校
▲五十圓 會寧私立與女學校
▲五十圓 會寧長老敎會
▲三十圓 會寧私立普興學校
▲三十圓 會寧私立明樂學校
▲參十圓 會寧尋常小學校
▲三十圓 會寧公立商業學校
▲三十圓 會寧幼稚園
▲三十圓 會寧消防組
▲二十圓 會寧在鄕軍人會

에잇다는데 그원인은 장도의무려보다 원한이 아닌가 추측된다고한다

强盜被害는 虛僞申告判明

【開城】원적을 경기도강화군하점면리강리(京畿道江華郡河岾面昌江里)에두고 포목행상으로 각처에도라다니는 유성녀(劉姓女)(三○)는 지난이십칠일오전칠시사십분경 청도구읍동천동(東川)방 나무밧잇는길거리에서 강도를만나 현금이십여원을 빼앗기엿다는경보를트른 경찰당국은 크게 긴장하야 수사경관이 출동하야 수사망을버려 동분서주하얏스나 그후 피해자유씨의진술이 수상한점이잇스므로 경찰은 이를 맹렬히 추궁하엿던바 의외로 허위강도신고인것이 판명되여 유성녀는 십오일간 구류처분에 부하엿다한다

漁龍夜學開講

【江東】농한기를 리용한 농촌야학은 촌에서 글소리를내고 잇는이때 도하나 아름다운소식— 안주군대리면어룡리 리춘섭 리봉모 리근삼씨는 지금으로부터 륙년전 동리무산청년을 위하야 야학을 개시한이래 지금까지꾸준한성공을 차즌바 그로인하야동리청년중 언문을 모르는사람이 업시되여 어룡리로서 지금은업지못할 존재인데 금년에도 지난옹월이일부터 동리야학교 교실에서 개강한바 학생은양일명가량이라한다

定平與上間에서 電線을絶斷竊取
容疑者一名卽時逮捕

【定平】백미돌가량의 전선절단한 대담한 범인용의자가 정평서에 체포되엿다는데 탐문한바에 의하면 지난달삼십일 새벽에 정평、홍산간의 전선 약 백미돌가량을 절단 절취한 대담한 행동을 감행한자가 잇다는 보고를접한 정평서에서는 때를 옴기지안코 즉시 현장에 서정이 급행하야 맹활동을 하여 현장에서 약이십정보나되는때서 절단된 전선을 발견하엿다한다 그리고 용의자로 한청년을 검거하엿다는데 그는 본적을 함남 문천(文川)에 두고 일정한 주소가업시 물아다니는 고모(高某)로 방금 정평서(定平署)에서 엄중취조중이라고한다

長箭市內에大火
商店等七戶燒失
損害額이約三萬圓

【長箭】지난삼일밤열두시에 장전시내에잇는 강순필리발관(姜淳弼理髮館) 부엌에서 발화하야 린접한 일곱상점이 연소되엿는데 그중에가장 손해를만히당한 상점은 경원상점(鏡原商店) 춘전상점으로 이상점은 전소하엿고 진태영상점(陳泰永商店)은상품창고(商品倉庫)가 전소되야삼천원의 피해를 당하엿다고하며 내등상점도 반소되여 이번 화재에 전부의 피해는 약삼만원에 달하엿다는바 소방대의 활뿌가 고장이생하야 의일오전두시에 겨우진화하엿다고한다

甲山農林學校—
設置運動進捗
當夜喜捨金七千餘圓

【甲山】지난십이월이십오일오후칠시부터갑산기덕당지갑산유지청년회사무소에서는지원주민오십여명집회하에 이십년내의 숙망이되여오든 갑산농림학교설치문제로 숙의를 거듭하게되여 장회학장병서씨의 저간경과보고와 신문지상 흑은기타소식등에 비추어고하매 일반은 작약하야 비장한결의하에 본운동의최후퇴ㅣ을향하야 구체적으로촉진운동을개시하는일편 위선종태로부터 현안이든 설립긔본금 오만원의조성을위하야 갑산장학회(奬學會)로부터 출연하기로한 삼만원은 조만간 적립을 완료할것이고、기타이만원은 삼수、풍산、장산의 삼군일반유지의 회사에의하기로하엿는바 당야에 참석하엿든 인사중으로서 즉석에서별항파가티 자진회사가잇서서 일반은 더욱 용긔백배되여 여한한 난관이 당면할지라도 최후의목적을위하야 분투할 결심을굿게가지고잇다는바 더욱이 이회사금의거개전부는 넉넉한살림에서 나온것이아니고 푼푼히모힌 적은주머니에서 떼여낸 혈성의결정인만큼 일반에게주는 자극이 커서 목하소식을듯고 희사를즐원하는이가 속출한다는바 긔성회에서는 설치운동촉진상 느저도 일월중에는 오만원이라는긔금적립을 완료할 감오로 저반준비를 착착진행중이라한다

◇喜捨人氏名과金額=千圓式故金兆述(前回) 金暻鉅▲五百圓式 李鳳鎬(前回) 金璉衛 鄭泰欽 朴和東▲四百圓 金景鎬▲三百圓崔學鎭▲二百五十圓金性濟▲二百圓式 全七星 安鳳源 朴允吉 姜仲根 李仁和 朴庚璹 金麟鎰 崔錫旭 朴承振 吳炳直 ▲百圓式 金炳瑞 金炳容 洪基淳 白進周 金秀烈 德成利 協成興 金衡均 洪熙云 李柱元▲五十圓式 朴明哲 高濟潤 金熙鳴 金明浩▲三十圓 朴基淳▲二十圓式 張龍源 金奇泳▲十圓 張錫鵬

順川聯合基靑
第七回會總

【舍人】평남순천지방(順川地方)긔독청년 면련회 련합회에서는 오는새해 십일일 오전열시부터 제칠회정긔총회를、개최하기로된바 이십여처 지회에서 보내는 총대백여명이 회집할것이라는데 장소는 자산면내 식송교회(植松敎會)장이라고 한다

地方人事

▲趙聖行氏(醫師)開院人事次 本報鴻山支局來訪

鴻山 新春懸賞擲柶大會

△時 日 一月六、七兩日間
△場 所 九龍靑年會館
◇主 催 九龍消防組
◇後 援 朝鮮日報鴻山支局

中等程度學校론
忠北道篇
清州商校가異彩
一面一校制도業已完成

敎育! 이는 勿論人生生活이나社會政策에잇서 무엇보다도 重要한問題가될 아수업는것은 贅言할必要도업지안흘것이다

그러면 우리道에잇서 그에對한實地的施設이如何한가하는 우리의關心이다. 爲先가觀新의氣分을갓는新年劈頭에 이大問題의 地方的解剖乃至紹介를하는 必要性도이에基因한바도勿論이다

그러면 나는課題된 忠北의그것을 보다더 具體的으로 明瞭히紹介批判할 責任을 가진듯이도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忠北의 이課題에關한 諸部門을 詳細히 들추어내일사록 새삼스러히 놀나지안흘수업슴이 遺憾이다

敎育! 사람으로나면 반드시 먼저 배워야할것과가티 배워야살수잇슴에不拘하고 初等學校入學率 勿論! 一三%(五一、○四九人對七一七五五人)로 七七%의이學齡兒童의 갈곳이업다「無知는悲慘을낫는다」이말을 누라서 眞理가니아라 否定하랴 그러면 忠北敎育界의 現在와將來를 어찌憂慮업시볼수잇스랴!

忠北道內 初等敎育機關의 狀況을 一瞥하면 公立普通學校가 一○二校로서 收容兒童人員은男二四、○八六名女五、八○二名計二九、八九○名인바 昭和九年度末現在收容人員數에比하면二、五七六名의 增加를보이고잇는데忠北道內는 昭和十一年五月에 비로소 一面一校制가 完成되엿고 郡單位로 본다면 槐川郡이 第一먼저 昭和六年에 一面一校制가 完成되엿다 道當局에서는다시學級增設計畫을 立案中이나아직까지는 그具體案은 서지안은 模樣이다

그러나 淸州邑內만은 十個年計畫으로 學級增設을 計劃하고잇다고들엇다

私立普通學校는三個校로 金元根氏經營의 淸州大成普校와 基督敎系經營인 淸州의淸南、槐山의 玖瑰學校가잇슬뿐으로 收容人員은 男六三九名 女一八○名으로 計八九九名이다 이外에簡易學校를設置하야 多少緩和策을講究하고잇는데 道內二十一個校로 男一、七四五名、女三三五名을收容하고잇스며 私設學術講習所와書堂이 坊坊谷谷에設置되여잇는데 講習所가四二個所로 男一○、三七五名女二、○九二名計一二、四六四名을 收容하고잇스며書堂이 五八九個所로 男一○、五六三名女一、八六○名計一二、四二二名을 收容하고잇다以外에 普校卒業者로 簡易한實業敎育을밧게되는 實業補習學校가 四個所 約百名을 收容하고잇다

◇

다시道內中等學校狀況을 보건대 高等普通學校 一、農業學校 二、高等女學校 一、私立商業學校一이잇는데 商業學校는 特志家金永根氏가 商業學校가업슴을 遺憾으로생각하야 私財를 喜捨하야서 昭和十年五月에 財團法人學校로서 創立케 되엇는데지난 十一月八日 校舍가 竣工되여 落成式이 盛大히擧行되엇다 忠北線汽車로 淸州에들어서게되면 第一먼저 눈에 보이는것이 臥牛山麓에 새로建築된煉瓦二階商校일것이다 高女校는 生徒二一六名中朝鮮人이 五三名으로서 女高普의 絶對必要를늣기고잇다 市內某氏가女高普校를設置코저猛活動을하고잇다고 하는데 그企待가 자못크다한다 各中等學校의收容人員과 志願人員을 數字的으로 적어보면 다음과갓다

校別	收容人員	募集人員	志願人員
淸州公高	[illegible]	約一○○	[illegible]
淸州公農	[illegible]	約[illegible]	[illegible]
忠州公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淸州高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淸州商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一一三八		

(昭和十一年五月末現在)

(淸州特派員 洪鳳憲記)

長篇小說 그의自叙傳【14】
長白山人作
(題字)

어린적 (十四)

어린게는 각처에 기와 배삭한번씩은 보이는 모양이엇고 또 점인겨라는것도 잇섯다。모도들 꿈을 꾸어가지고는 표를 사고 또 꿈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잇엇다。나도「만인게 일등이나 하나 빼젓으면」하고 기다리던것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한번은 만인게 사장이 되엇으나 그것은 행원인지 흐지부지하고 말앗다。아마 나라에서 금령이 나린때문이나 아닌가 한다。

만인게도 업어지고 아버지의 건강도 점점 쇠하는듯하엿다。무슨 병인지 모른다 가끔 누어 앓앗고 어떤 때에는 겨지에서 한달이상이나 앓아서 어머니는 젖먹이를 업고 아버지를 찾아가고 일곱살먹은 나와 세살먹은 누이와 단 둘이서 이불을 잇는대로 내려서 두르고 추운 겨울에 밤을 굶고 앉엇던 것을 생각한다。뒷집 사랑채에 사는 무당이 새벽에 우리집에 나와서 문을 열어보고 우리 둘이 이불을 「두르고 오그리고 앉어서 눈만 말똥하고 잇는것을 보더니、

「그래두 얼어 죽지는 않구 들 이다 살아잇구나」

하고 밥과 국과 숭어 구은것을 갖다가 주던것을 기억한다。

어머니는 이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나보다고 눈이 퉁퉁 붓아지는날 젖먹이를 업고 오십리나 되는 길을、찾아갓는데 그 이튿날 돌아올 때에는 도움됨 실량 얻어가지고 와서 아버지

니 좋은 무슨 매복이니 꼬조무순매복이니、외조 부어이니 하고 쓴는것이 재미잇엇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다섯 식구의 입에 풀칠을 하기는 어려웟다。그래서 나를 위해서 남겨두엇던 책까지 내 이종에게 팔아먹게되엇다。나는 그 책들을 팔 때에 몹시 울엇다。당일 집을 팔 때보다도 슬펏다。나는 내집의 몰락이란것을 더욱 느낌만하게 철이 낫것이엇다。어머니 뒤에서 이모가 나를 보고 내가 그렇게 원통해하는것을 그 책을 가저가서 아들이 죽엇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엿다。내 이종은 장가를 들고는 곧 죽어버린것이엇다。

내가 열한살되던해 즉 임인년 괴질이되엇다。우리 집은 떼할수없이 가난하게되엇다。옷은 다 떨어지고 주어울만한데서는 다 꾸어먹고 팔아먹을것은 다 팔아먹고 인제는 앗도절벽 뒤도 어오고 되엇다。추석이 내일모래라고 하건마는 다려 성묘는커녕 조석 끄릴것이 업엇다。나는 아버지가 비변한 친구들에게 구걸하는 편지를 쓰는것을 여러번 보앗거니와 그중에 『節日在邇百物錯難見面尤困…』 이러한 구절이 잇던것을 소상히 기억한다。나는 그런 편지를 전하는 일도 해보앗다。

이러한 경우에 가끔 내 종매가 시부모 모르게 후원하는것 흑은 돈냥을 얻어서 심부되는 애꾸눈이 하인편에 보내던것을 기억한다。그 누나의 시집은 부자엿다。그러나 그 시부모는 소문난 고림보여서 아버지는 누나가 보내는것을 밧을 때마다、

「이애가 이러다가 제 시아비한테서 들키면 어떻겡량으로」

하고 노 걱정을 하엿다。아버지는 누나 시아버지네 일족을 돈만 아는 상놈들이라고 미워하엿다。

이때에도 추석이 재이하건만 떡들이 소여하여서 흑시나 누나헌테서 애꾸눈이 하인이 오지나 아니하는가 하고 연해 앞길을 바라보는것은 아마 나만 이아니엇을것이다。소내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아버지는 곳을 올건도 업는 상처꼬치를 깎고 잇엇다 두부도 꽂을것이 업는 것을。그리고는 아버지는 사당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무엇을 치이는듯하엿다。

儲かる仕事
有望한新業事
全國遠近不問自宅에서便安히經營하거되는日常消耗品으로內外에販路廣大하고利益多大한有利事業
大阪市港區八幡屋大通二丁目
愛國洋行仕入部

セーラー万年筆 特約店 楠商店
京城鍾路貳丁目二十七番地
カタログ進呈 電話光化門三九六番

セーラー万年筆
セーラーファインキ 3オンス 20セン
3.00以上

大阪天王寺のムシクダシ
회충구제약

조흔家庭工業
第一 參十萬圓
第二
株式會社

堅實家庭工業
株式會社 大同商事
大阪市北區空心町二丁目 電話川五五〇番

コリチン
高級淋疾藥
淋病藥の御相談は
合資會社 京城新藥社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支店 出張所

東一電氣商會
京城仁寺町五一
電光二二九七
振替二六五〇三

「保險金領收廣告」
一金壹千五百圓也
京城府 徐廷煥

結核熱に
エルボン
에루본
增血作用이잇는 解熱劑

强力男性ホルモン
アンドロスチン

月經催進劑
アゴメンシン
아고멘진
月經過少・月經不順・月經困難・子宮發育不全
月經性皮膚疾患・面皰等에決定

居昌

北上 **林有樑**

居昌釀造合名會社 代表社員 **全相吉** 支配人 愼重穆

居昌郡廳

韋堂鑛業部 居昌白鶴洞

居昌稅務署 居昌酒造組合

居昌春秋會

居昌邑 **南昌醫院** 愼昌縡

居昌邑 **河山醫院** 河周鉉

居昌邑中央通 **李河星病院**

居昌 郡農會副會長 **金成昌**

全相吉

月川面事務所 面長 **康秉淳**

居昌邑市場通 綿布、陶器、食料品 **喆林商會** 主 李喆永

居昌警察署

道議員 **鄭泰均**

道會議員 **愼鏞禧**

辯護士 **李和鍾**

熊陽面東湖里 **李瑢和**

加祚面 面長 鄭漢哲 **職員一同**

渭面市場 醫生 愼炳乃

居昌 **崔永塾**

居昌邑 **章東觀**

居昌大正通 **敬信洋靴店** 主 韓寅洙

加祚金融組合

海産物 郡散賣 **永明商會** 電話三四番

北上面事務所 **職員一同**

李鉉廷

熊陽金融組合 **金相龍**

渭川面場基里 酒造場 **愼堏晟**

居昌 **砂防事業所**

居昌邑 **安齒科醫院** 安養成

資生堂藥舖 藥劑師 **金得洙**

昌南金融組合

居昌シンガーミシン會社 主任 李九炯

居昌邑 **大成自轉車店** 主 金炯龍

居昌本町通 **京屋洋服店** **友信堂時計舖**

朝鮮日報居昌支局 顧問 南昌宰 顧問 朱瑞緈 支局長 愼昌縡 記者 崔瑞用 記者 權鎬弘

南下面 面長 **尹秉洙**

南下面屯馬里 **同井稧** 稧長 金銀至

南下面屯馬里 酒造場 **金俊榮**

南上面事務所 面長 **金鎭翰**

主尙面事務所 面長 **金永善**

馬利面事務所 **職員一同**

居昌金融組合 **渭川支所**

加祚面場基里 **製酒組合**

北上面葛溪里 酒造場 **金達鎬**

[illegible] **職員一同**

居昌金川洞 **李聖在**

居昌金融組合

居昌 **李鉉彬**

居昌 **全景鉉**

居昌 **李鍾德**

居昌邑 **尹基商**

居昌大正通 **中央印刷所** 主 金養容

居昌邑市場通 **敬信고무商會** 主 李尙雨

居昌市場通 綿布 **東亞婦人商會**

居昌元町 **三星堂樂器店** 主 金昌壽

居昌市場通 **金剛商店** 金致顥

慶尙南道居昌模範林業務所 **職員一同**

居昌邑下洞 **愼祀銑**

居昌邑 **愼鏞柱**

金川洞 **永春堂藥局** 主 成洛水

居昌邑 醫生 **金濟東**

加北面 面長 **全在明**

高梯面事務所

高梯面 **農山里酒造場**

渭川面事務所 **職員一同**

無名氏

熊陽面 **愼判鳳**

加祚 **李起南**

熊陽製造組合 **李鉉進**

南下面武陵里 酒造場 **申鉉鍾**

南下面梁項里 **尹龍植**

南上面屯洞里酒造場 **金聖培**

月川面西湯里 **金淳億**

神院面淸水里 酒造場 **郭泰燮**

南下面月谷里 **崔丙烈**

熊陽面 **劉炳根**

北上面蘇沙里 **林基見**

加祚面市場 醫生 **成文台**

渭川面市場 醫生 **黃致鎬**

慶南居昌郡邑內 海東藥房 主 **愼鏞直**

月川面西湯里 **金商鉉**

馬利面大東里 **姜馬洲**

熊陽面汗基里 **金瑀鎬**

南下面芝山里酒造場 **劉炳燮**

加北面牛峴里酒造場 **朴常圭**

晉州

水曜會

晉州釀造合資會社 晉州酒造株式會社 晉陽酒造株式會社 嶺南藥酒製造株式會社 晉州麯子製造組合

晉州郡農會

晉州邑榮町 **朴相郁**

晉州郡文山面 **李昌鉉**

晉州邑 **許治九**

晉州邑本町 **廣信商會**

晉州邑 **趙琪洪**

晉州邑 **原田自動車部**

晉州邑 **元昌藥房**

晉州邑榮町 **慶一商會**

晉州邑 **崔志煥**

晉州邑 **晉州券番**

晉州邑西鳳町 **朴奎錫**

晉州邑 **實業春秋會**

晉州郡文山面 **永和興業株式會社**

晉州朝鮮酒造組合

晉州邑蓬萊町 **徐相弼**

晉州邑蓬萊町 **姜太周**

晉州邑 **尹炳用**

晉州公立學校長會

晉州郡文山面 **西村商店**

晉州邑 中華料理 **群賢館**

晉州邑 **徐宗淑**

晉州邑 **洪成允**

晉州邑 **許億**

晉州邑 **金奉圭**

晉州邑 **金伯容**

晉州邑 **趙在厦**

晉州邑 **大昌商會**

晉州邑 **具仁會**

晉州邑 **鄭晩教**

晉州邑 **三二商會**

晉州郡文山面 **文山酒造場**

晉州邑 土木建築請負業 **丸組工務所** 趙九霽

晉州郡琴山面 **面事務所**

晉州邑東鳳町 辯護士 **洪鍾律**

山淸郡丹溪 **鄭鎬德**

晉州邑 **向文齒科醫院**

晉州邑 **南書館**

晉州邑 **三六商店**

晉州邑 **共濟醫院**

晉州邑 **文星堂**

晉州邑 **吏科**

晉州邑 **文章現**

晉州邑 **金仁大**

晉州邑 **明治堂時計店**

晉州邑 **徐命石**

晉州邑 **李章喜**

晉州邑 **谷口貨物自動車部**

晉州邑 **李炳和精米所**

ライオン齒磨

라 이 온

賀正

天地一新、이맑고새로운 曙春을마저설가年頭에 江湖의諸賢들께서는、清福發展하시기를奉賀합니다 도라볼진대、客年中에는 더업는最肩同情을多蒙하옵고 惠澤을입어、社運의盛況은實로記錄하고도 남음이잇슬뿐아니오라、弊社製品에더욱더認識과信賴를 밧고잇사옴은感謝不已하옵니다、지금에社로서는感謝함에차고넘치오며 至誠으로써 寵顧에따르고저하옵는바이오니모조록 今年亦是變함이업시 格別하신愛護를밧고저 祝諭와더부러 懇願하옵니다

稽首再拜

昭和十二年丁丑元旦

ライオン齒磨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本店營業所 東京市淺草區淺草橋 大阪支店 大阪市東區博勞町三丁目 名古屋支店 名古屋市西區堯兵町四丁目

8―12.1